

건축사 건축

2000 **06** vol. 374

칼럼 _____ 한국건축가에게 묻는 AIA의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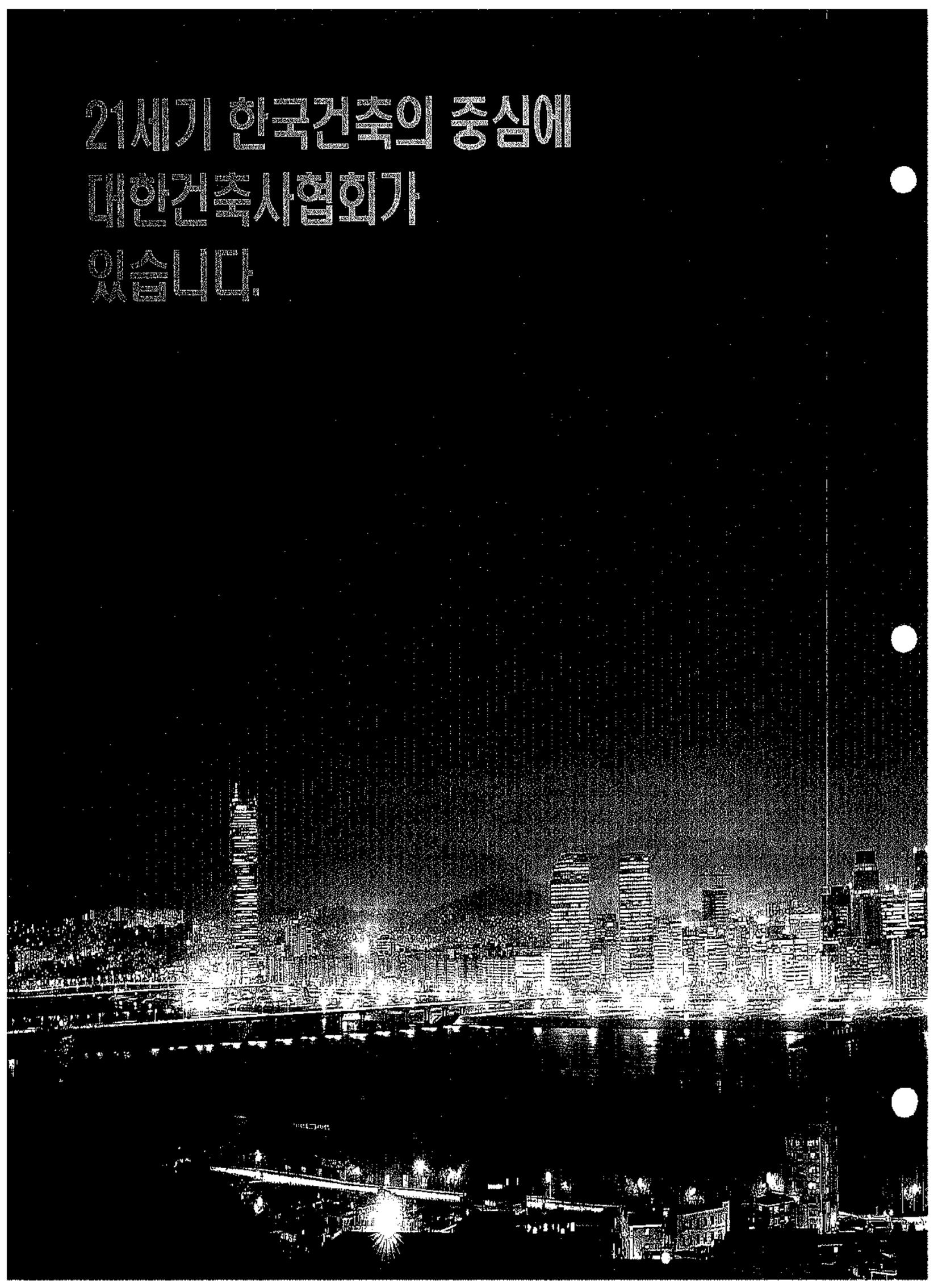
작품리뷰 _____ 부산광복기념관

해외건축 _____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2)

법령 _____ 건축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



21세기 한국건축의 중심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IntelliARC/IntelliARCH 2000 출시**
IntelliCAD/IntelliARC 2000 무상 업그레이드 실시



IntelliARC 2000 업그레이드 지원 및 기능

IntelliARC 사용자는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습니다.

CAD 한글 기능이 보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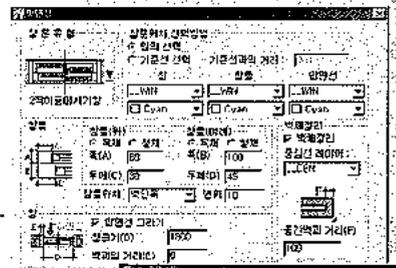
2D Solid Hatch 기능이 가능합니다.

Drawing Manager 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Symbol Library 및 도면관리가 더욱 파워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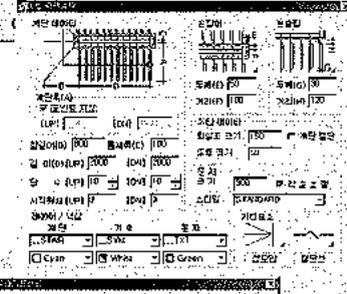
설계기능 TOOL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IntelliARC2000 은
IntelliARC,
Drawing Manager,
CAD 한글이 탑재되며,
C.G 샘플이 제공됩니다.



www.iarc.co.kr 에서

좀 더 나은 인텔리캐드와
 인텔리아크를 위하여 사용자의
 질문과 업그레이드 및
 기술 지원을 합니다.



IntelliARC 의 주요기능

설계지원도구

설계응용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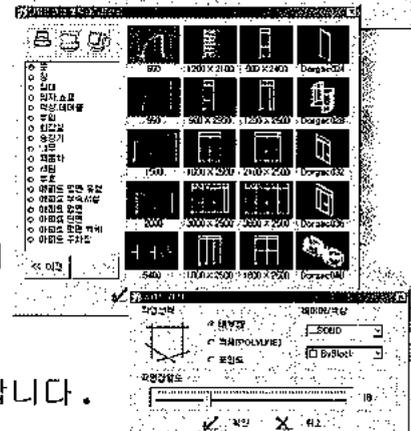
자동 심볼그리기 및 관리

수많은 도면과 블록을 관리

AutoCAD2000 과 같은

신속치수 기입도구

중다이나믹 기능을 제공합니다.



IntelliARC는 **CAD/CAM** 학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强 安

“유리에 방탄조끼를 입힌다?”

“기존 유리를 벽보다 강한 유리로 만들어 드립니다” 하니타 디펜스 - 도난 침입방지 필름

방범 창틀 대신 사용하는 건물 및 주택 유리창의 유리면 내부에 부착하는
방범·침입방지 기능을 가진 투명한 필름입니다.

창문을 통한 도둑·강도의 어떠한 외부침입도
완벽하게 차단하는 - “하니타 디펜스”



디펜스 시공 전



디펜스 시공 후

- 유리창을 통한 도둑·강도의 무단침입 원천봉쇄 및 조형미 유지
도난 및 테러방지, 감옥 아닌 감옥인 방범철창·셔터 불필요,
미려한 외관을 조성합니다.
- 이웃의 화재, 가스폭발 및 태풍으로부터 보호
파괴·폭발·내부의 화재나 위급상황시 밖으로의 탈출이 용이합니다.

필름이라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제규격인증 획득!



국제유리필름협회



독일표준규격



미국표준규격



영국표준규격



국제표준회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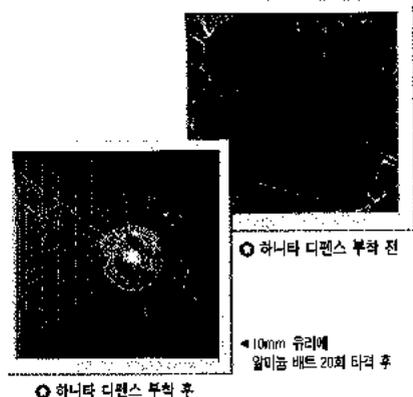
국제건축용 Film
생산자 연합회



이스라엘표준규격



미국재료 시험협회



하니타 디펜스 부착 전

10mm 유리에
알미늄 배트 20회 타격 후

하니타 디펜스 부착 후

- 유해 자외선 99% 까지 차단
기미·주근깨·피부병 발생저지, 고급유류 및 캔, 소파 등
탈색 변색 방지합니다.
- 셔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품 홍보효과 극대화
아간에도 전시·홍보효과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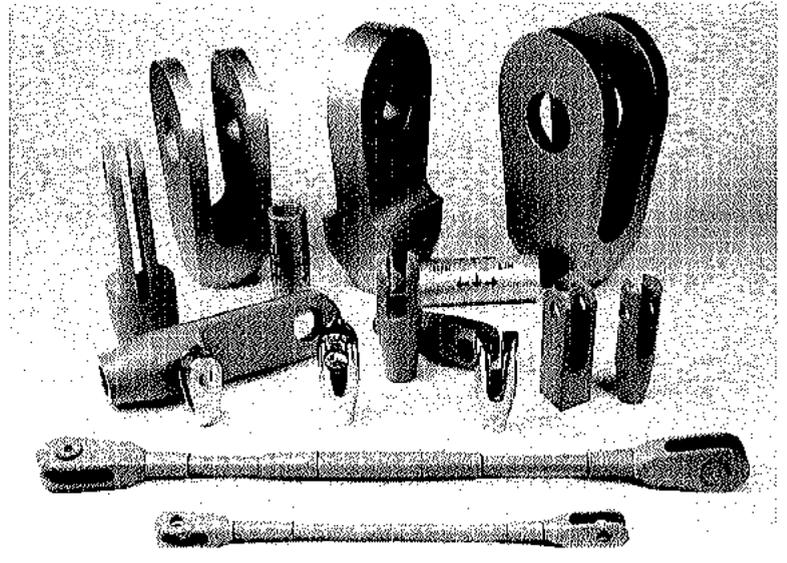
- 에너지 비용의 절감 및 유리파손으로 인한 인명보호
열차단 효과로 단열 및 보온효과 30~70% 절감 및
실내·외 유리파손시 파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 Color Defense 선택시 외부시선 차단으로 사생활 보호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미려한 외관을 조성합니다.

대공간 강구조나 투명건축을 계획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 철골을 긴장한 SEMALLOY® 고장력 인장봉이 있습니다!!!

■ 주요 생산품 및 제품명

- 강구조건축, 교량의 긴장 및 내진용 고장력 인장봉 셋트
(H.TENSION TIE BAR SET FOR STEEL STRUCTURE)
: SEMALLOY® 460, 835
- 유리구조용 스테인레스 인장봉, 케이블 셋트
(STAINLESS PARTS TENSION BAR, TENSION CABLE SET FOR GLASS STRUCTURE) : SEMALLOY® STS
- 프리스트레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스트텐션용 고장력강봉 셋트
(H.TENSION BAR SETS FOR P.P.C POST TENSION)
: SEMALLOY® P.C BAR



■ 생산제품규격

Grade	Diameter	Length	Remark
SEMALLOY® 460 SEMALLOY® 835	25 ϕ ~120 ϕ	12m	H.T BAR
SEMALLOY® STS	12 ϕ ~60 ϕ	8m	STS BAR
SEMALLOY® P.C	25 ϕ ~75 ϕ	8m	P.P.C BAR

• Coupler 사용으로 길이의 연장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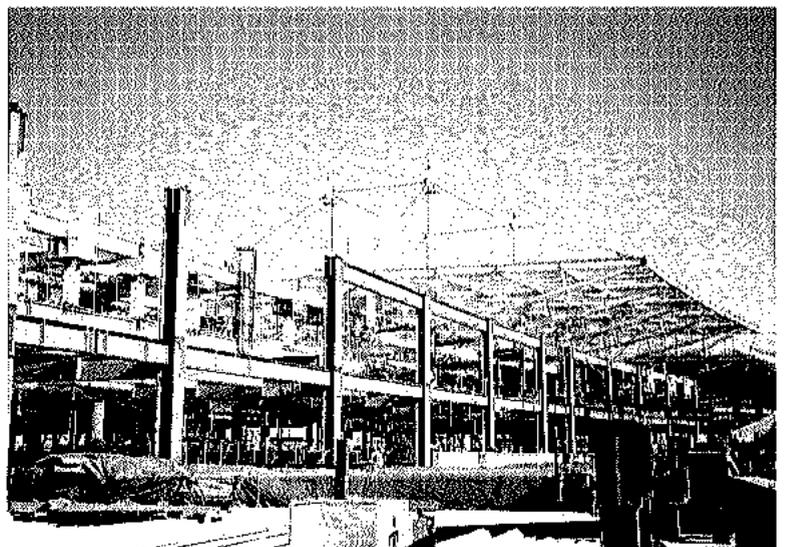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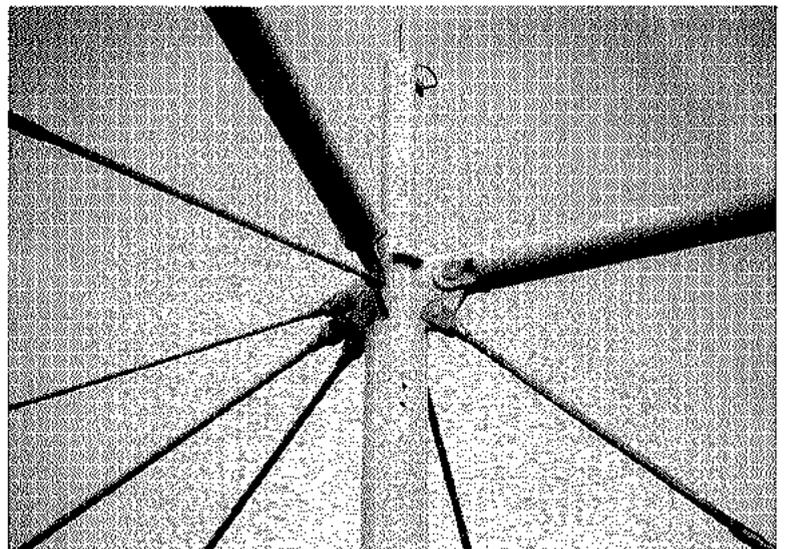
■ 제품의 기계적 특성

Grade	Properties	Min Yield Stress (N/mm ²)	Ultimate Tensile Stress (N/mm ²)	Min elongation (%)
SEMALLOY® 460		460	610	20
SEMALLOY® 835		835	980	20
SEMALLOY® STS		205	515	30
SEMALLOY® H.T STS		690	860	12
SEMALLOY® P.C BAR		930	1080	5

• P.C Bar는 사양 별도협의 요망.

■ 공사실적

현장명	원청 시공자	사용규격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한진, 삼성, 대우	M24~M100
대림대학 체육관	(주) 삼호	M56~M64
메리엇 호텔	삼성중공업(주)	M56~M64
반포천 복개 고가도로	센트럴 건설(주)	M36~M140
서울대 생활체육관	POSCO개발	M36~M64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현대산업개발(주)	ϕ 56
고속전철 천안역사	한라건설(주)	ϕ 24~ ϕ 32



SEMALLOY®
세일단조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1108-75

TEL : (0523)387-7070 FAX : (0523)387-7074 E-mail : sell7070@chollian.net

초소형, 초경량, 고품질의

프로젝터 **MP1600**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약속합니다.



지붕을 5초안에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ArchiCAD에서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ArchiCAD로 시도해 보셨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ArchiCAD는 건축 디자인과 프리젠테이션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되어온 프로그램입니다.

클릭, 클릭... 지붕이 바뀝니다.



ArchiCAD™ — 건축의 세계언어

제안1
5.0에서 6.5 upgrade
특별할인
제안2
AutoCAD R12에서
ArchiCAD 6.5 Xtra 데
40% 할인

ArchiCAD와 MP 1600이 만나
특별판매를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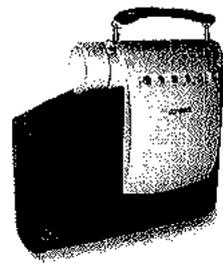
6월 30일까지

ArchiCAD ~~6,600,000~~ ▶ 6,000,000

MP 1600 ~~8,000,000~~ ▶ 6,500,000

● 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부가세 포함)



■ 크기 : 22.84cm × 20.9cm × 6.25cm
■ 중량 : 1.9kg

D●alltech
Solution Provider
www.d●alltech.co.kr

(주)두올테크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5-3 유승빌딩 403호
TEL : 02)663-8955-6 FAX : 02)663-8957

GRAPHISOFT®

IMF의 파고를 넘으면서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선배님들이
아직 많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나아 지겠지만, 일을 시작하려니
CAD시스템 운영요원을 다시 뽑아야 하고 고객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
판넬링 작업 또는 CG작업 외주용역을 주어야 하고...

시실 지금까지의 고비용, 비효율적, 비생산적인
설계작업프로세스를 다시 반복한다면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자가 디자인을 생각하고,
CAD운영요원이 도면화(2차원)하고 나면,
건축주에게 디자인 Concept을 전달하기위해
모델링 작업을 다시 하여야 하는 지금까지의 프로세스를 고집한다면
건축주 또는 설계자 자신이 디자인의 변경을 원할 시에는
위의 프로세스를 또다시 되풀이 하여야 합니다.
간혹 설계자 자신이 CAD 시스템 또는 CG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기도 하지만 디자인 자체 보다는 CAD 시스템 또는
CG 프로그램의 기능 익히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디자이너 또는 설계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모델링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컴퓨터를 처음 다루는 사람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면...
더욱이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가 자동으로 만들어 지고,
또 판넬링 작업을 위한 CG작업 없이 바로 3차원 모델이 형성되어지고
이를 고객과의 프리젠테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면
의사결정이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ArchiCAD®입니다.
ArchiCAD는 건축가를 위해 건축가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IMF의 어려운 시기에도 ArchiCAD®를 사용하셨던 소장님들은
현재 CAD운영요원이 없어도 직접 디자인작업과 도면작업을 수행하며
고객과 상담을 하시고 있습니다.

ArchiCAD로 설계업무 생산성을 한 차원 높여 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도구를 바꿔야 생각이 바뀝니다.

Doalltech
Solution Provider

www.doalltech.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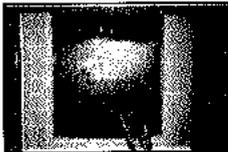
(주)두올테크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965-3 유승빌딩 403호
TEL : 02)66 3-8855 - 6 FAX : 02)663-8957



건축 용역의 프로페셔널 그룹.... 에이디프로

이제 전국 어디서나 무료전화 080-050-2638를 이용하십시오.



광남지사 02-8462-2638



서초지사 02-582-2638



인천지사 032-471-2638



부산지사 051-743-2637



광주지사 062-527-5000



경기지사 032-698-2638



중부지사 0337-881-2638



대전지사 042-254-2638



울산지사 052-257-2637



충남지사 0417-578-1083

ADpro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용역전문회사입니다.

- 설계수주는 했는데 설계인원이 모자라십니까?
- 납기일은 다가오는데 아직 그려야할 도면이 많습니까?
- 아르바이트로 외주를 처리하자니 신뢰가 안가고 납품도면의 질이 걱정됩니까?
- 외주처리 이후의 설계변경시 도면 수정이 걱정됩니까?
- 건축, 구조도면 작성뿐만 아니라 설비도면, 구조계산, 내역서, 투시도 등의 모든 업무를 한군데서 툰키로 처리하고자 합니까?

ADpro가 이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계획설계 이외의 모든 업무를 대행합니다.
-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대규모 업체입니다.
- 독자적인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 첨단 하드웨어와 통신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 귀사의 컴퓨터시스템을 원격으로 컨트롤합니다.
- 경험이 풍부한 설계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싸고, 빠르며, 도면품질이 뛰어납니다.
- 특별히 아파트설계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autodesk

(주)오토데스크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부빌딩 17층
TEL: 527-0790 FAX: 527-0799 www.autodesk.co.kr



오토데스크 건축·엔지니어링·건설설계 솔루션! 상상하면 바로 우뚝섭니다.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현재의 도면 작업뿐만 아니라 설계 전체 과정에 맞추어진 지능형 AEC 객체로 개념설계에서 실시설계, 공사용 도서작성 단계까지의 모든 작업을 대신해 줍니다.



AutoCAD® Land Development Desktop

토목 계획 및 설계를 위해 도면 작성과 지형 모형 생성, 분석, 맵핑, 계획, 편집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상상만 하십시오

가우디처럼 세상에 길이 남을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싶습니까?
그 상상의 건축물을 세상에 우뚝 세울
디자인 솔루션이 필요하십니까?

건축 · 엔지니어링 · 건설설계의
세계 표준!

오토데스크 건축 · 엔지니어링 · 건설
설계 솔루션과 만나십시오.

지금껏 경험했던 수많은 한계를
오토데스크 솔루션이 단번에 훌쩍
뛰어 넘습니다.

당신은 꿈의 궁전을 설계 하십시오.
오토데스크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D Studio VIZ®

설계자로 하여금 초기 개념화에서
설계 검증 및 프리젠테이션까지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설계를
시각화할 수 있게 합니다.



Autodesk® CAD Overlay®

래스터 이미지를 벡터 데이터처럼
처리하고 원하는 만큼 참조 이미지
를 삽입할 수 있는 AutoCAD
에드온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Volo View

AutoCAD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드로잉 파일을 뷰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2000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위한 건축대전

-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
-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 후원 /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Tel. 581-5711~4)

한국건축문화大賞은 우리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대전입니다. 기성건축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신인등용의 장으로서 한국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나갈 「2000 한국건축문화大賞」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부문 및 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99년 5월부터 2000년 8월사이 준공된 국내 건축물
- 응모자격: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임의 선정된 실제의 대지와 용도에 주제를 적용한 창작작품으로 이전 국·내외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작품
- 응모자격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면허소지자 제외)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응 모 방 법

▶ 준공건축물부문

- 작품개요, 작품설명, 건축물사진(8"×10" 사이즈 10매내외), 설계도면이 수록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제출(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간이스게서 첨부)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패널제출 시일은 별도 통보
- 공동설계작품의 경우 설계자(건축사)명의로는 1인으로 제한함. (설계자간 합의하에 대표자1인 명시, 입상시 대표자 시상)
- 법인 또는 사무소 명의로 출품 가능

▶ 계획건축물부문

- 패널(가로90cm×세로120cm) 1매 및 작품설명서(A4 용지 1매 분량) 1부 제출
- 모형(가로×세로 규격이 75cm×90cm 또는 90cm×75cm, 높이 75cm이하) 1점 제출
- 공동작품은 출품인원을 3인이하로 제한함
- 작품주제: 한국의 텍토닉

※주제설명 및 설계내용, 표현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http://kira.or.kr>)
본지 76쪽 참조

작 품 접 수

▶ 접수기간

- 준공건축물부문 : 2000. 8. 28(월)~29(화)
- 계획건축물부문 : 2000. 8. 31(목) 09:00~18:00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별도의 참가비(출품료)는 없으며 출품원서는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

심 사 위 원

응모부문별 건축관련 전문가 10인이내로 구성(추후 명
단발표)

수상작발표 및 시상·전시

- 수상작 발표: 2000년 10월중(입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수상작 전시회: 추후공고
- 시상식: 추후공고

기타 출품규정

- 계획건축물부문은 패널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함
- 작품제출 당일 접수장내에서의 패널 및 모형 제작작업
을 금함
- 준공건축물부문의 제출 사진첩중 1부는 사후 보존용으로
반환 하지 않음
- 준공건축물부문 대상 및 본상 수상작 패널은 행사후 상
설전시를 위해 반출이 불가함.

시 상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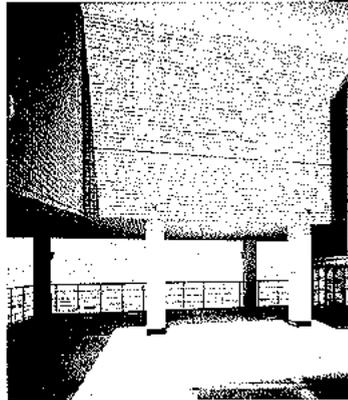
▶ 준공건축물부문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비고
대상(1점)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트로피 동판	- 건축사, 시공자 : 정부포상
본상(6점)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트로피 동판	- 건축사, 시공자 : 건설교통부장관상
입선작(다수)	상	패	-	- 건축사 :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시공자 : 서울경제신문사장상
공로상	트로피			건축문화발전에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

▶ 계획건축물부문

- 금상 (1점)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은상 (2점) : 상금 각 200만원 및 상장
- 동상 (3점) :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선 (다수) : 상금 각 30만원 및 상장
- ※동상이상 수상자중 대학재학생에 한해 영어 인터뷰심
사를 거쳐 2인을 선발, ARCASIA(아시아건축사협회
회) 학생잼버리 대회 파견 특전 부여

차례 2000 06 374호



부산광복기념관(정연근 작)



발행인: 이의구
 편집인: 서천식
 편찬분과위원회: 위원장 / 장양순
 위 원 / 김정희, 김홍수, 유원재, 조현군, 최동규
 편집·취재: 정호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kjo@kira.or.kr hsjung@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유상태 / 천중전산인쇄
 광고: (주)이두컴 (02)566-3984

Publisher: Lee Eui-Koo
 Editor: Seo Cheon-Shik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Kim Heung-Soo, Yoo Won-Jae,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You Sang-Tae (Cheon Poong Printing Co.)

칼럼	한국건축가에게 묻는 AIA의 질문	원정수	18
작품리뷰 / 부산광복기념관		정연근	20
	대담: 기념비성, 기존개념의 파괴와 새로운 의미 창출	이동언	28
	비평: 단정하고 정직한 새로운 기념관건축	이정호	32
회원작품	부평 윤산부인과	손두호	36
	국제청소년센터	김한일	40
	선문대학교 학생회관	이충언 · 김광섭	44
	동래문화회관	이용흠	48
	한빛은행본점	김병년	52
	옥천유계소	김상길 · 김희옥	56
기고	북한 지역건축탐방을 읽고서	김학철	60
해외건축	중국 고전 원리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2)	한동수	62
건축만평		유원재	67
건축미당	협회소식		68
	건축계소식		69
	계획작품		77
	현상설계		80
	해외잡지동향		83
	법령(건축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의)		89
	통계(2000년도 4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96
	회원현황		98

Column

AIA's Questions Towards Korean Architects	Won Jeong-Soo	18
Review / Pusan Independence Hall	Jeong Yeon-Kæun	20
interview The Monumental: Discarding Given Concepts and Delivering New Meanings	Lee Dong-Eon	28
critique A New Work of Monument Architecture With Decency and Sincerity	Lee Jung-Ho	32

Works

Bupyeong Yoon's Clinic	Son Doo-Ho	36
International Youth Center	Kim Han-Il	40
Sunmoon Univ. Student Union	Lee Chung-Eon & Kim Kwang-Sub	44
Tongnae Cultural Center	Lee Yong-Heum	48
Hanbit Bank Head Office	Kim Byung-Nyun	52
Okchon Sevice Area	Kim Sang-Gil & Kim Hee-Dk	56

Feature

Reading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of North Korea'	Kim Hak-Chul	60
---	--------------	----

Overseas Architecture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Wonrim Architecture of China(2)	Han Dong-Soo	62
Cartoon	Yoo Won-Jae	67

Architects' Plaza

KIRA News	68
Archi-Net	69
Process Work	77
Competition	80
Overseas Journal	83
laws & Ordinances	89
Statistics	96
Members	98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64-68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2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26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927-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6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9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성림구건축사회/(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960-8720 · 선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0-15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5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6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44)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064 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안산건축사회/(0345)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49-2698 · 화성지역건축사회/(0361)6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동행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8646 · 용인지역건축사회/(030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91)852-0126 · 속초지역건축사회/(0334)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8133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0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643-3558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6)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832-21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8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852-378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8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91)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634-66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63)334-8256 · 장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34-6644 · 마령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93)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6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91)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85)883-4512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064)72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한국건축가에게 묻는 AIA의 질문 AIA's Questions Towards Korean Architects

원정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by Won Jeong-Soo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2000년도 미국 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총회에서 명예원로회원(Honorary Fellow)에게 메달수여식이 거행되고, 마지막 날에는 AIA회원의 세미나 토론장에서 신임 명예회원으로 선정된 심사평과 함께 대표작품들을 슬라이드 스크린에 비추어 소개하고 이어서 차례로 기초강연을 발표토록 했다.

미국 이외의 세계 여러 곳에서 선정된 명예회원에게는 AIA에서 제시한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기초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의 구상(Image)과 이를 전개하는 과정이 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건축실무분야의 미래상은 어떠한가?

셋째, 미국 건축가(또는 미국 건축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넷째, 향후 20년 동안 건축이 인간을 위할 수 있는 예상은?

이상의 네 가지 질문은 미국 건축가들이 한국 건축가에게 물어온 질문이기도 하므로 건축사회원 여러분도 답변을 생각해 볼만한 것이다.

첫째 질문에서 미국 건축가들이 한국적 현상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한국건축가는 급변하는 사회적, 시대적 상황이 너무도 극심하여 여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도 마치 빈 모자 속에서 비둘기를 날리고, 토끼도 만들어내고 깜짝 놀라게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미술사처럼 맨손으로 단숨에 빌딩과 도시를 그려내고 만들어내는 건축미술사라고 생각해 하는 질문이었다.

둘째 질문에서는 최근에 한국 건축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건축교육의 국제 기준에 따르는 교육인증제도에 관한 문제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 세계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20세기 현대건축의 영향으로 도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세계건축문화의 중심 독무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도시의 모습은 조용히 쉬는 듯이 변화가 거의 정지되고, 미국 건축가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도처에 세울 설계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에서 나을법한 그들의 관심사라고 느꼈다.

셋째 질문은 정말 하고싶은 말이 많은 듯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평소에 미국건축 정보에 많이 젖어있는 듯하여 미국건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듯하고, 미국 건축가와 자주 협동설계를 하는 기회에서도 그들을 잘 알고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한다. 미국 건축가들이 한국 건축주에게 초청되어 한국의 기존환경을 뒤집어엎는 설계역량을 과시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설계를 경험했던 미국 건축가는 그들의 설계내용이 한국의 일반적 의사에 따라 변질되어지는 사례 또는 여러 가지 미국과 다른 정서로 인하여 계획안과 건축실체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이 불감되는 현실에서 불만과 실망이 크다는 것도 토로하고 있다. 하여튼,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알맞은 김치 토속음식의 한국영토에는 햄버거와 콜라가 잠식한 경우처럼 건축설계의 분야가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할 말이 많아지고 있는 관심사이다.

마지막 넷째 질문은 필자 자신과 젊은 세대인 새싹 건축가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보았다. 정치적 국제정세를 주도한 미국은 20세기 현대건축문화 조류에 있어서도 세계중심무대이었으나 21세기를 앞두고 소련체제 붕괴이후 국제정세 또한 다극화 양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미국 주도의 건축문화조류 또한 지역주의적 다극화현상이 일어나고 선진국 편중의 산업주도 판도가 개발도상국가로 확대되면서 첨단기술정보산업의 지구총공유 평준화로 발전되면서 인간의식과 인간계층구조가 정치적 이념 중심에서 지역주의적 세대간의 의식차로 일어나는 새로운 사회구조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건축계에도 이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건축설계해석방법 및 기법에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구자연환경파괴로 인한 인류생존권을 수호해야하는 건축가의 사명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는 건축가의 창작의지와 설계제작의 방법 또한 독자적 전문기량에서 다원화된 관련요소를 통합 창출해야하는 새로운 건축전문인으로 변신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조류의 급류에 휘말리고 있다. 19세기까지 전통적, 예술적 건축가 신분에서 20세기 산업시대에 성장된 현대 기성건축가와 사이버 가상공간에서 마음껏 활보하는데 익숙해지며 공상력에 괴력이 풍만해지고 있는 신세대 미래의 주인공과 함께 21세기 미래를 대비해야할 시점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해야할 건축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과 같이 미국건축가들은 우리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가까이 함께 있는 셈이다.

기조강연의 기회는 3분이란 짧은 시간이었으며 부득이 요약 농축시킨 요지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원문 일부를 그대로 기재하므로써 다음 진출할 회원에게 알찬 기대를 한다.

<전략>.....

Korean society is very unique in nature.

It is like a pot that holds together the remains of agricultural society together with industrial society and the information society of the future.

And so the past and the future co-exist in most of my design works.

My approach to design start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harmonize traditional values and every-changing global trends.

I call my design philosophy the harmony of alpha and omega because it combines what we used to be with we will be.

This is basically what Korean architecture is all about when it comes to design. This has also been my main subject in my classroom for the last 35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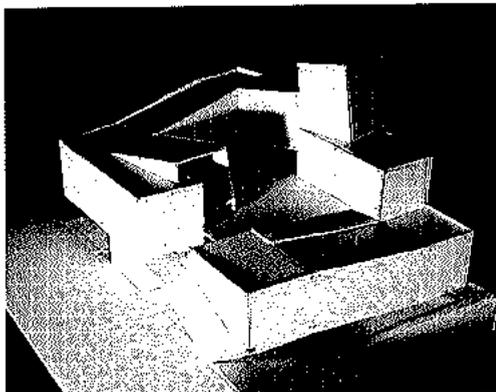
.....<후략>

Pusan Independence Hall

정연근 / 건축사사무소 토원(부산)
Designed by Jeong Yeon-Keun

건축개요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2가 99-11번지
대지면적	772.69㎡
건축면적	369.79㎡
연면적	832.74㎡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외부 마감	석기질 외장타일, 드라이비트 코트
설계담당	한창훈, 조현철, 김범수, 박미영
완공	1999. 6
시공자	(주)한공영 (정태식, 장수석)
발주청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초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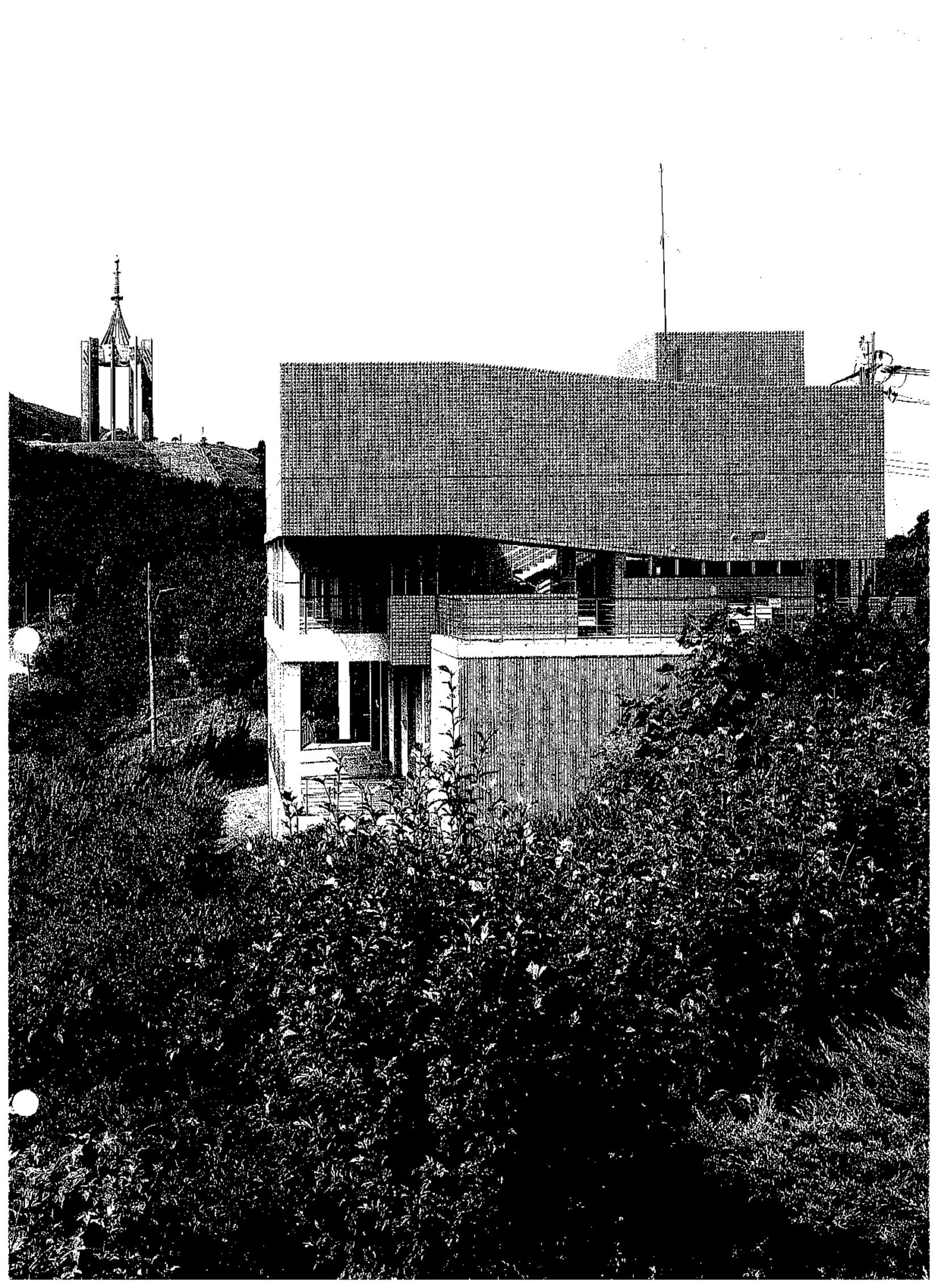
광복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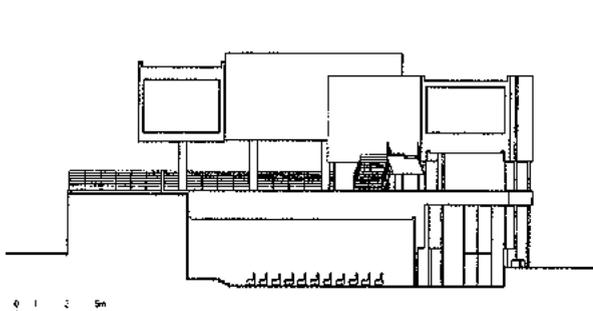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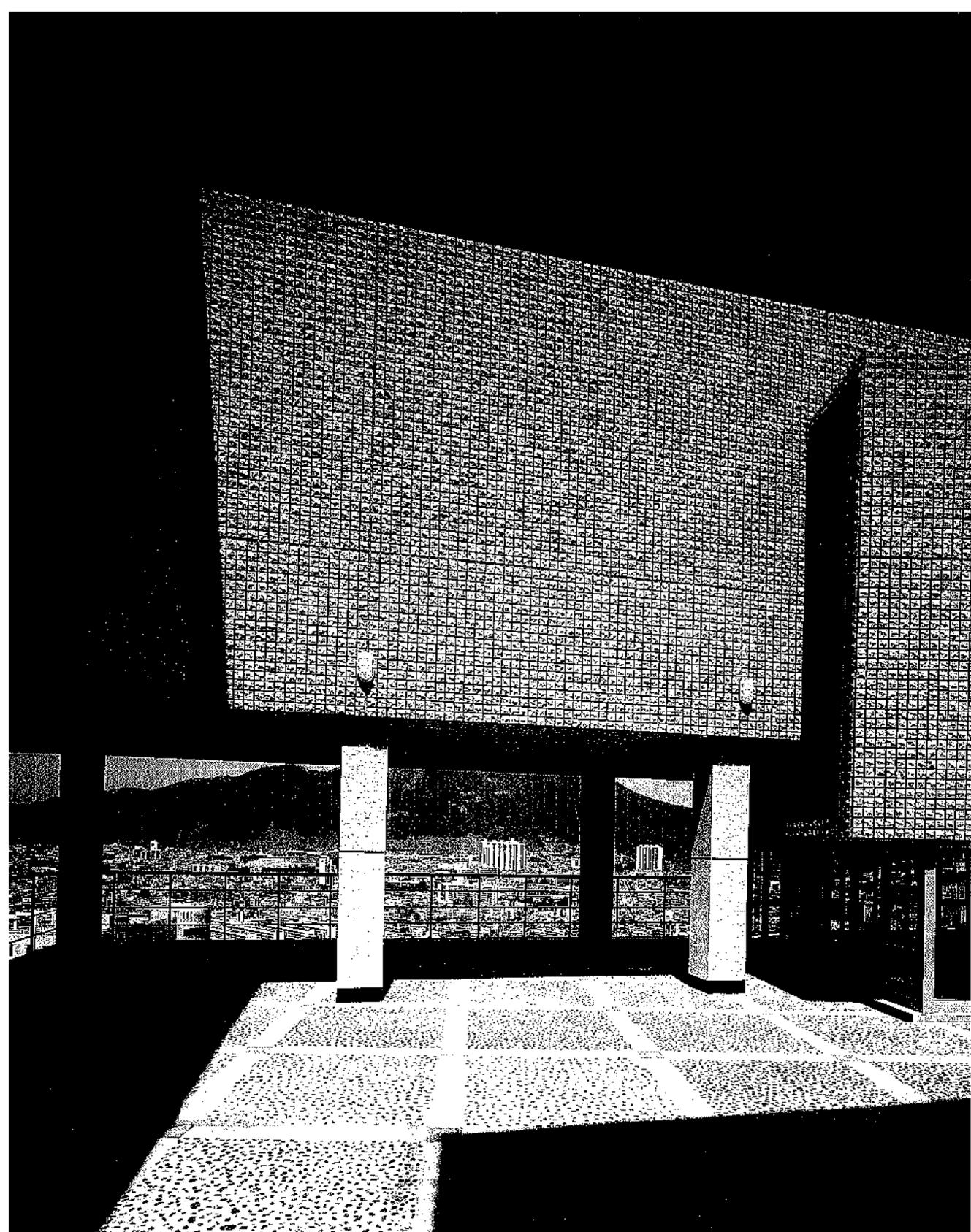
광복의 기념'이라는 상징성과 전시관으로서의 공간적 '기능'의 결합이란 문제를 조각과 건축의 틈에서 해결하려 한다. 미술전시관에서 공간은 긴 띠를 이룬다. 선형의 공간, 전시와 관람행위가 형상화하는 공간의 속성이다. 이 공간을 독립시키면 '튜브' 형식의 단위가 생성된다. 튜브를 말아 올리든가 나선형으로 돌려 나가면 공간과 형상이 공존하는 조각이 된다. 어느 증견조각가의 '태'라는 조각처럼... 이러한 단위의 생성에서 기능적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건축과 조각의 틈새를 탐구하는 형상화의 비 전형적 과정을 통해 건축의 기념성에 조각적 속성으로 대응한다.

광복기념관은 부산의 시가지를 동서로 나누는 산줄기의 고갯마루에 위치한다. 대지는 민주공원과 충혼탑의 사이에서 서쪽으로 경사져 있다. 그 기능이란 전시, 홍보(교육), 업무 등으로서 공간별 규모가 각 60~80평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공원법에 의한 볼륨의 제약과 협소한 대지의 여유가 한정적인 요소가 되었지만, 이러한 여건은 광복기념관에 있어 튜브가 전시관과 기념비의 양면을 모두 수용하는데 크게 제약하는 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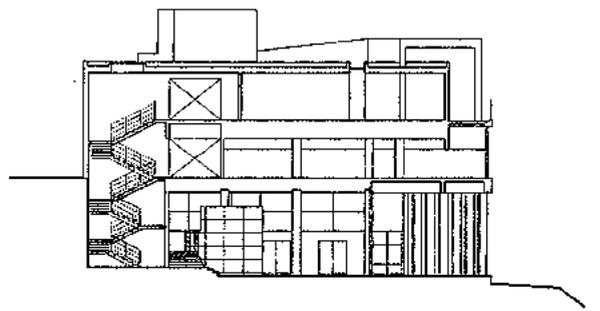
오히려 주변의 개방성이나 경사면은 기능적인 튜브 그 이상이 될 수 있게 하리라 여겨졌다. 광복기념관에 있어 튜브는 공중에서 'ㄷ'자 형상으로 데크를 둘러싼다. 지하에 홍보관 강당을 두어 도로면 높이의 데크를 형성하고, 튜브와 데크사이에 유리를 끼워 공간을 만든다. 이 공간은 마당을 통해 시가지로 시야를 열어 준다. 2층 전시실 튜브 속을 돌면서 튜브는 끊어지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며, 낮아지기도 하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빛을 호흡하며 지하로 내려가 강당으로 이어진다.

조각과 건축, 일상과 기념비적 특성, 그 사이에서 추구한 작은 소망은 전형(Stereotype)의 탈피였다.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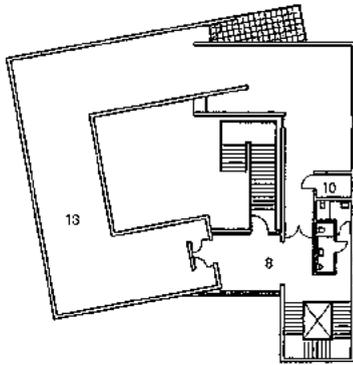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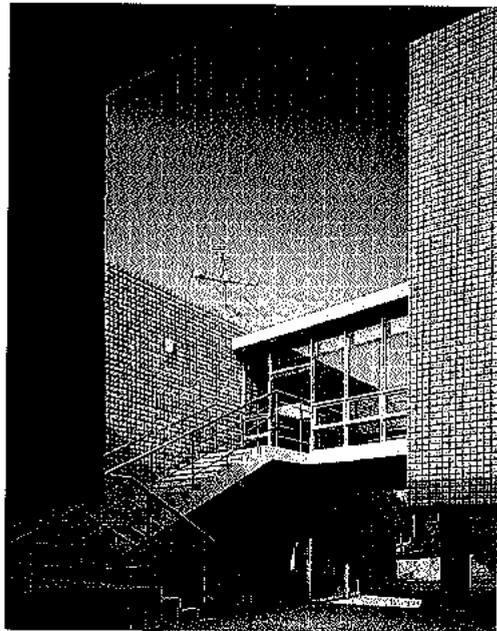
중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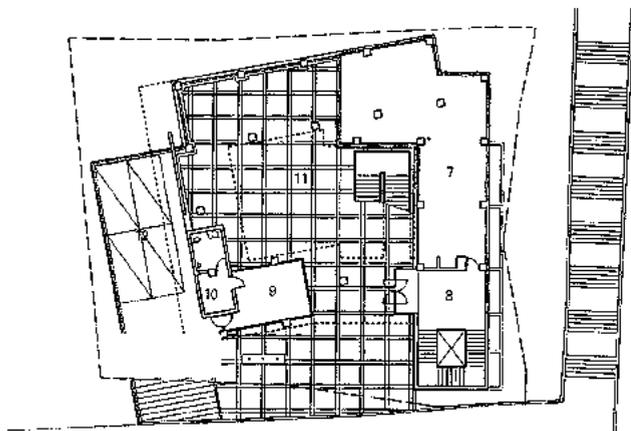
중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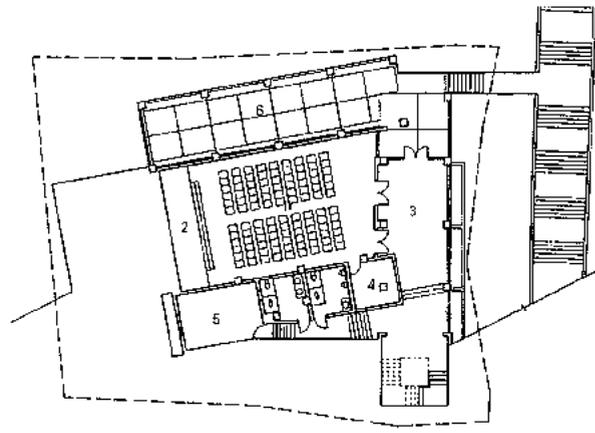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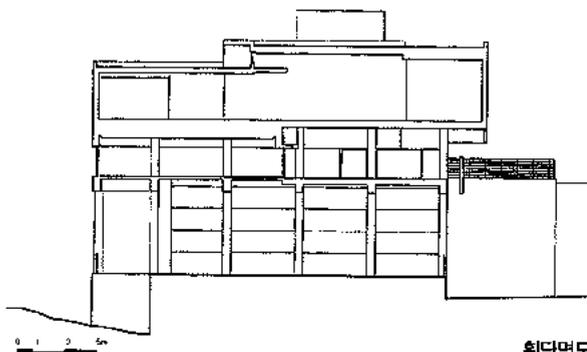
- | | |
|----------|---------|
| 1. 홍보관 | 9. 안내실 |
| 2. 무대 | 10. 공연실 |
| 3. 홍보관 홀 | 11. 중정 |
| 4. 자료실 | 12. 주차장 |
| 5. 기계실 | 13. 전시관 |
| 6. 데크 | |
| 7. 사무실 | |
| 8. 로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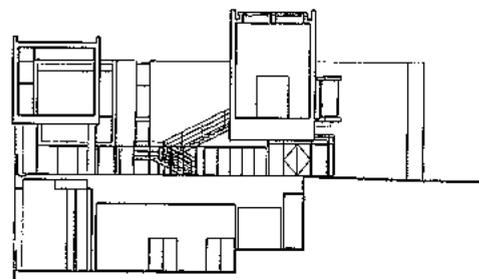
1층평면도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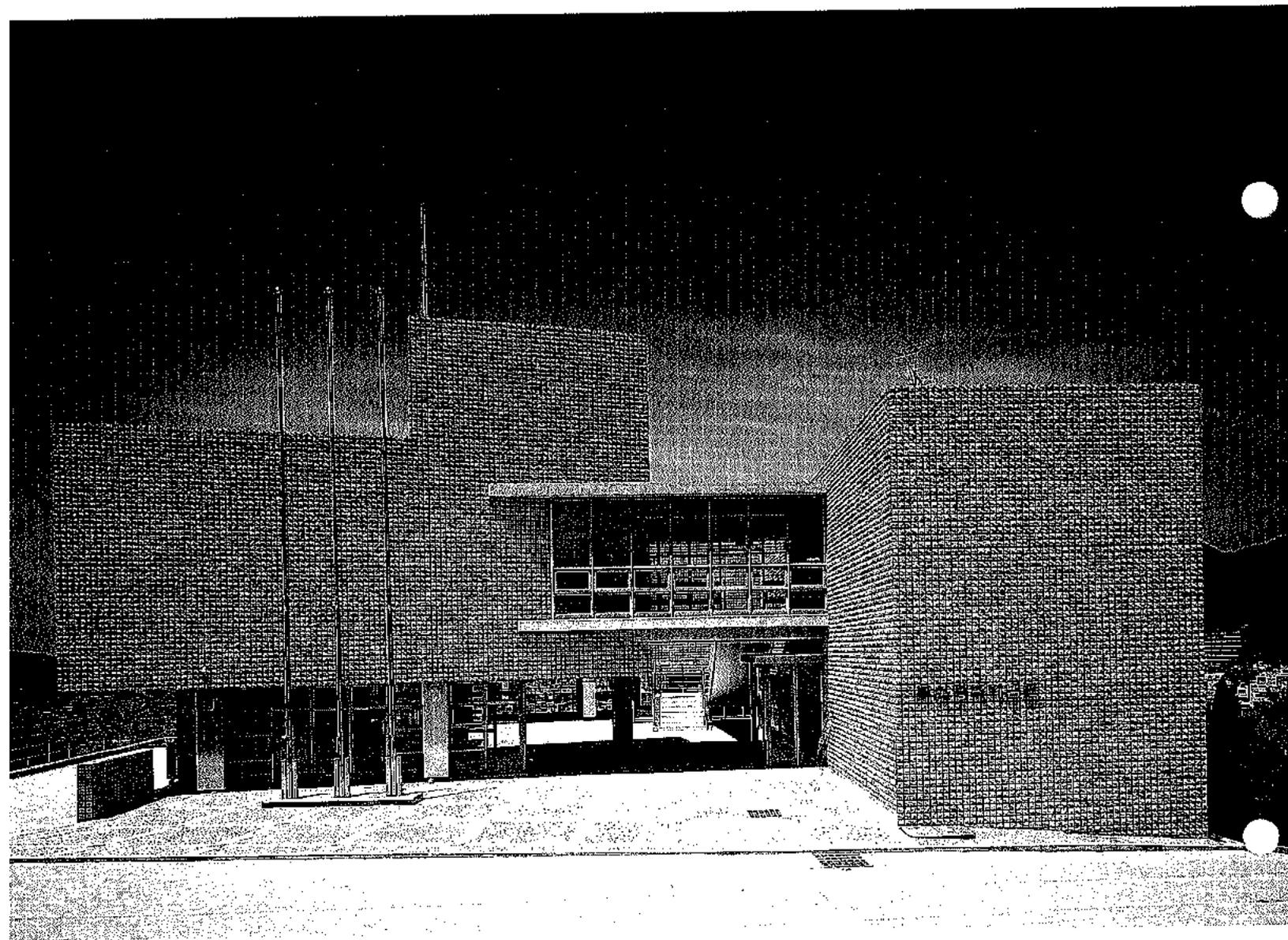


횡단면도 1



횡단면도 2





축으로부터의 탈피, 기념관'의 위엄으로부터의 탈피, 열림과 닫힘... 다양한 틈새를 노리는 전략, 이리저리 굴러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씩 색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처음 거칠게 시작된 이러한 틈새의 공략은 사실 규모의 축소와 동선의 간소화, 그 현실의 재료와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절충을 거쳤고, 그렇게 현실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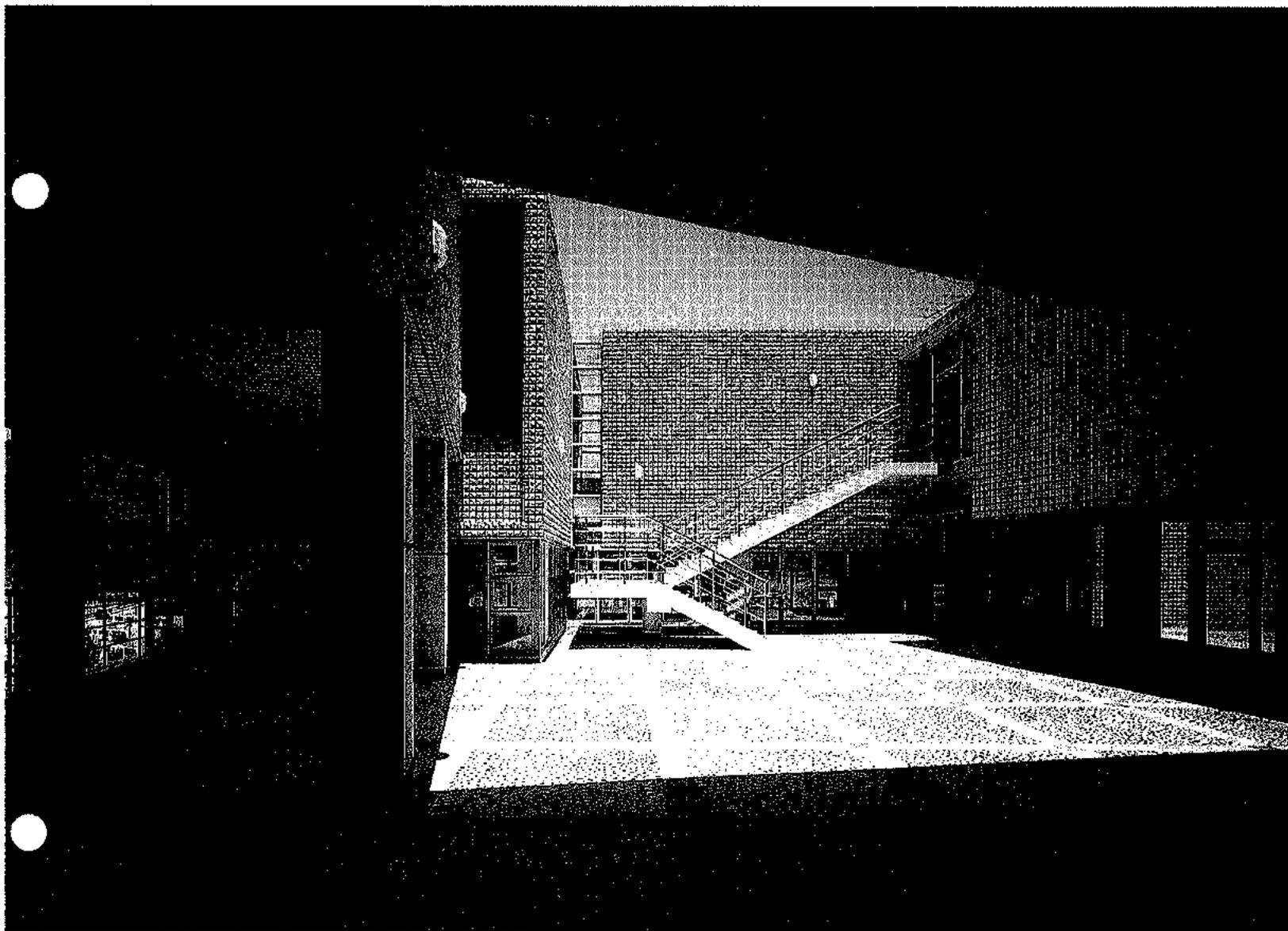
아마 마루턱 정상부 도로에서 접근하는 이에게 화려한 기념물들 사이에서 그 속에 일상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담긴 소박한 조각물로 발견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문득문득 만나는 무명용사의 비처럼 일상에 맞춰져 있던 선열의 숨결을 상기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단지 완공 후 1년이 지난 지금이야 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데 철저히 건축적 이야기가 외면된 과정을 통해 엉뚱한 굴 속 탐험장으로 변신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글: 정연근)

Independence Hall...

The crossing point between Pusan Independence Hall's symbolic value of remembering Independence and its spatial function as exhibition hall can be found within the schism between sculpture and architecture. The space for art galleries, those for exhibiting and viewing works of art, naturally forms a linear band, which, when treated independently, becomes a unit with the form of a tube.

As we see in Tae, a sculptural work by an established sculptor, tubes can be bent into spiral figures and become a sculpture with both aspects of space and form. Within this creation of units functional solutions could be found, while its value as an architectural monument could be linked to the sculptural features through the atypical process of looking into the differences between architecture and sculpture.

The Independence Hall of Pusan sits on the hill of a mountain range that divides the city into east and west, sloping towards the west, between the Park of Democracy and



Monument for the Loyal Dead. Comprising functions of exhibition, public relations(education) and management, it had to fit into rather small units of 200-250m². The limited area of the site, along with regulations for park area, posed various restrictions to the project and its form, but the strategy of the tube proved to be useful in overcoming these given con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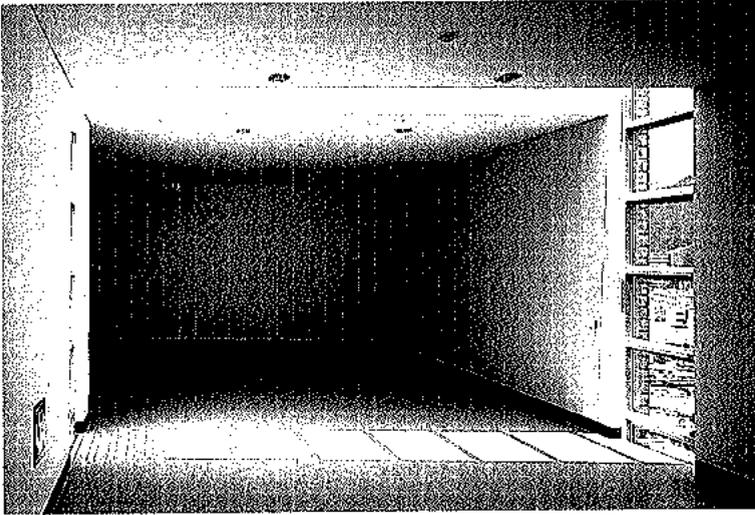
Moreover, the openness of the surrounding and the slopes could enhance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tube, which envelops the deck with the shape of a rectangle placed above the ground. The public relations hall placed on the underground forms the deck on ground level, and glasses inserted between the tube and the deck create additional spaces with views open to the cityscape through the garden.

The tubes of the second floor - the main exhibition spaces - are intercut and intercrossed, with diversity in height and light, and are finally linked to the path leading down to the basement hall.

Sculpture and architecture, the everyday and the

monumental - between these criteria the humble objective was to breakaway from all stereotypes. Freeing oneself from architecture, from the weight of monuments, the opening and the closing... A strategy to make use of the various cracks and come up with all kinds of diversity and colors, while initiated in a state of rawness, had to undergo the process of realization, such as reducing the overall scale, simplifying circulation, and accepting the given conditions of the material and program.

What I hoped this project to become was, among all the extravagant and massive monuments we see these days, a small piece of sculpture housed with the ordinary lives of people - one that, from time to time, will remind us of the martyrs for our country.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it is only now undergoing the exhibition planning stage, a full year after the building's completion, I also feel the bottomless anxiety that it may be completely deprived of its intended architectural narrative and turn into yet another expedition site inside the cave.



Location 99-11, Dongdaeshin-dong 2 ga, Suh-ku, Pusan

Site Area 772.69m²

Building Area 369.79m²

Total Floor Area 832.7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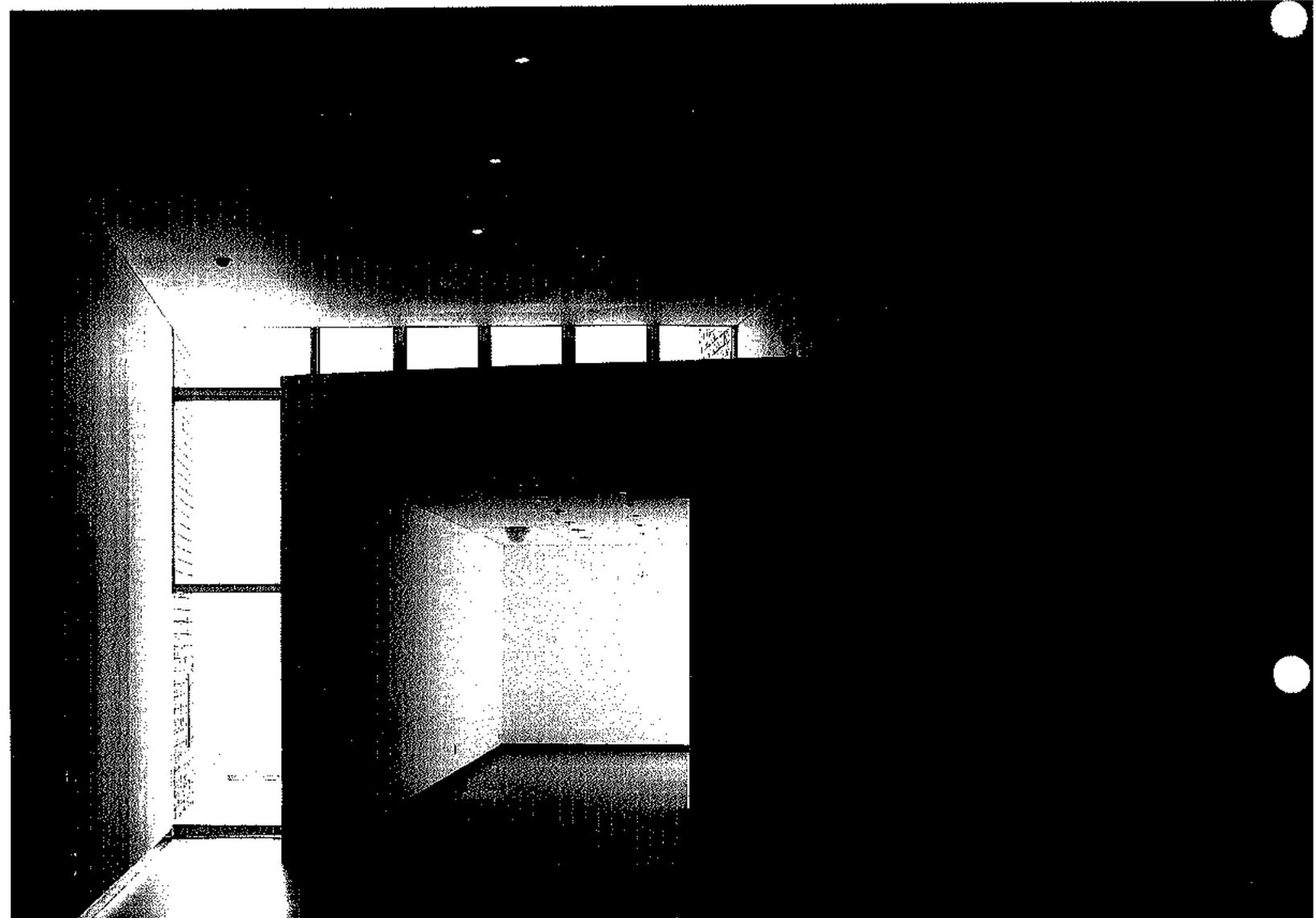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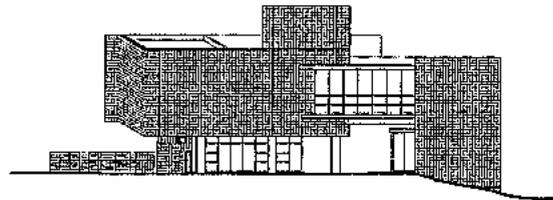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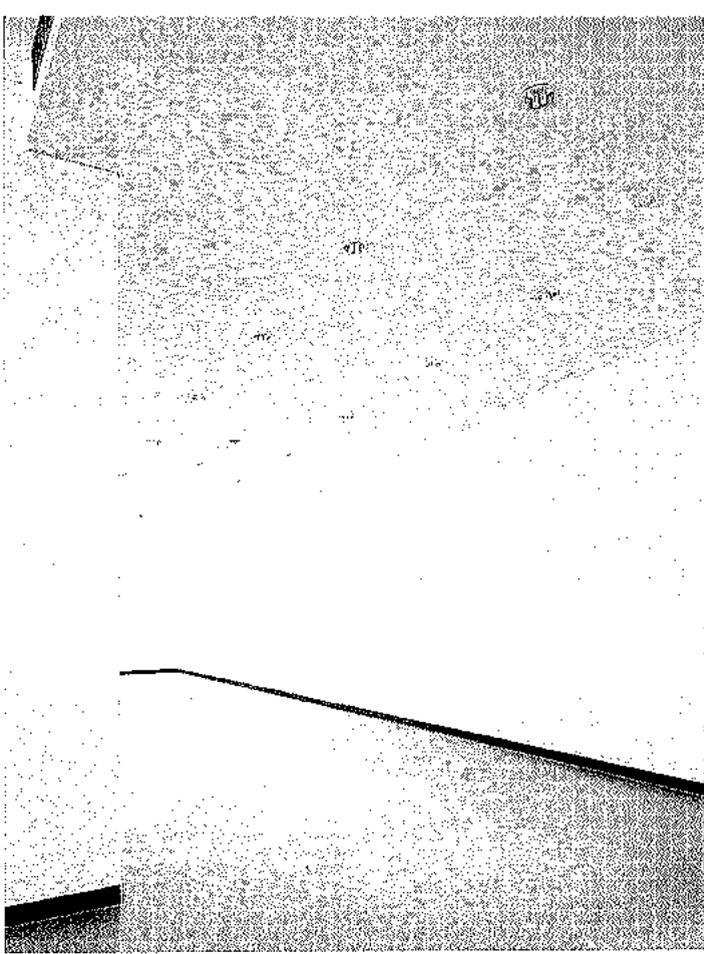
Stories 2 Stories, 1 Basement Floor

Exterior Finishings Stone Exterior Tiles, Drivit Coa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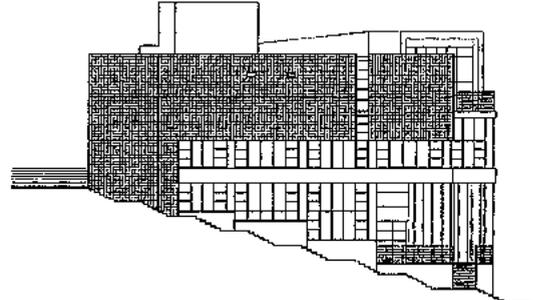
Construction Hanju Constructions Client: Division of Construction,
City of Pusan

Project Designers Han Chang-hoon, Cho Hyun-chul, Kim Buhm-soo,
Park Me-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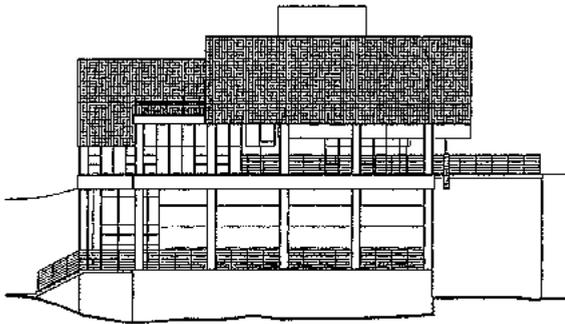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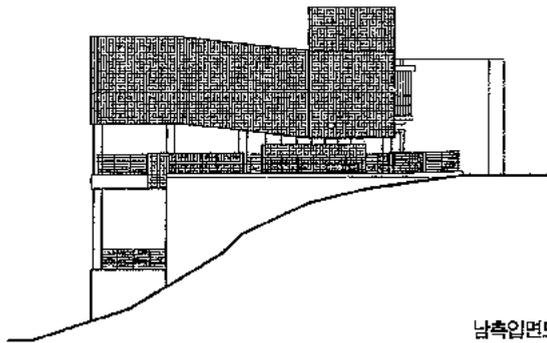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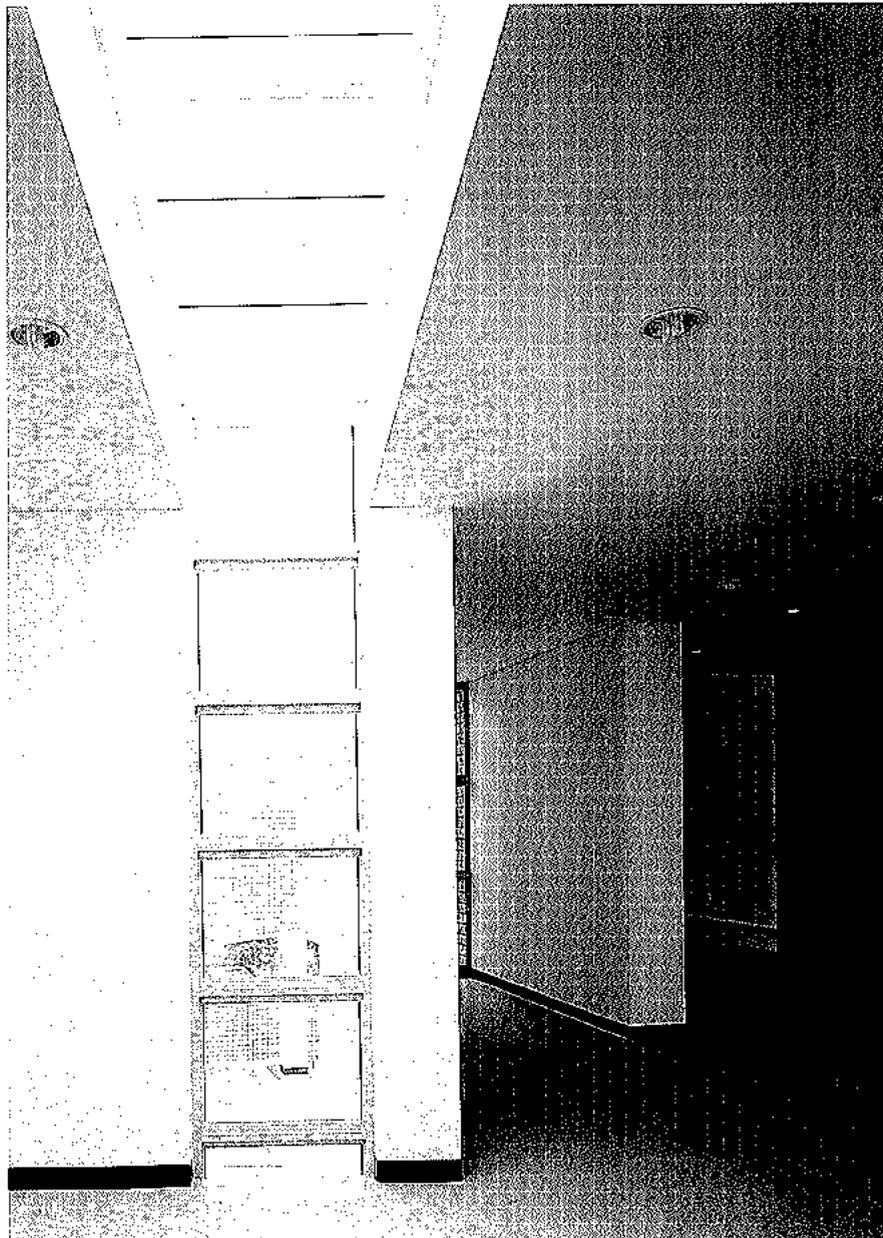
북측입면도



서측입면도



남측입면도



기념비성, 기존개념의 파괴와 새로운 의미 창출

The Monumental: Discarding Given Concepts and Delivering New Meanings

건축사 / 정연근(토원건축)

대담자 / 이동언(부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일시 / 2000년 5월 29일

장소 / 토원건축



대담장경 (왼쪽: 정연근, 오른쪽: 이동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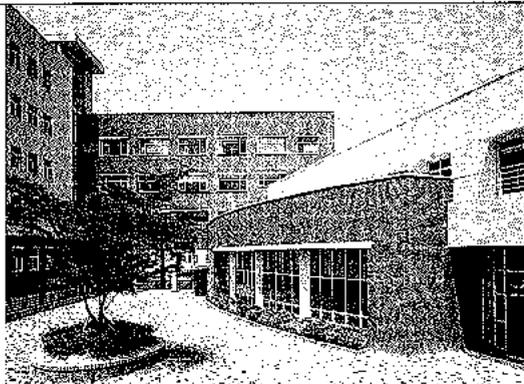
이동언___설계개념 설정시 조각가 최만린의 "태(胎)"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영감의 순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정연근___순간적인 영감이라기 보다 기념비성이 동기를 제공했겠지만 '건축'의 전형적 속성을 밀탈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제가 건축을 공부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공간 미술관에서 은사님이신 조국정선생님의 건축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건축과 조각'이었고, 조각가이신 선생님 옆에서 최만린 교수의 작품을 접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매우 유기적 이미지를 가진 조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튜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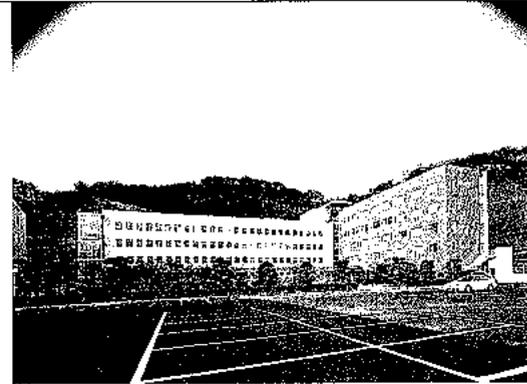
설정에서 그것이 연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동언___그러한 영감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다시 말하면 기능, 형태, 맥락(context)으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풀어나갔는지 궁금합니다. 풀어나간 과정을 단계별로 세세히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정연근___건물의 유형이 '기념관'으로 비일상적인 건축 속성을 요구했고, 홍보관, 사무실, 전시실로서 기능들이 매우 단순했지만 그 중에서 기념관으로서의 주요 프로그램이 전시공간이라 공간적 초점을 그것에 맞추었습니다. 라이트나 고르뷔제의 전시관 계획을 보면 선형의 공간을 그 요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륨으로



경성대 실험강의동



경성대 실험강의동

로 형상화시켜 튜브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부산의 구도심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경사지로서의 대지의 특성을 살리고, 역사와 일상의 접목 등을 위해 그 곳으로 열린 마당을 설정했고, 튜브가 형태적 단위로 워허지기 위해서는 대지로부터 떼어놓아야 했고, 처음 목표 삼았던 볼륨에 비하면 전반적인 규모의 한계에 의해 매우 압축한 '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연 _____ 데카르트의(Cartesian) 공간, 즉 주객의 분리현상이 두드러진 회색의 공간의 극복이 현대 건축의 과제인 듯 합니다. 이 건축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데카르트적 혹은 기술중심적 공간을 극복하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데카르트적 공간과 이 건축물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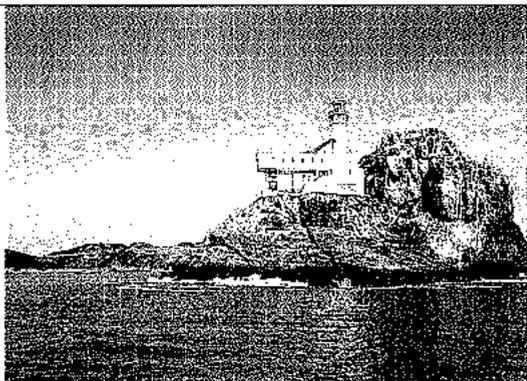
정연근 _____ 글썩요. 저에게 데카르트적 공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어서 대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이디어의 전개 과정 속에 차별화되는 요인이 잠재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질문은 교수님께서 직접 읽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연 _____ 이 건물을 보고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과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건축경향의 애매한 질충으로 보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건축가 본인과 상기의 두 건축가와의 근원적인 차이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근 _____ 직간접적으로 두 사람의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젠만의 스튜디오를 접했고, 보스엔젤레스에서 게리의 작품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밀한 차이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극으로 통하고 극으로 반대되는 건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를 마치고 실무를 접하면서 그야말로 극과 극을 왔다갔다 하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라면 기존의 건축적 한계를 깨트리려는 그래서 장르를 넘나들며 건축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경향이겠지요. 단지 한사람은 머리로 한사람은 가슴으로 그 접근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경향에 동감합니다. 요즘은 말로 표현이 어렵긴하죠. 아직 제가 하는 일을 그분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에게 주어지는 현실로부터 조금씩 우리 건축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틈을 찾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동연 _____ 이 건축물에서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것들은 기존개념의 파괴와 새로운 의미의 창출 등입니다. 예를 들면 기념비적인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념비성을 새롭게 해석한 느낌이 첫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건축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존의미의 파괴와 새로운 의미 창출에 대해 가능하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근 _____ 볼륨없는 것을 두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 새삼 멋적은 마음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출발점부터 달리 설정했습니다. 건축의 구성 방식이나 그 요소를 달리하고, 역사와 현재의 만남의 방식을 달리 하려고 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시청에



오륙도 등대



나라한의원(인테리어)

서 감독하는 관계자가 와서 앞 뒤 구분도 안되는 이런 이상한 건물이 어디 있느냐고 투덜거리더라 얘기를 현장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당선작으로 선정했던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원안과 별로 달라진 바 없는 형태를 실제로 대하고 보니 그렇게 눈에 익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오히려 원래의 의도보다 더 멀리 가지 못하고 어느 건물에 가까워진 것이 아쉬웠는데 기존의 인식과는 그래도 차이가 있는가 봅니다.

공원의 북쪽에 있는 김중업선생님의 '충혼탑'을 보면 그 조형성이나 '뿌리' 그리고 장소의 성스러운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있는 그런 상징성이나 역사성을 가진 곳들에 가 보면 그 건축적 성격이 선생님의 그것에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같이 그야말로 '성역화' 되어 그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지나치게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결국 그 의미는 다시 열어보지 않는 일상과 동떨어진 디렉토리에 저장하게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공원이 따뜻한 날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산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부산에서 몇 안되는 시민들의 장소라고 보았고, 그 한 귀퉁이도 편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사는 마을 풍경과 함께 읽어보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기념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동연 _____ 현대 우리건축의 경향에 비추어서 이 건축물의 의미와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근 _____ 우리건축도 최근 10여년 동안

질과 양에 있어 다양성의 폭을 많이 넓혀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리 넓게 이해되고 있다가 보다 일부 건축가들이 고집으로 힘들게 작업을 해낸 개인적 성과라는 측면이 아직은 큰 것 같습니다. 광복기념관은 어쩌다 공개적으로 선택되었지만 그간의 체험으로 보면 심혈을 기울인(?) 컴퓨터 그래픽이나 건축주 혹은 사용자와 건축가 사이의 관계가 느슨한 설계경기의 속성 덕분에 실현되게 된 것이라 봅니다. 기존의 건축적 개념에 대한 일탈의 의지가 가시화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면 '규모'에 의해 튜브와 건축적 도구의 분리 등 몇 가지 시도가 계획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 일탈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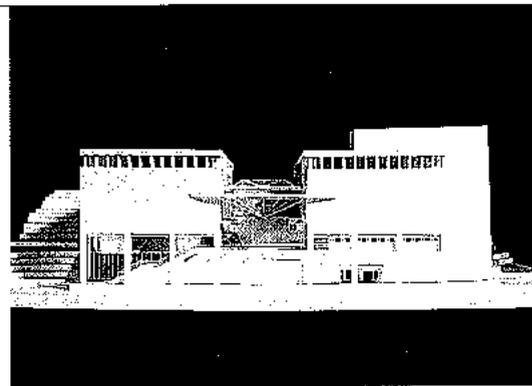
이동연 _____ 자신의 건축적 경향을 말씀해 주시고, 그 속에서 이 건축물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근 _____ 저는 아직 저의 건축적 경향을 알지 못합니다. 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역량의 부족과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주어진 한계 속에서 최소한의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되도록 대지와 프로그램 두 축에 충실하면서 아직은 먼저 어떤 목표나 경향을 스스로 설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 한계를 하나씩 두드려 보는 정도입니다.

이동연 _____ 이 건축물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한국 고유의 정서가 표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건축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산 대림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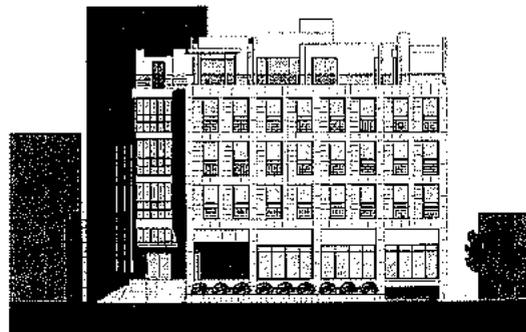
부산학성회관 계획안

정연근 ____ '한국 고유의 정서', 쉽지 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에는 '한국' 혹은 '우리' 라는 어휘가 아주 멀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다른 작품들에서도 그리 큰 공감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기념관의 부유하는 튜브로 둘러싸인 마당이 꼭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우리의 마당 혹은 정자 공간 같은 느낌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남 아시아 어느 건축가의 말처럼 전통을 강제로 설계 목표에 포용할 여유가 없다는 말에 공감하면서 오히려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것'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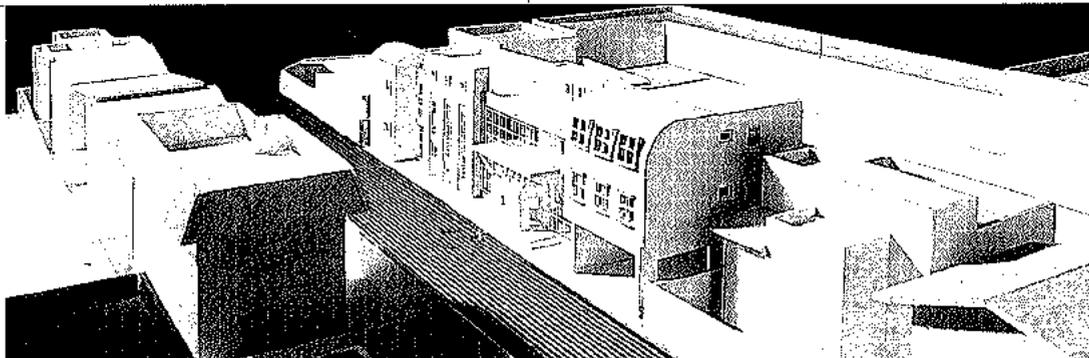
이동연 ____ 설계 당시에 생각했던 건축물과 완공된 후의 건축물과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근 ____ 솔직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시행 시기를 감안해 적절하게 배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은 저의 소권을 넘어서는 것이고, 주로 외부 마감재가 노출콘크리트에서 석재 타일과 드라이비트를 혼용한 것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설계과정에서 노출콘크리트를 공부하다 보니 조형적 특성이 재료의 시공상의 특성과 잘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석재 타일 또한 나름대로 개성있는 질감이 있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 등이 빠져 노약자나 장애인 문제를 계단 기울기를 최대한 완만하게 하는

것으로 대처한 것은 그리 잘된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소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사무실도 생각보다 폐쇄적으로 사용되어 마당의 깊이를 경감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충무동 그린생활시설(계획안)



대연동 영어학원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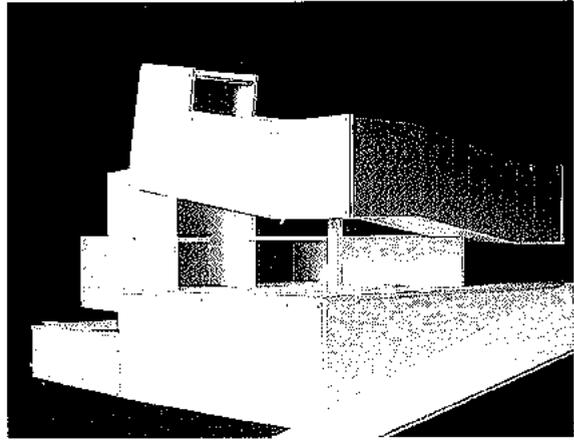
단정하고 정직한 새로운 기념관건축

A New Work of Monument Architecture
With Decency and Sincerity

이정호 /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Jung-Ho

건축가 정연근은 원래 대학교수였다. 10여 년 전에 그가 재직하던 울산대학의 졸업 작품전 크리틱에 초청되어 만났을 때 외국과 달리 건축설계를 전공한 교수의 공식적인 작품활동이 불가능한 현실에 살고있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 서로 공감하면서 설게 작업을 해야겠다는 뜻을 비추던 그때 이후 그는 이제 건축작가로서 이미 5년여 동안 세파에 견디어온 한사람이 되어 있었다. 물론 그 사이 사무실을 개업할 때 그의 약력과 사진이 들어있는 팜플렛을 통해서, 또 이상건축이 마련한 "토요 이토"의 특별강연장에서 잠깐 본 적은 있으나 그의 작품을 직접 대하면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rchitect Jeong Yeon-keun started out as a professor of architecture. Some 10 years ago, I was invited as a critic of graduation exhibition at Ulsan University, where Jeong was then teaching at, and got to speak with him about the regrettable condition of Korea where a professor could not have a simultaneous profession as a practising architect. He had a strong will to do actual design works, and he did - 5 years ago he gave up his privileged position at the University and dived into the world of hardship as an architect. It surely must have been a difficult choice, and when I finally met him again at his recently completed work - Pusan Independence Hall - I could still sense his sincerity and eagerness toward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one which deeply impressed me a decade before. Since I am not familiar with his works as an architect, it is unfortunate that I cannot view the Independence Hall in the context



부산광역시기념관

소위 안정된 직장이라는 학교를 그만두고 건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그러나 아직은 척박하고 험난한 현실과의 투쟁이 요구되는 작가의 길을 과감히 선택한 그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면서 현장을 방문했던 날,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내가 가졌던 감정 그대로 조용한 가운데 진지한 자세를 지키면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곳곳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국에서 공부한 후 손학식씨와 찰스 무어의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의 다른 작업은 아직 볼 기회를 갖지 못하여, 이 기념관과 다른 작업들을 비교할 수 없는 아쉬움과 함께 그의 다른 작업에 대한 호기

of his other works. Nevertheless, this new work of the architect, who, after studying in the US, has worked for Son Hak-shik and Charles Moore, seemed to inherit all the personality of its creator - decent and sincere, moderate and ordered.

A design competition for a monument has many appeals for an architect - especially in this low climate of construction market and when the site has this much importance. Unlike turnkey projects that require exceeding amounts of effort on presentation or achievement record-based PQ, this competition, though with a relatively small site, provided architects with a good opportunity to design something that really matt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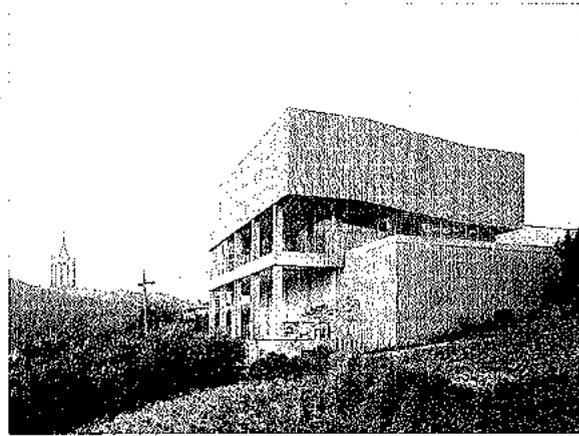
The site of the Independence Hall was in the most symbolic spot of Pusan - the top of Mt. Yongdu Park. It is to become the living educational center for the regional independence activities, and in architectural terms, it is one of

심이 새롭게 생긴다. 왜냐 하면 그의 다채로운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 기념관의 첫안상은 오히려 절제되고 정리되어 있어 그의 성품이 강하게 담겨져 있는 듯하다. 기념관이란 이름의 현상설계는 뜻있는 건축가라면 누구나 한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이다. 요즘 같이 건축경기가 침체된 때에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도 작품성이 있고 그 건축물이 들어설 위치마저 아주 중요한 곳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근래에 들어와 심사와 프리젠테이션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하는 턴키방식이나 오랜 경력과 실적이 요구되는 PQ가 아니라면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이 광복기념관은 도심공원으로서 모든 면에서 부산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성을 띠고 있는 용두산 공원 정상부에 위치하며, 지역 독립운동사의 산 교육장인 동시에 기념관 건축으로서의 상징성, 예술성을 포함하면서 공원과 조화되고 연구 및 전시, 관리의 기능이 두루 갖추어질 것이 요구된 현상설계의 당선 안이다. 최근에 시행되는 현상설계에서 보이는 건축경향은 나의 주관적 관점으로 볼 때 다양한 형태어휘들과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면서 눈을 현혹시키듯 요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기념관 건물은 매우 소박하고 정직하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기념관에서 보여지는 과도한 형태의 힘이 실린 집이 아니라 차분한 가운데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가 적절히 담긴 건축이다. 물

symbolic and artistic values that had to form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park. It also required a clear solution in distribution of functional programs such as research, exhibition and management. The winning scheme of the competition on this demanding project was the one submitted by Jeong, and it, in my personal opinion, is one with decency and sincerity, unlike most eye-catching, visually complex, and multiple-cladded works which other competitions these days tend to produce. Most monuments that come to our mind are exaggerated with overpowered forms, but this work is free of such - it instead chose to moderately display the various layers of the architect's intentions. Like most competition-winning works, the final realized version has gone a long way from its initial scheme, where the exterior finishing of exhibition hall has changed from exposed concrete to stone tiles and budgetary constra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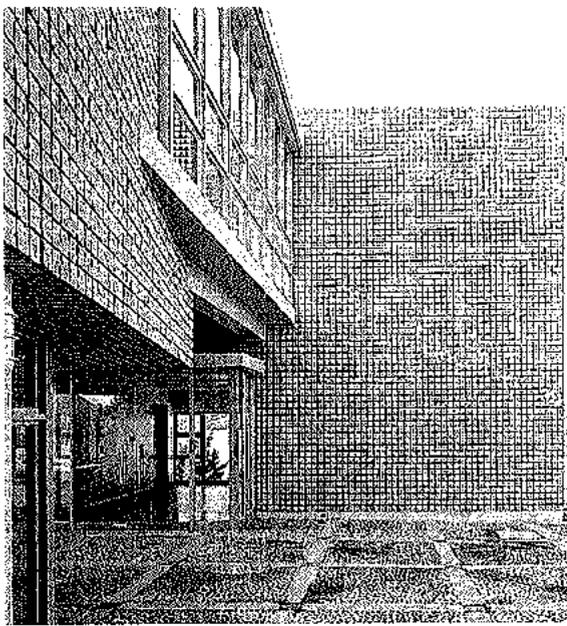
부산광역시기념관

론 대부분의 현상설계를 통한 건축물이 그러하듯이 이 건물도 계획당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시동의 재료가 노출콘크리트에서 석기질 타일로 바뀌고 공사비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어 원래의도가 약화되긴 했으나 대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건물로 볼 수 있다.

이 건축의 설계의도는 근대건축에서부터 추구해온 공간과 기능과 형태의 유기적 결합에서 보여지는 완전성의 추구이며, 주변환경과 대지의 상황을 사람들의 시각적 감성에 맞추어, 땅과 하늘 그리고 건물과의 관계를 solid and void, open and close, empty and stuff의 기법을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또 결절부나 실과 실사이의 연결부에서 외부와의 관계 및 빛의 다양한 효과를 고려

produced some more modifications, the Independence Hall we now have still seems to be an accomplished work.

The main aim of this project was to realize a state of completeness, in the way it was envisioned since the modern ages - the organic integration of space, function and form. With this objective, the architect approached the project with methods of contrasting between the solid and the void, between the open and the closed, between the emptied and the stuffed, in the building's relation with the land and the sky. In the junctions or connecting points between rooms, connection or disconnection of masses are used in reflection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outside and the play of sunlight. The overall atmosphere of the spaces is dominated by a sense of variety provided by volumes with similar sizes expanded or reduced vertically. Made in correspondence with the architect's own



부산광역시 기념관

하면서 매스를 연속, 분절시키고 있으며, 유사한 크기의 볼륨들이 수직적으로 확장 혹은 축소되면서 공간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등 매우 교과서적인 건축적 해결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건축가 자신의 “튜브는 끊어지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며, 낮아지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열려있기도 한다.” 는 현상 안에서의 설명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전혀 교과서 적이지 않은 특성 또한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변의 환경과 요소들에 대한 관계 설정이 보이지 않는 혹은 무시된 점이다. 즉 대지의 해석에서 거의 언제나 볼 수 있는 축에 대한 이야기나 - 주변에는 시각적 랜드마크이면서 거대한 기념비적 성격을 가진 김중업 선생의 충혼탑이 있고, 이 부지 부근에서 레벨 차와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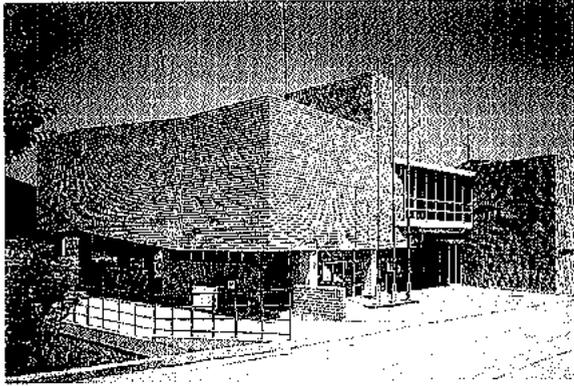
description from the initial competition - “the tubes are at times disjunctive, interconnected, lowered or open up to the sky” - it is these “by the book” skills that add up to the accomplishment of this work. We find, however, some instances that betray our “ordinary” expectations, such as its indifference to the surrounding context and its elements. What we see in site analysis of most projects is how it made use of the land’s given axis, which in this project should have proved fruitful since the Monument for the Loyal Dead, designed by Kim Jung-ub, one of the most respected architects of Korea, sits on a neighboring site, along with roads and pedestrian paths with various heights and orientation. Here we see none of these. The Independence Hall is rather a work of sculpture, floating above the surrounding conditions. This formal intention is further enhanced by the court

향이 다양하게 변하는 도로나 산책로들이 갈라지고 있다. - 기존의 자연요소나 인공적 요소와의 관계가 별로 없는 것이 그것이다.

즉 이것은 공중에 떠있는 하나의 거대한 조각으로서 기념성을 강조하려는 형태해석과 그 조각물에 에워싸여 만들어지는 중정, 그리고 그 속에 전시될 오브제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완결성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물과 전시물 사이에서 느껴지는 의도된 긴장이며 이러한 감정은 중정 데크의 허부, 즉 지하공간의 로비에 도달할 때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 천장도 매쉬로 처리되고 층고가 높으며 전망이 탁 트인 - 큰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건물에 진입 시나 전시장 내부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작가의 표현처럼 “굴곡과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강한 해방감”을 맛보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의 교과서적인 공간의 시퀀스를 읽을 수 있는데 이러한 건축적 해결 방법은 자칫 잘못하면 작위적이거나 평범하게 되어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념관에 사용된 이러한 공간전개방법의 결과에 대해서 혹자는 너무 단순하여 그저 그렇구나 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 것이나, 모든 건축은 보는 사람의 관점과 가치기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비평 대신에 리처드 마이어가 그의 작품에 대한 리뷰를 할 때 “당신의 건축에서 자주 사용되고

which is surrounded by this volume, and the various objects it will store. In other words, it is self-complete. The tension we feel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objects was also calculated, and is suddenly replaced with “a sense of freedom from flection and oppression” in the lower portion of the court deck - i.e. the mesh-covered underground lobby with enormous height and view. This sort of spatial sequence is also something that has been repeatedly tested since the ages of modern architecture, and is now almost worn out and lost its luring effect on the viewers. It may be considered too artificial, or even too simple. But before we lay such judgement on this particular means, I would like to quote an answer by Richard Meier, made to the question asking whether he believed his favorite play of lights in the atrium spaces actually gave the intended pleasure to its visitors: “Let us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있는 아트리움 공간의 빛의 효과에 대해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을 소개한다.

“당신이 직접 가보고 난 후에 이야기합니다.”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주의 이해와 시공자의 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광복기념관의 경우에 노출콘크리트가 사용되지 못한 이유에는 발주자인 시 당국과 시공사의 마감정밀도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때문이란 사실은 능히 이해될 수 있는 한국적 현실이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노출콘크리트는 기피해야 할 재료가 아니란 것을 관에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작품이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굳이

get to that question after you actually visit one of my buildings.”

Behind an accomplished work of architecture, we cannot overlook the generosity and understanding of the client and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case, the reason behind the replacement of exposed concrete by tiles was in the lack of trust and confidence from the part of the city – the client – and the engineers. This is the current condition of this country and is very unfortunate. Even if we do not bring up the ideal case of Jorn Utzon’s Sydney Opera House, competition winning projects should receive their due respect. This building is still in construction. It is only complete when it reaches the state that the architect has envisioned – when the art objects are all placed on their right spots in the court and the exhibition spaces, which now still remains empty. The window of the management office

웃존 같은 건축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건축풍토도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 건물은 미완성이다. 기념관의 완성엔 건축가가 의도한대로 중정과 전시장안에 전시물이 제대로 놓여져야 비로소 완성되는데 아직 이곳의 내부는 비어 있다. 또 중정 데크층의 - 유리로 처리되어 외부로의 개방감과 동시에 부유하는 전시동의 형태이미지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 광복회 사무실의 유리벽이 수직 브라인드로 다 막혀 작가의 의도가 살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에 비록 작은 것이나 사람의 손길이 직접 닿는 중요한 요소인 중정의 계단과 내부계단의 난간과 조명 같은 일부 소품들이 건축가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 알바로 시자의 “대부분의 내 작품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

일부는 진행되었고 일부는 크게 변경을 가하거나 파괴되어 버렸으며 어떤 것은 남는다. 공간에 사람의 족적을 남긴 누군가에 의해 여기 저기 조각들이 있으며 이것은 시간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변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녹아든다.”라는 말처럼 건축은 계속 변화하면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언젠가 건축가의 뜻대로 전시물과 조각품이 건축공간 속에 다 채워진 후에 다시 이 기념관을 찾아 보고싶다.

from the court deck level is, contrary to the wish of the architect which is to make the above volume “float”, blocked with horizontal shades. Minor examples of the lighting fixtures and rails of the court and indoor stairways have also been finished in an unsatisfactory state.

Alvaro Siza has once commented on what is complete for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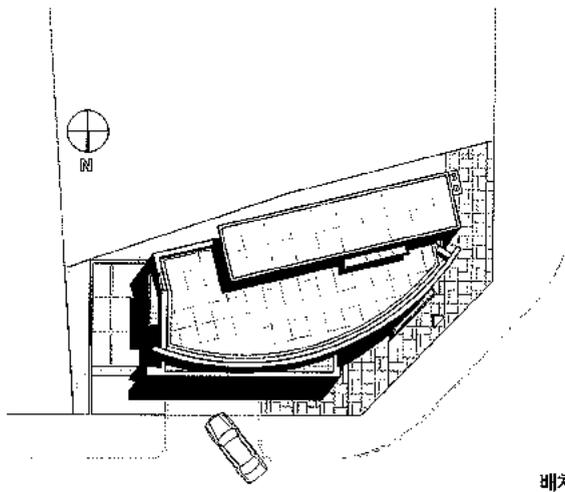
“Most of my works are still unfinished. Some are in the process of completion, while others have been drastically altered or destroyed. Spaces are left with marks left by its users, which, along with time and the flow of the era, transform the architecture as a whole, and permeate into the building.” It is always in a state of change towards completion. I surely hope to visit the Independence Hall once again, when it finally reaches this final state.

부평 윤산부인과 Bupyung Yoon's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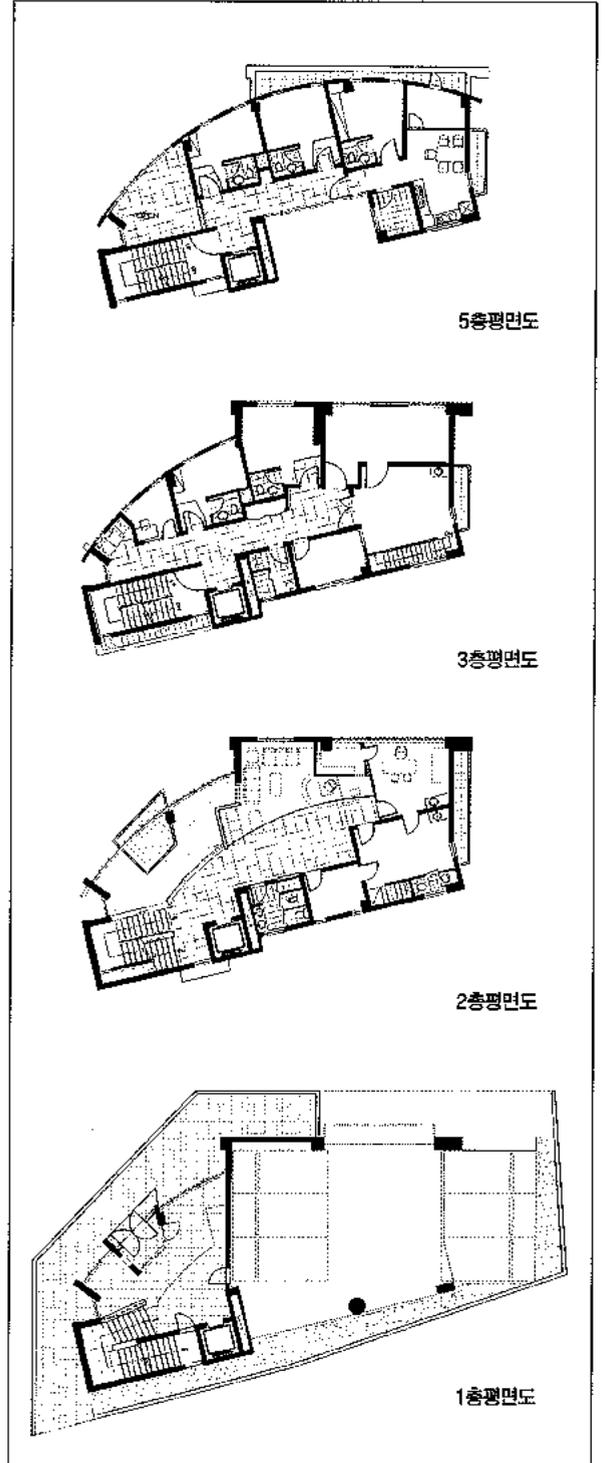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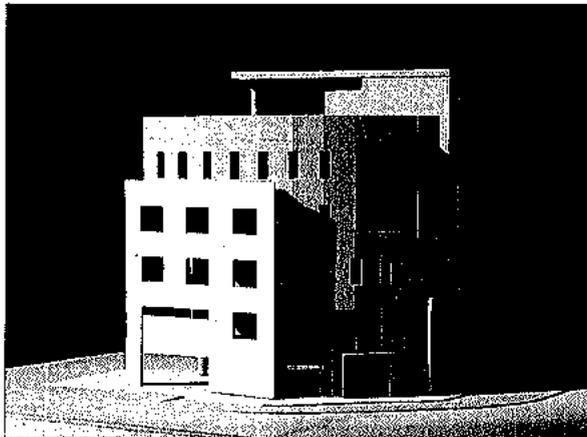
손두호 / (주)건축사사무소 모람
Designed by Son Doo-Ho

건축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0-86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2종미관지구
대지면적	362.00m ²
건축면적	171.39m ²
연면적	698.79m ²
건폐율	47.35%
용적률	177.1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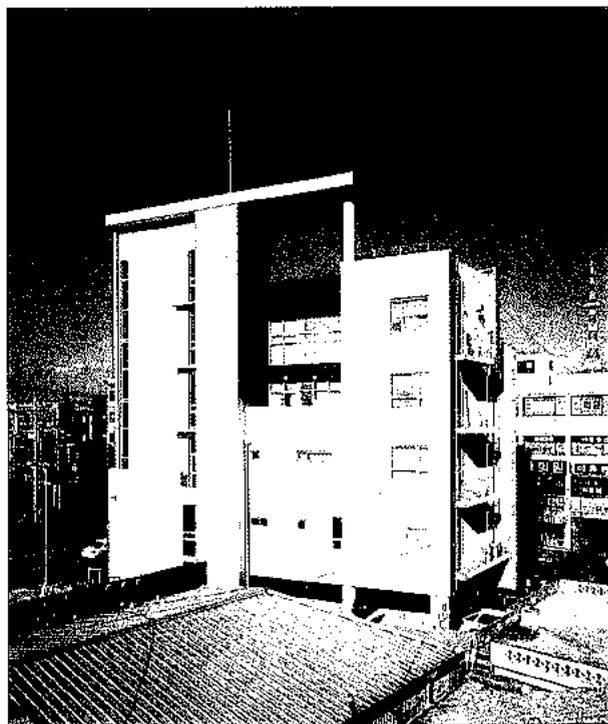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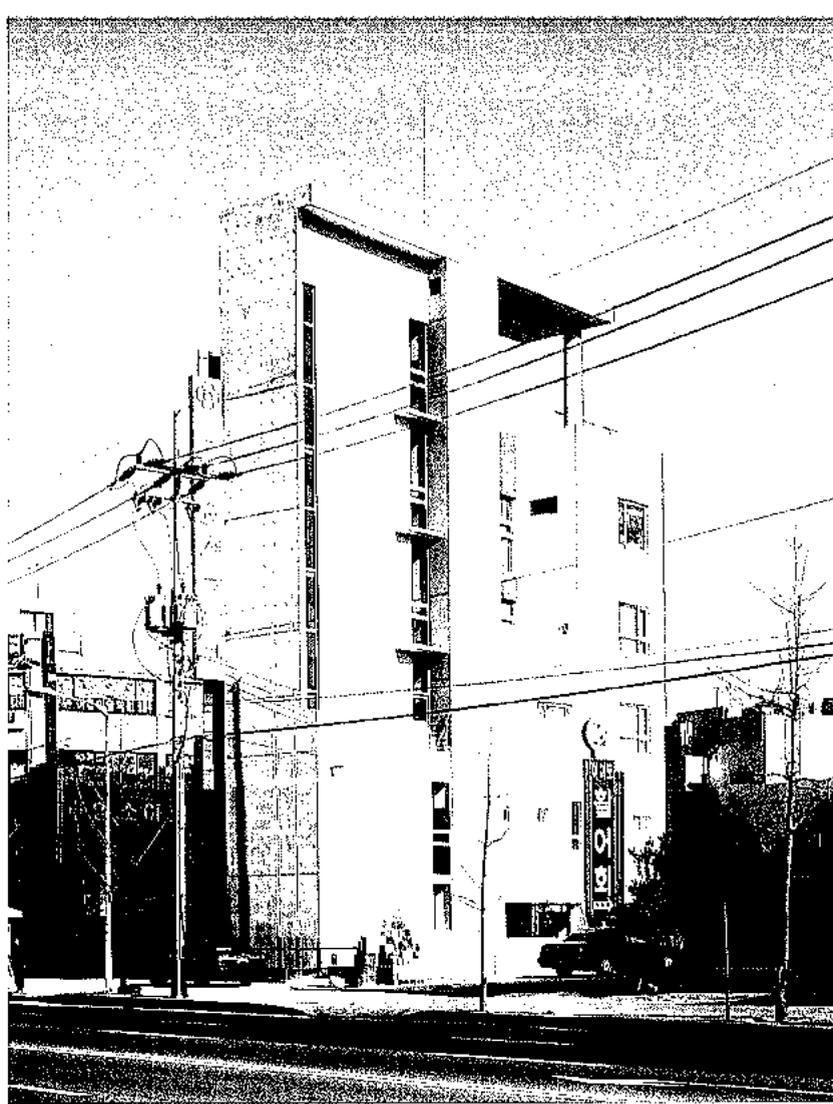


5층평면도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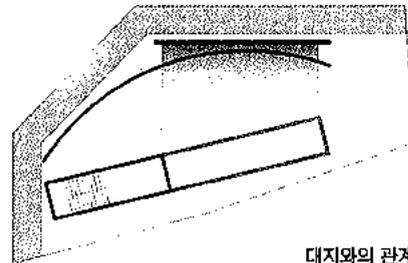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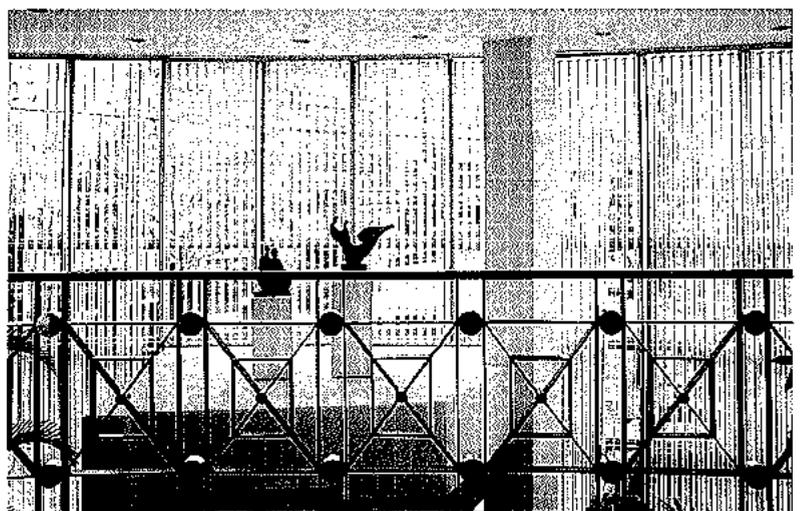
부평 윤산부인과는 인천 계산에서 부평으로 연결되는 35m 도로와 15m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다. 약 110평 정도 되는 대지는 불규칙한 형태에다 크기가 작아 코너라는 위치적인 장점에 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빈 대지로 있었던 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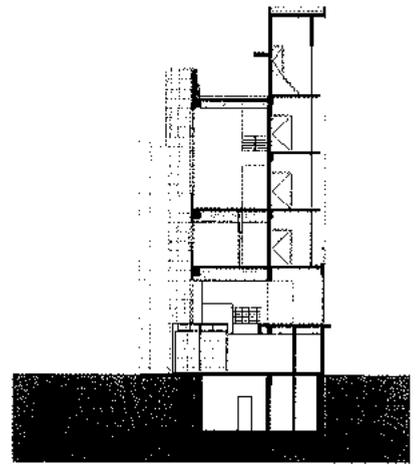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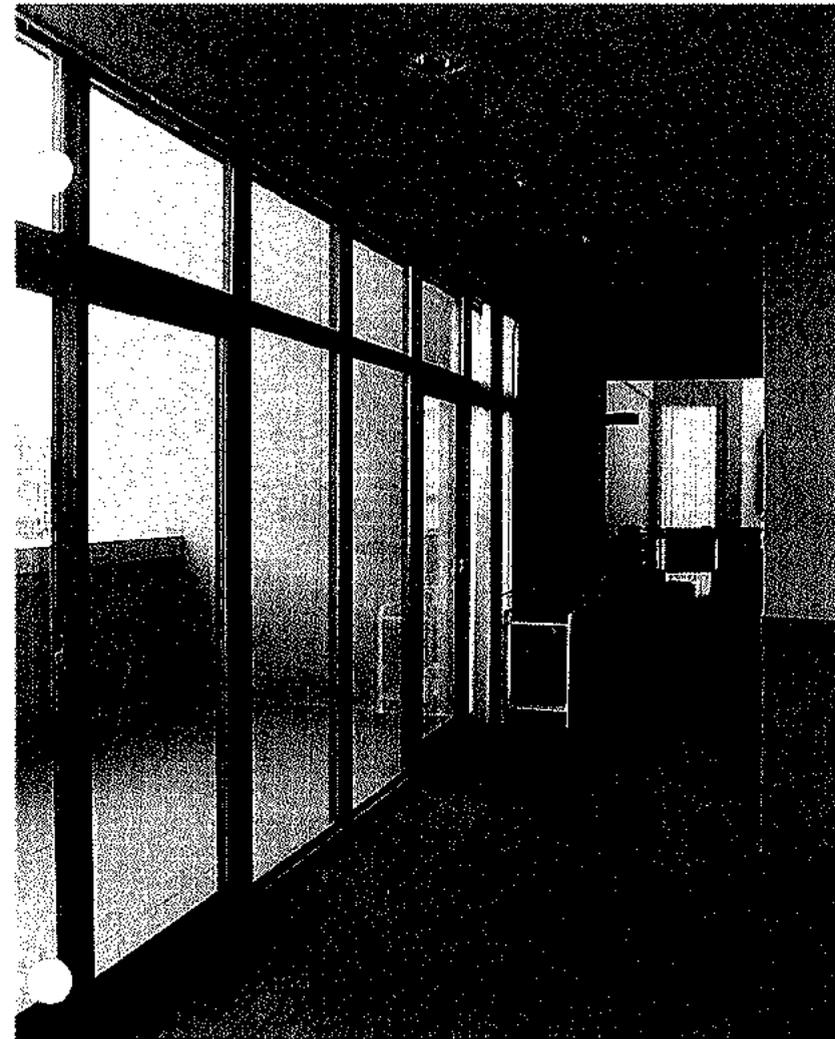


대지와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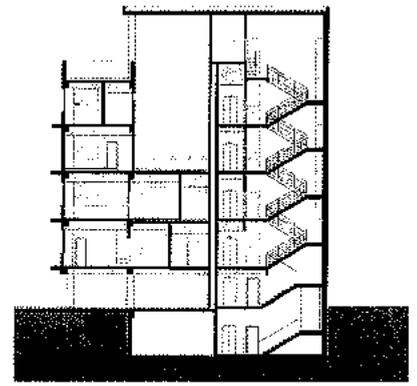
건축주의 예산을 고려한 200평 규모의 병원을 제안했고, 좁은 대지의 지하에 주차를 넣는 대신 1층에 한쪽을 주차로 할애하고 네거리 쪽에서 병원의 진입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주 대기 진찰실이 2층에 놓이게 되었고 상층부는 병실동이 되었다. 4층에는 보호자들의 휴게공간과 납축 발코니를 두어 좁은 건물의 빈틈을 만들었다.

예산을 감안하여 가로를 바라보는 전면에는 알미늄 쉬트와 샌드스톤으로 치장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외단열시스템으로 마감을 하였다. 건물의 뒤편에 낮은 건물이 많아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계단실 등 가로에 면한 부분을 노출 콘크리트로 처리하여 페인트로 마감된 부분과 구별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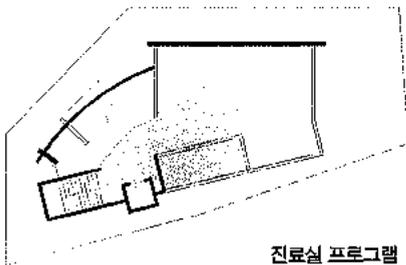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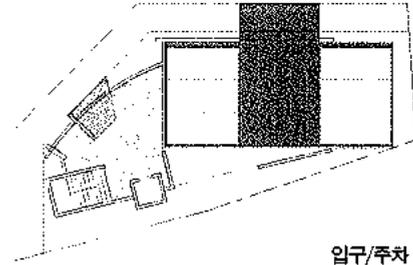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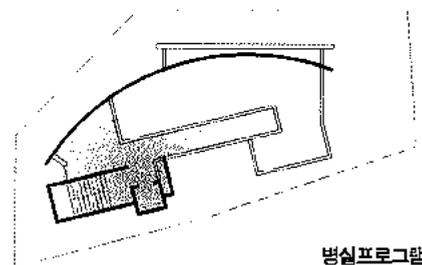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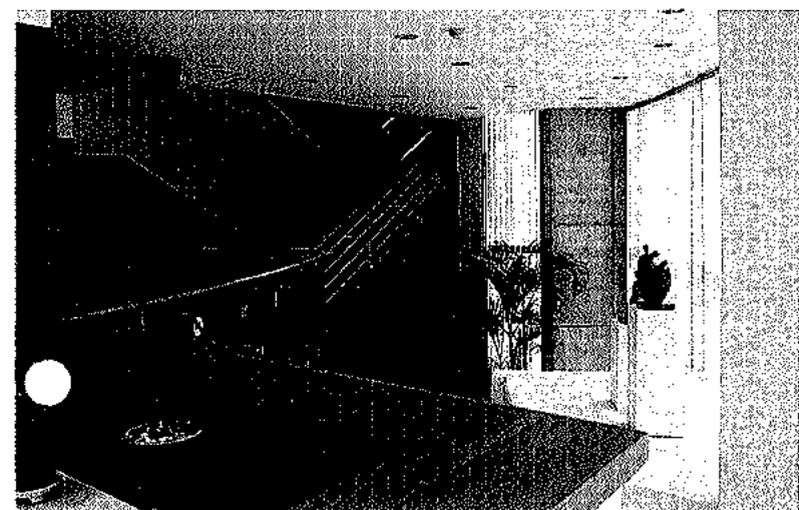
진료실 프로그램



입구/주차



방식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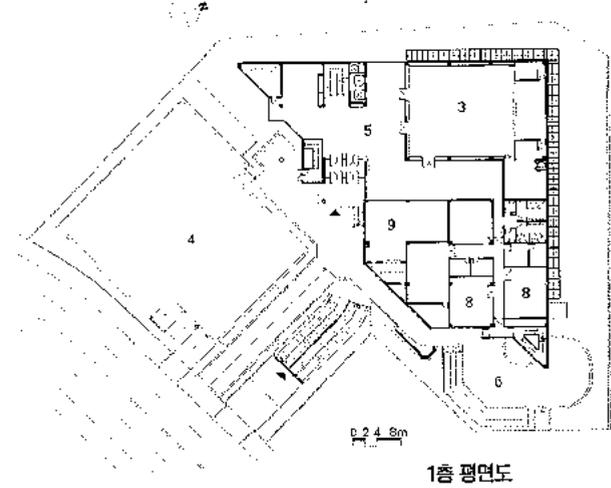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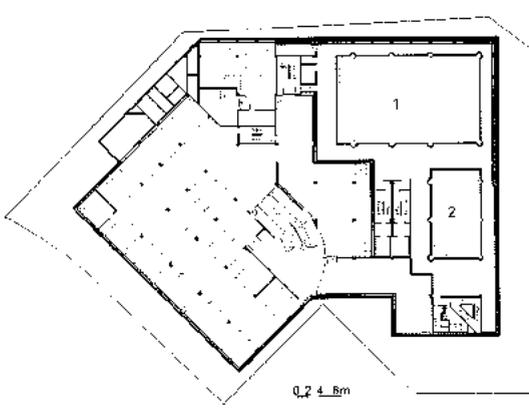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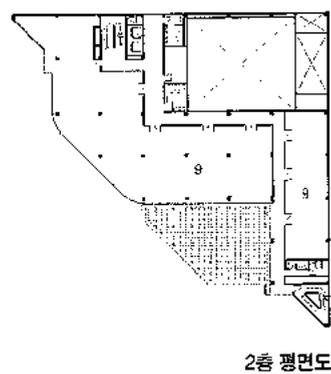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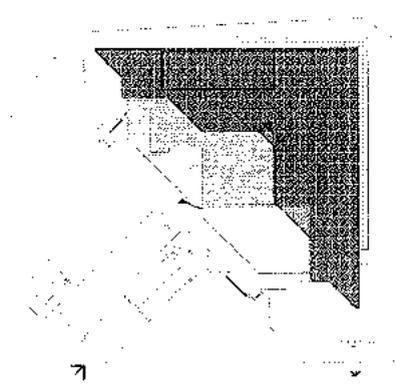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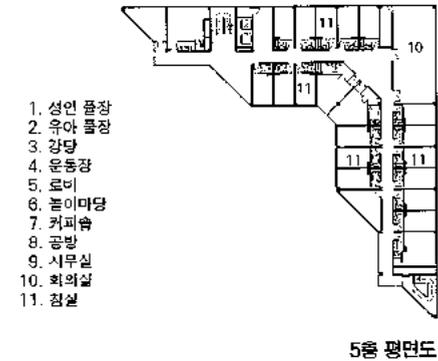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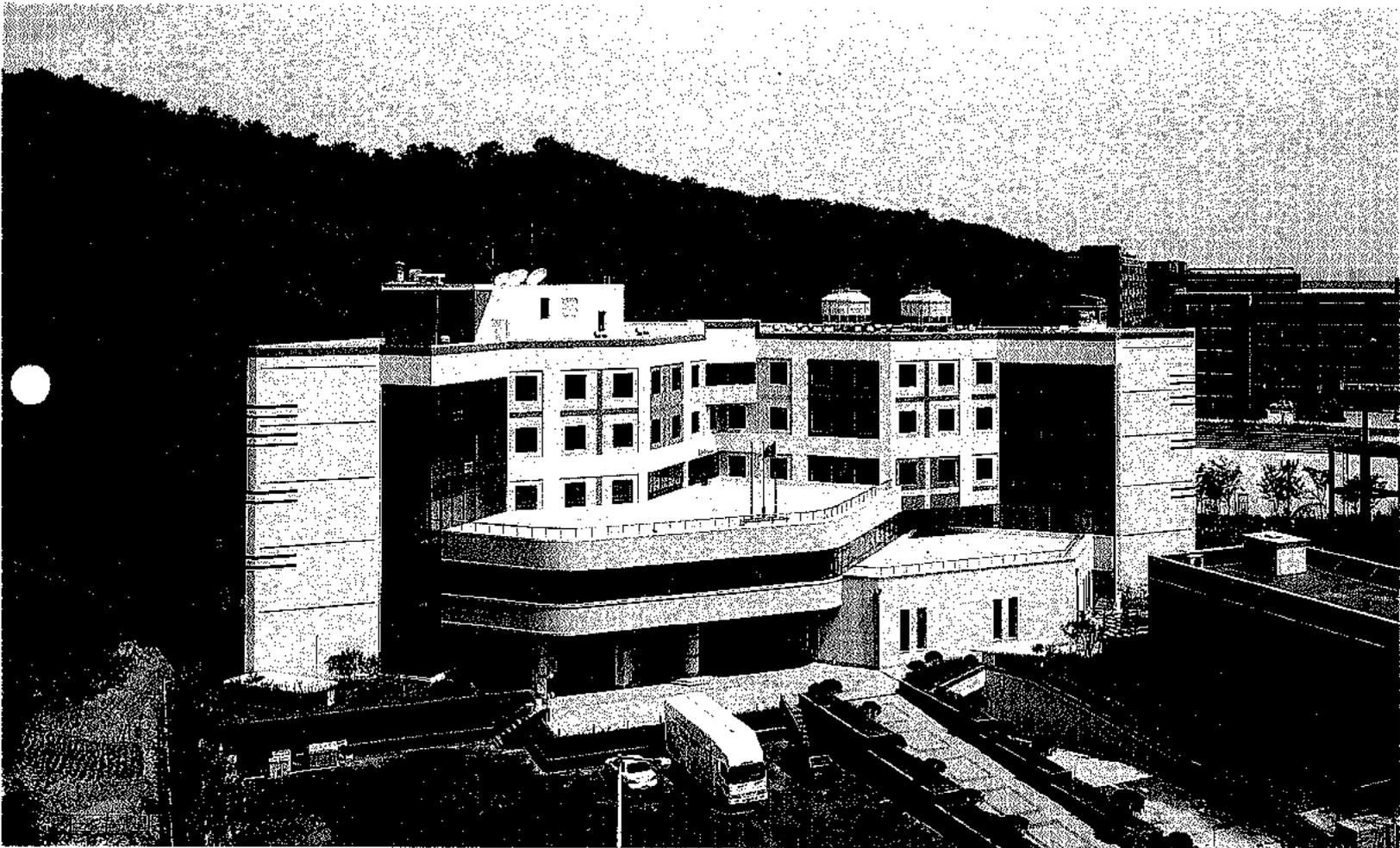
국제청소년센터 International Youth Center

김한일 / (주)그룹한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an-Il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방학동 801
지역·지구	일반주거, 고도지구
도로현황	20m도로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최고높이	21.35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대지면적	4,985.50m ²
건축면적	1,720.71m ²
연면적	12,016.23m ²
건폐율	34.51%
용적률	122.21%
외부미감	18T복층유리, 30T화강석, 50T외벽단열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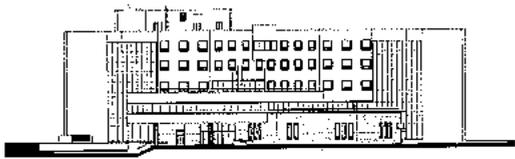


김포공항으로부터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국제 청소년 센터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여가활동의 전당을 마련하여 전인교육의 배경과 건전한 민주시민의 교육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 새 천년 세계화를 맞아 외국청소년들과의 교류 및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외국문화의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의 주요거점으로써 유스호스텔 기능을 수행하며 청소년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종합전문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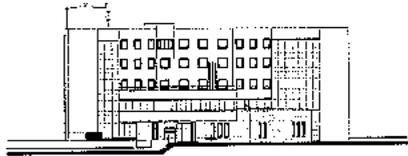
이 건물을 대지 뒤편에 계획하여 운동시설 및 야외 놀이마당

등을 전면에 배치, 복잡한 도심속에 개방감을 확보하고 한정된 대지 안에 할애할 수 없었던 청소년 시설의 필수조건인 야외 수련공간을 대지 옆에 있는 기존 공원을 연계하여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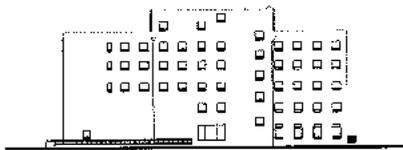
형태 계획은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한국 청소년의 기상을 창공을 향해 웅비하는 보라매의 펼쳐진 날개 속에 담아 평면을 구성하였고, 45°로 계획된 양측면은 날카로운 이성과 강직한 청소년들의 기백을 표현하였으며, 밝은 색상의 건물에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 포인트는 밝고 명량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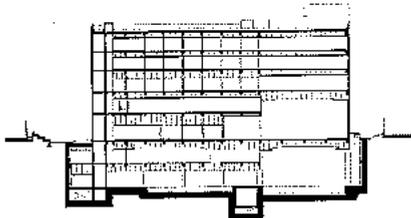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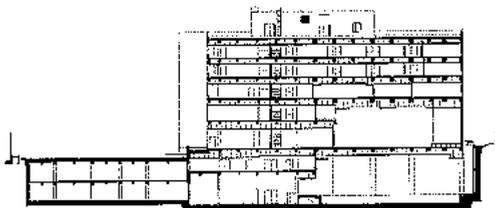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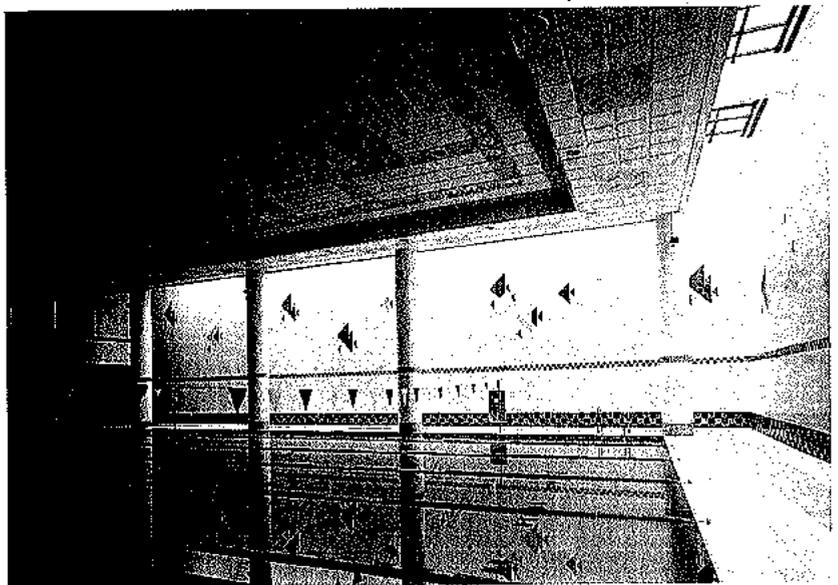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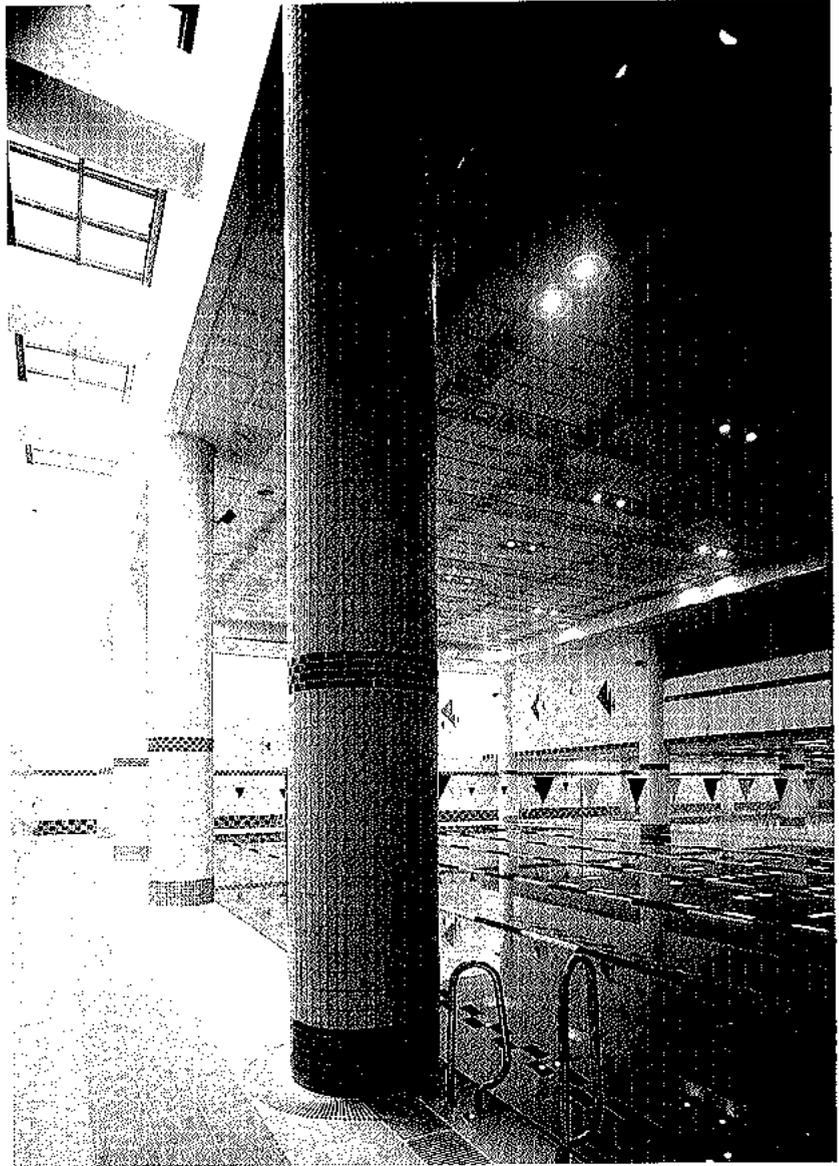
서측면도



중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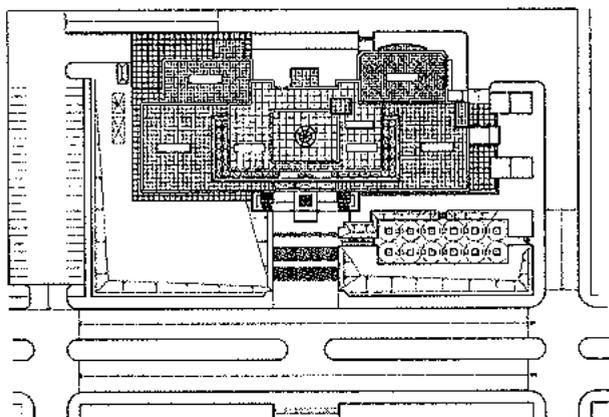
선문대학교 학생회관

Sunmoon Univ. Student Union

이충언 · 김광섭 / (주)원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ung-Eon & Kim Kwang-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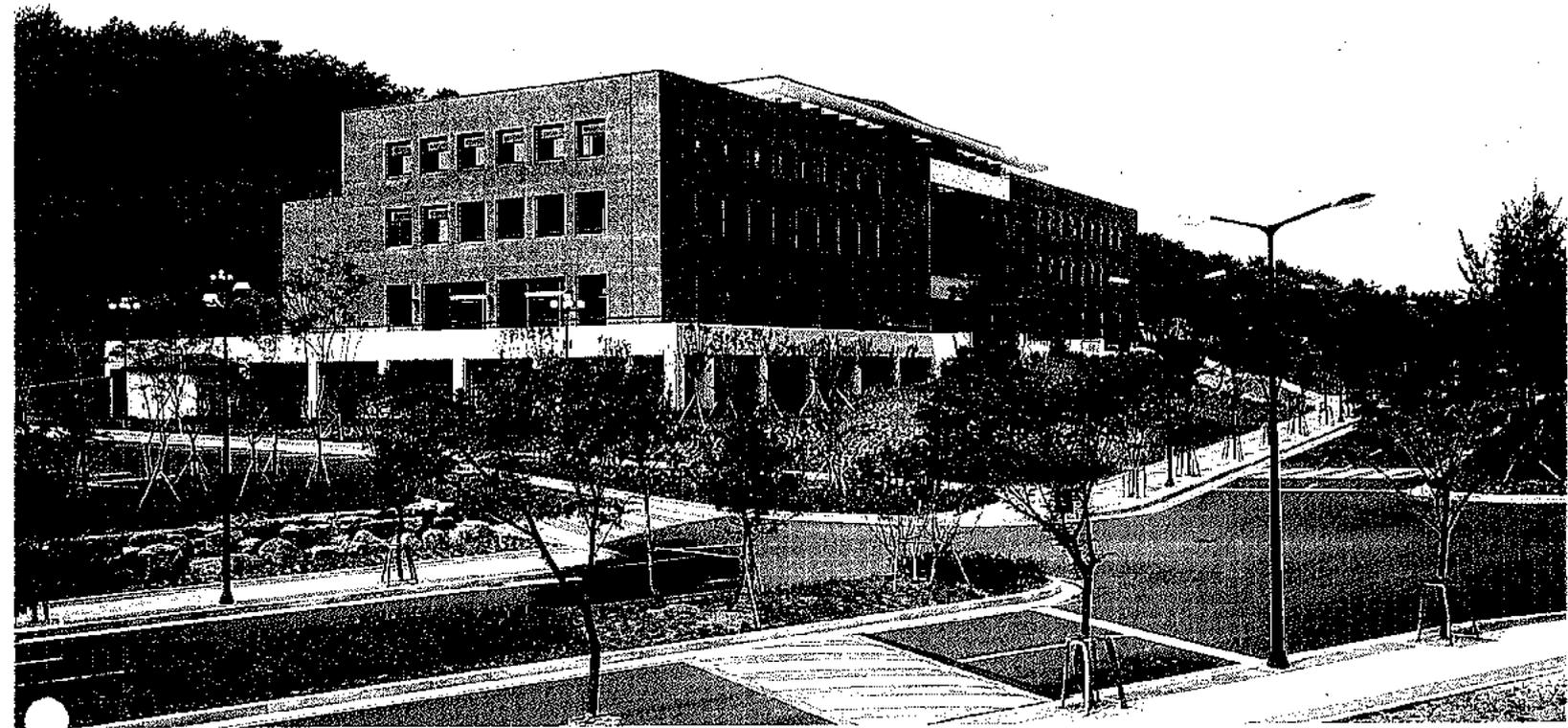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산 9-1의 140필지
대지면적	695,037m ²
연면적	12,701.88m ²
건축면적	3,193.88m ²
건폐율	2.94%
용적률	9.94%
주요 외장재	회강석 버너구이, 적벽돌 처장쌓기 +16MM복층유리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설계담당	남정훈, 표창식, 지현규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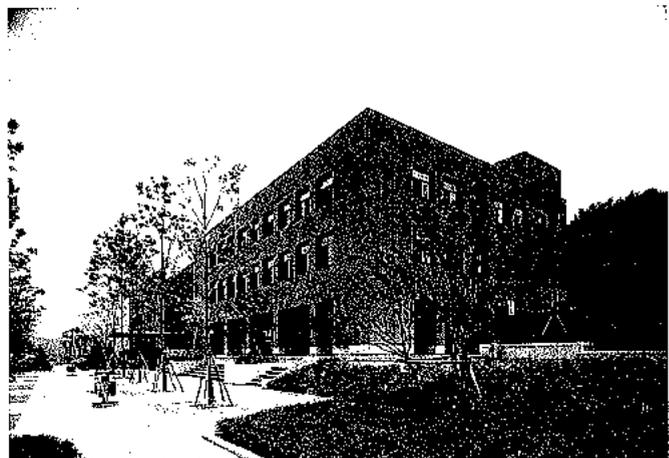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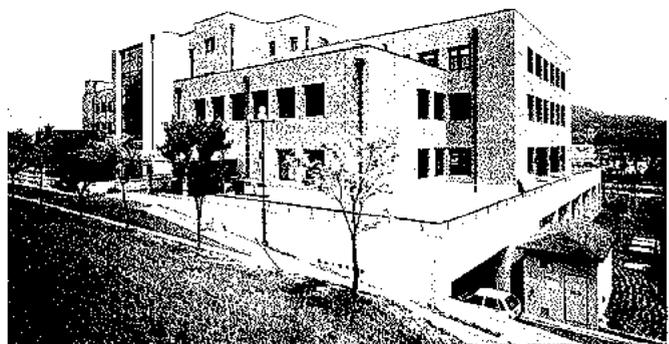


학생회관은 기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북측삼봉산(132.9m)을 중심으로 남쪽 국사봉으로 흐르는 원만한 능선에 자리 잡아 자연스러운 옥외경관과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주며 주변의 자연환경, 기존환경과 인위적 환경이 잘 조화되도록 설정하여 각 단과대학 시설들의 위계적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스터플랜의 중심(Main Axis)축 대학 본관건물과 중심광장 우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회과학관과 자연과학관의 수평적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축(Sub. Axis)의 수직축에서 동서로 길게 배치되어 도서관 부지와 인접하며 기존 단과대학으로부터 접근하는 보행자 동선은 보행자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두어 1차적 접근을 유연하게 하였다. 등·하교 시간대에 선문대학교의 유입차량(통학버스 및 자가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동선이 명료하면서 장소성을 살리는 분위기를 유지토록 하였다.

주차장과 학생회관은 지형 3m 차이의 자연스러운 레벨 차이를 보행자와 자동차 동선 유입을 부드럽게 배치 하였다. 내부동선의 흐름은 학생회관 1층 로비중심으로 각 기능별 동선의 효과적인 분리 및 효율성과 접근성이 양호 하도록 하였으며, 1층 학생식당과 2층 교직원/교수식당은 학생복지후생시설에 대응하게 배치하여 내부동선의 연계가 가능토록 하였다.

지하의 휴게홀은 지상1층 외부로 부터 접근할 수 있는 진입계



단을 두어 불특정 다수학생이 지상으로부터 쉽게 양쪽으로 진입하여 지하 공제조합매장 및 기타 서비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함을 도모하였다. 또한 채광 및 외부의 차단감을 없애기 위해 넓은 휴게 HALL 전, 후로 옥외 선큰기둥을 설치하여 지하시설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위공간을 제공하여 준다.

지상 1층은 넓은 로비공간으로하여 학생 식당 출입이 용이 하도록하고, 다목적홀은 각종행사에 상호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전면부쪽으로는 학생처사무실, 학생처장실, 중대본부, 의무실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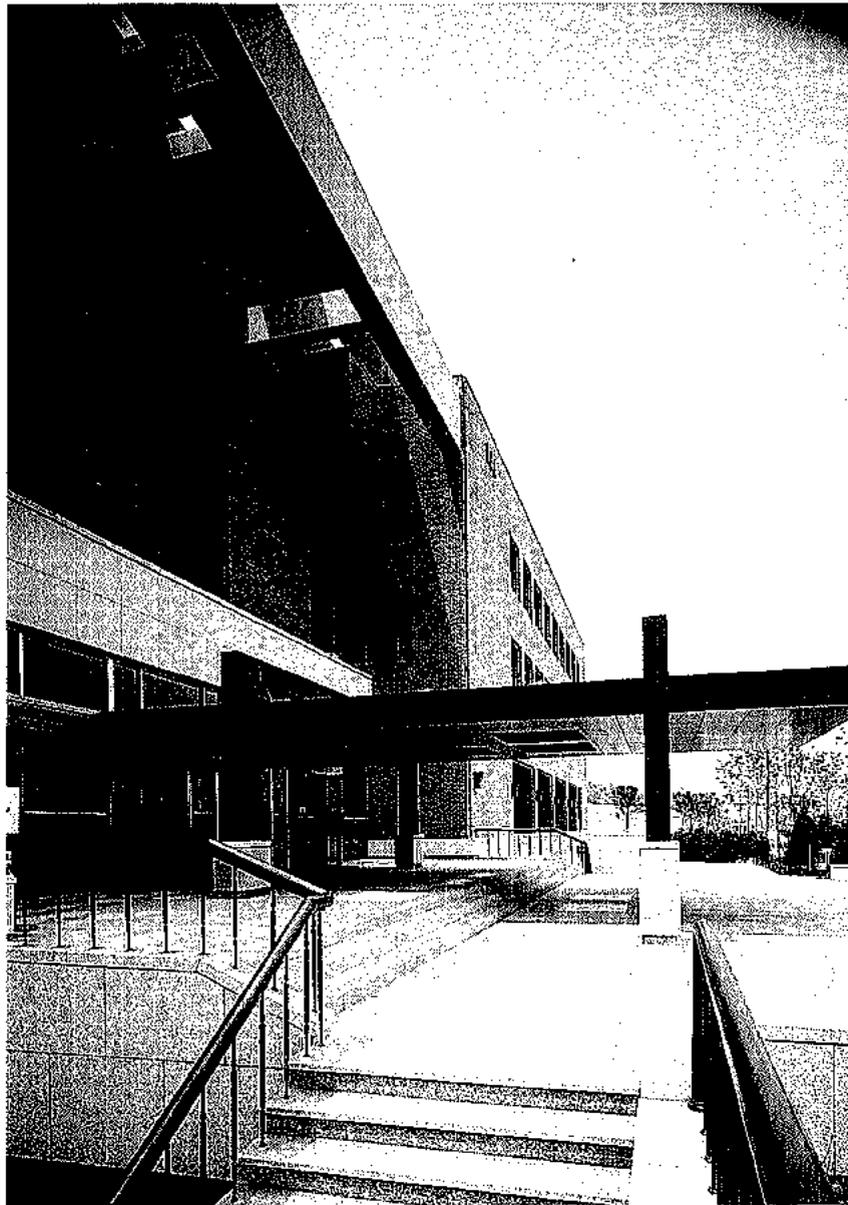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중앙부 홀은 OPEN SPACE퍼 리미드형의 TOP LIGHT를 설치하여 수직 수평적 채광을 적극 유도하였다. 지상 2층은 교직원/교수식당, 주방부분과 방송사무실(스튜디오, 편집실, 회의실, 부속실), 정보센터 및 강당상부로 분리하였다. 정보센터는 학생들을 위해 각 분야의 정보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Cyber Campus Service, 학사 및 교수 상담, 제증명 발급, FAX 및 우편민원 신청서 접수, 분실물센터, 학사촌 정보 등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주관하는 곳이기도하다.

지상 3층은 주용도를 동아리 사무실로 하여 현재 크게 학습분과, 공연분과, 봉사분과, 음악분과, 전시분과, 전통분과와 체육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사무실은 대형홀으로 각종행사준비에 필요한 회의실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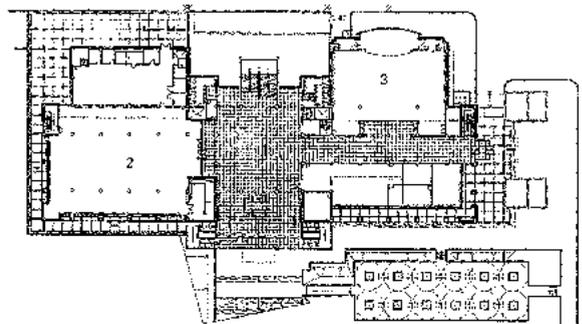
지상 4층은 여학생을 위한 공간과 휴게실, 음악감상실, 독서실을 실내에 계획하고 ROOF 테라스공간을 적극 활용한 휴게공간을 주었다. 학생회관의 입면은 기존 건축물의 전체적인 조화와 어우러진 적벽돌을 주소재로 화강석과 조합하여 중후한 양감속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조형미로서 섬세한 DETAIL을 첨가하였다.

중앙부분 CORE형을 중심으로 균형적인 2개의 MASS로서 안정감을주며, 상부의 휴식 및 공용공간에 파고라는 기능의 역할 등 조형적 구조로서 전체건물의 안정감과 경쾌감을 주도록 노력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시설투자, 에너지절약, 공해방지 및 경제성에 역점을 두어 재료의 모듈화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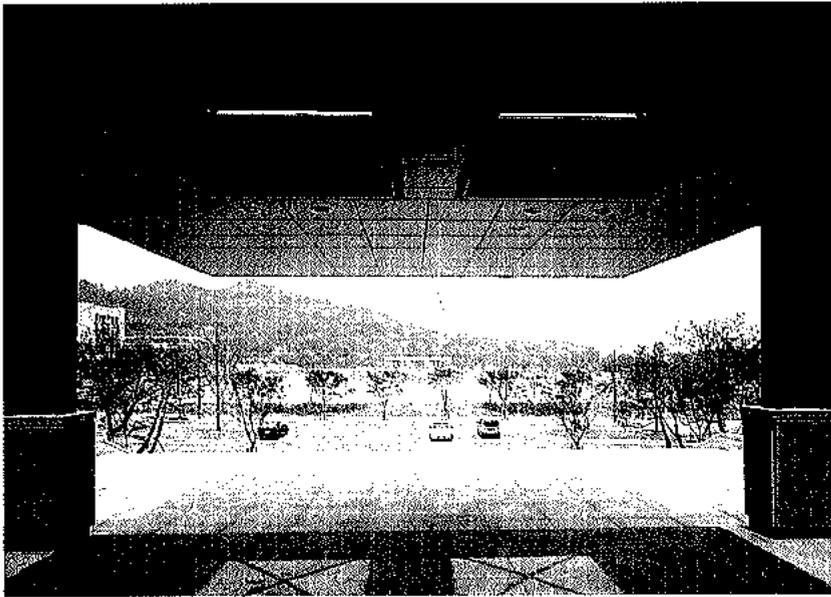
1999년 및 2000년 대학종합평가 전국1위 최우수대학 선정 학교로 21세기에는 더욱더 미래 지향적인 교육세계 구현 및 전인교육의 장으로써 학생들의 활동과 정서함양및 복지 시설의 공간제공을 하고, 학교 조직의 생산성과 재창조를 위한 대학생활의 학생 중심적인 교내 활동을 위한 장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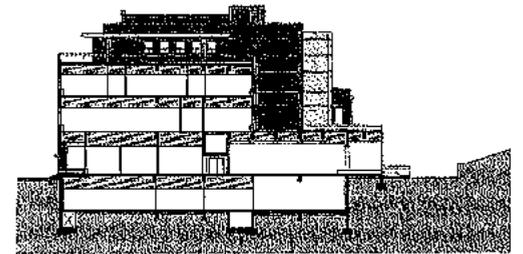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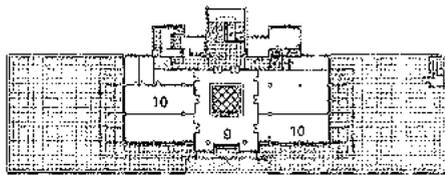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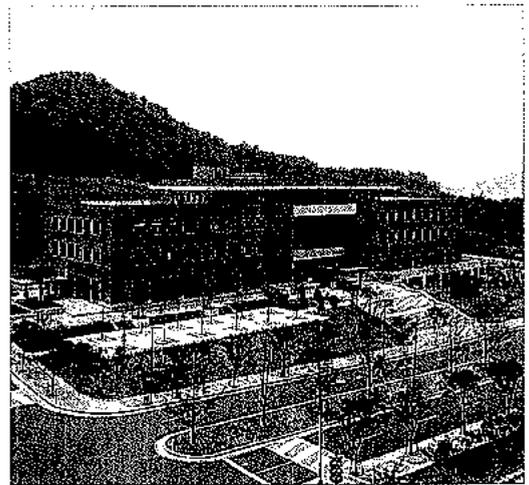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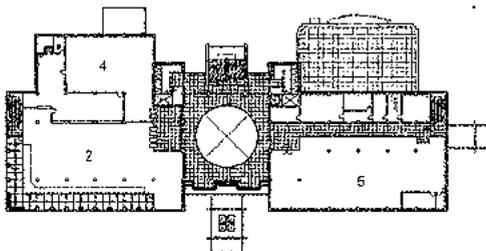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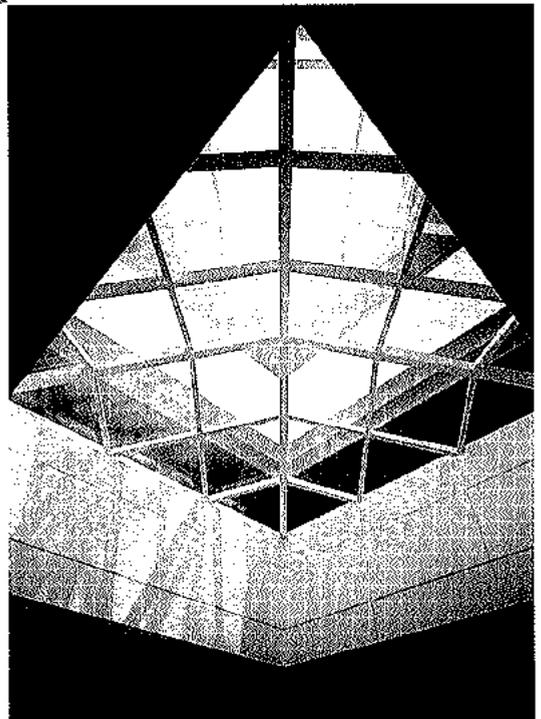


4층 평면도

1. 로비
2. 학생식당
3. 다목적홀
4. 교수식당
5. 정보처리실
6. 라운지
7. 회의실
8. 동아리방
9. 화장
10. 사무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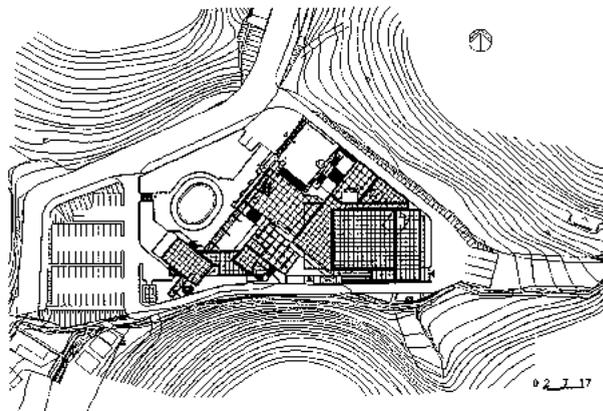
동래문화회관

Tongnae Cultural Center

이용흠 /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ng-H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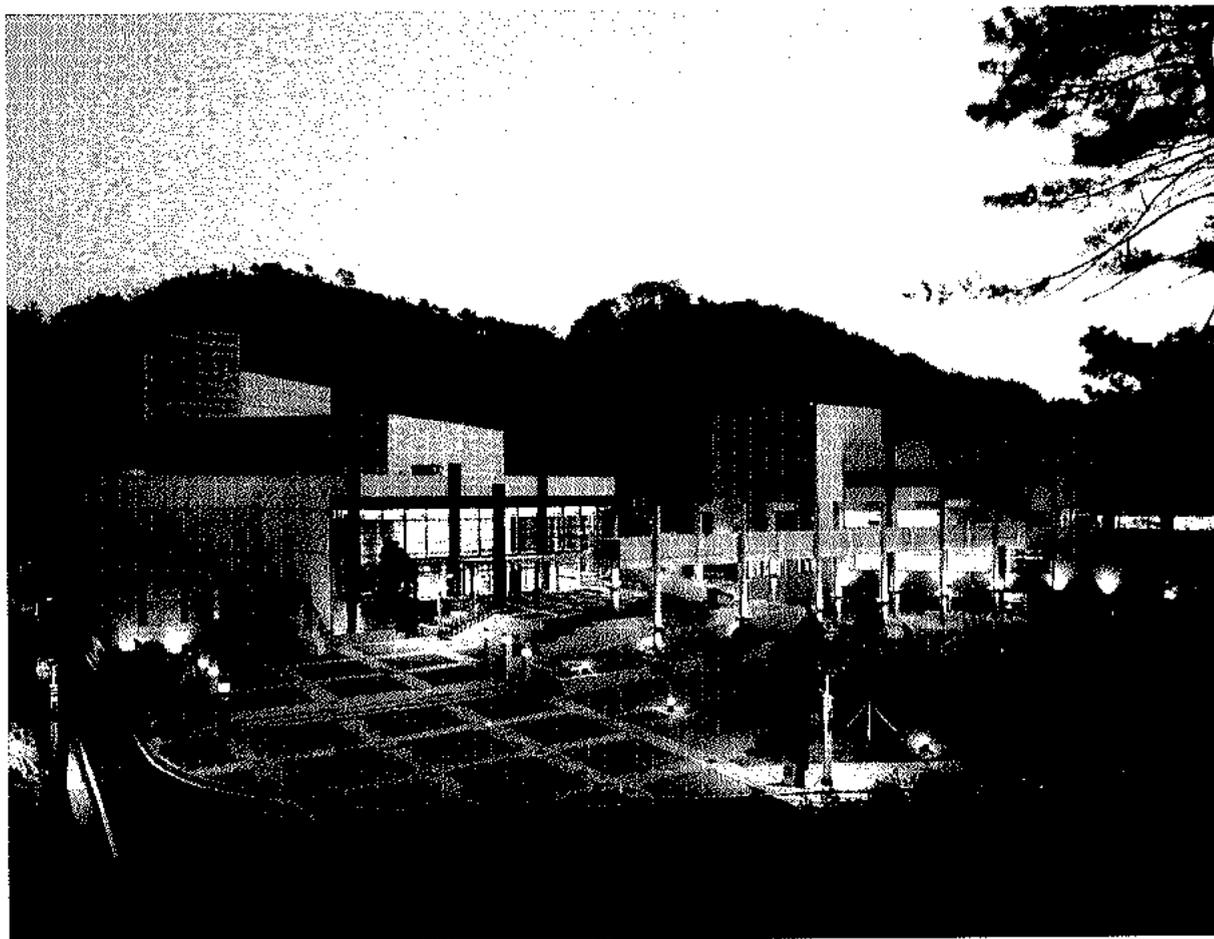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2동 136-2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
대지면적	11,537.00m ²
건축면적	2,196.04m ²
연면적	6,458.13m ²
규모	생활문화동 - 지하 1층, 지상 3층 강당동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 실리콘계 발수제 P.C 콘크리트 + 수성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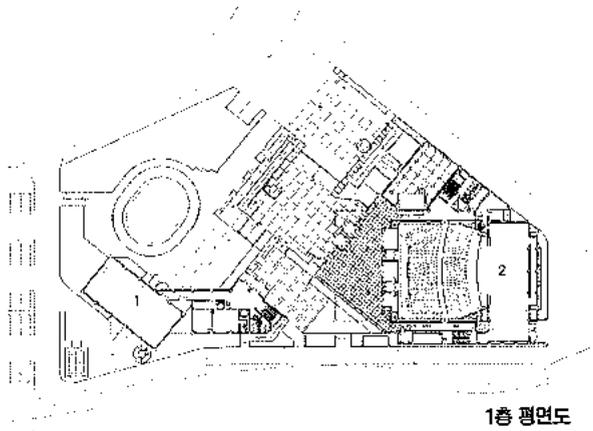


02.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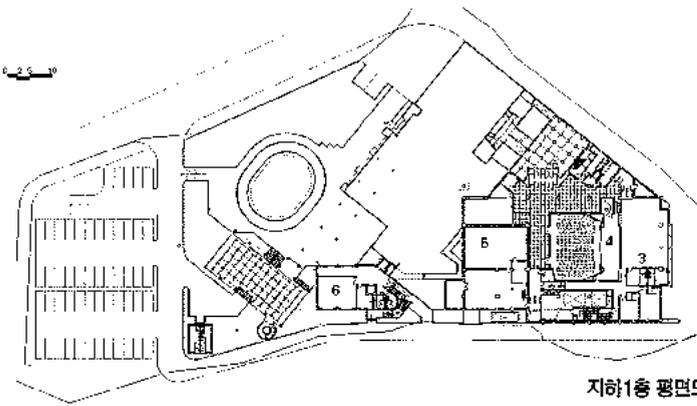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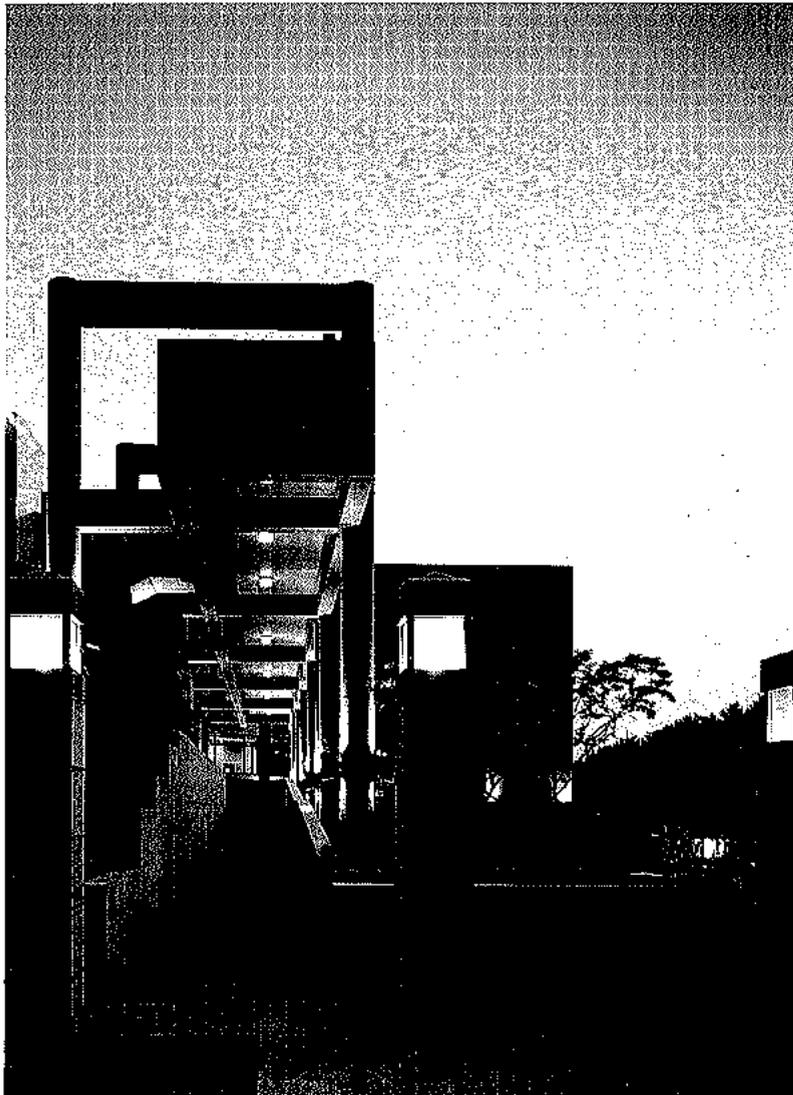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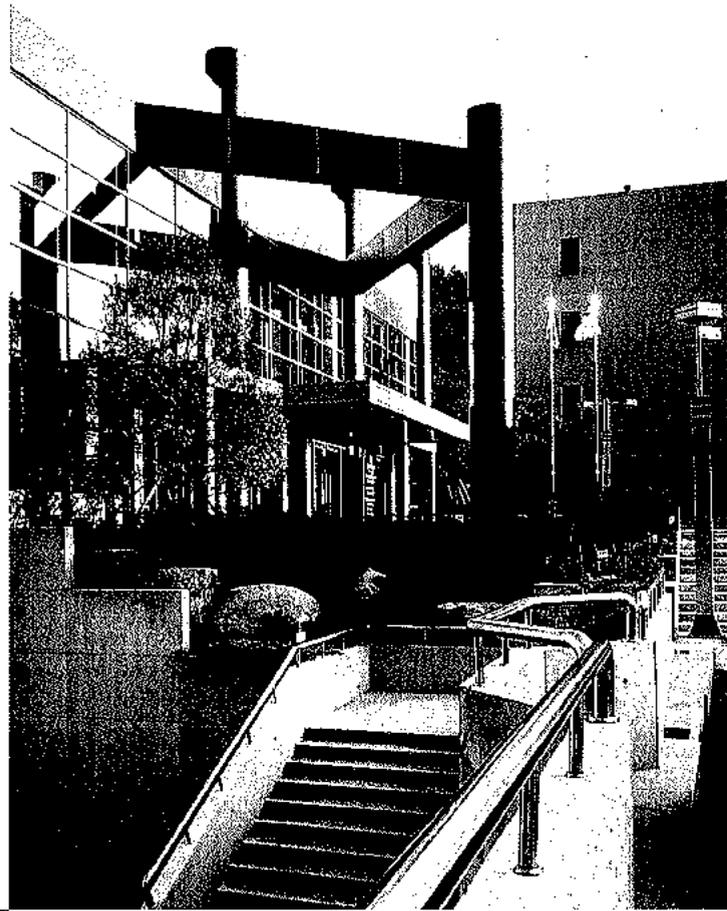
1. 전시실
2. 대강당
3. 연습실
4. 소강당
5. 전기실
6. 사무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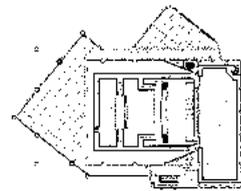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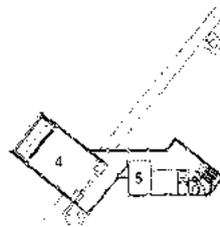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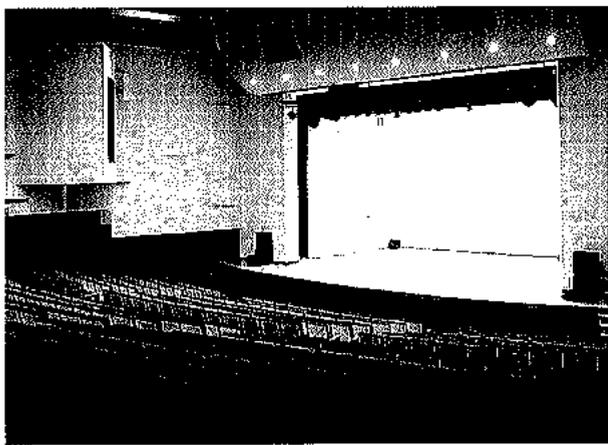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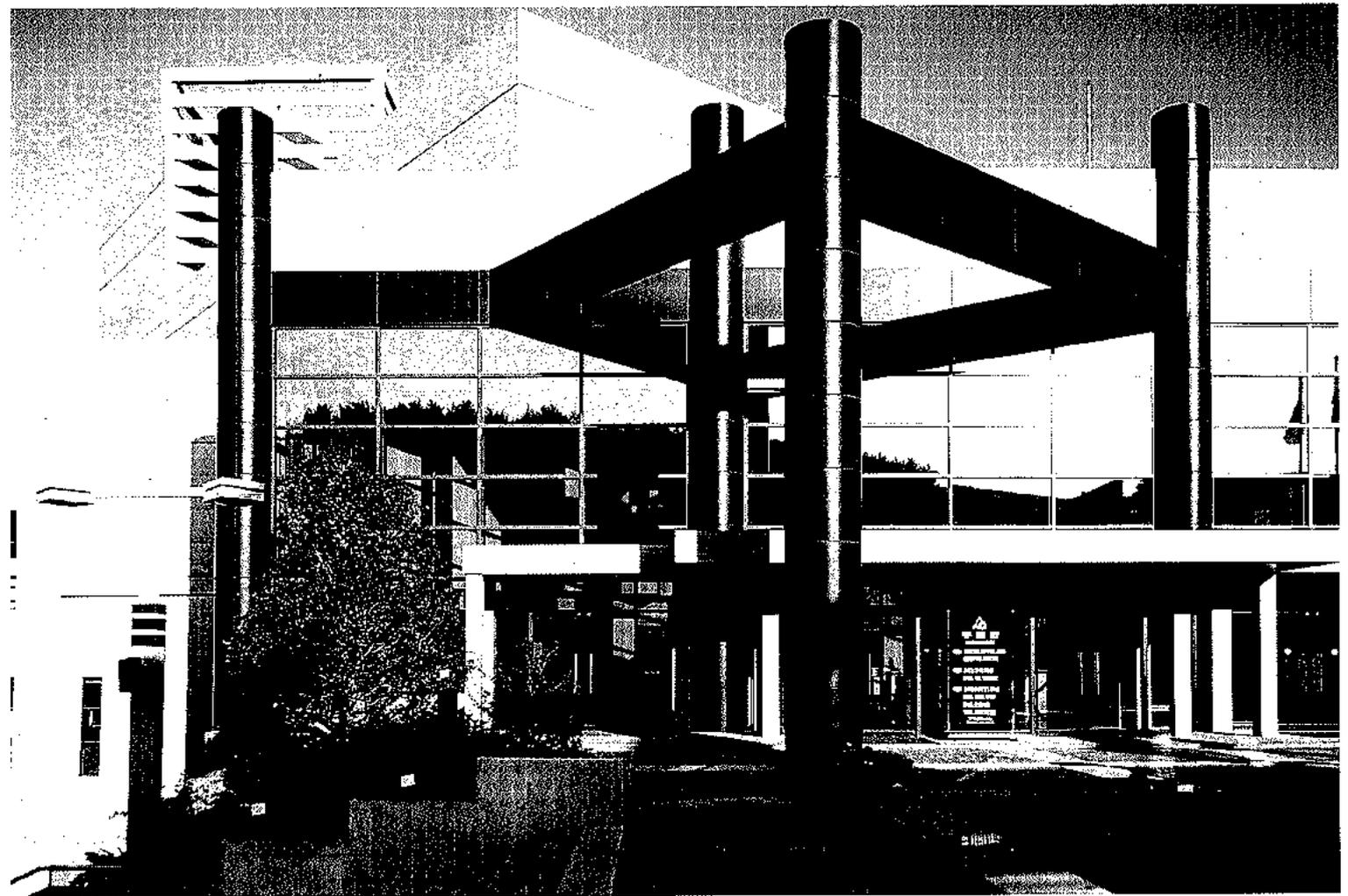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부지는 사면 모두 다 산으로 둘러싸여 높이의 방향을 느끼기보다는 무성격과 무방향을 느끼게 할 뿐, 딱딱한 지그마한 분지 형태를 하고 있었다. 협소한 부지에 막힘을 띄우고, 열림을 더욱 더 활짝 열어보고, 아물거리고, 작게 보이는 세속의 세계를 더욱 더 극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건축적 장치와 부유하는 건축적 공간을 도입하였으며, 도시적 스케일의 건축적 표현을 위해, 도시의 길과 마당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맥락에 순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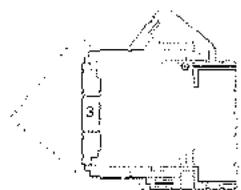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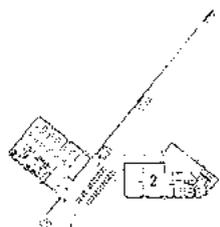
건축의 표정을 규정하는 입면에 적용된 기하학적인 차원에서의 점, 선, 면의 언어를 유추적 차원에서 하늘과 나무와 땅의 이미지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노출 콘크리트를 통한 형태적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주변 자연과의 조화와 친밀감 있는 건축물로 표현하였다.

내부 공간으로의 모든 진입은 마당으로 연계되었고, 대극장의 무대 체험을 위해서는 앞마당과 큰마당을 거치고, 작은 마당의 체험을 하고자 할 때는 아래마당을 통해야 한다. 놀이마당, 사이마당 등 다섯 마당의 공간적, 영역별 구분으로 공간 이용의 즐거움과 부속 기능의 탈출로서 지역 주민에게 더욱 더 쓰여지고 모여지는 곳이 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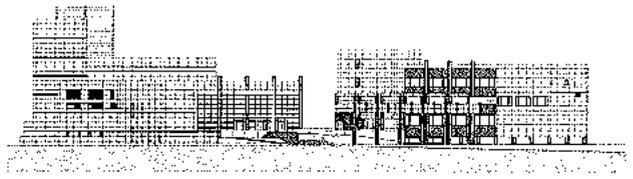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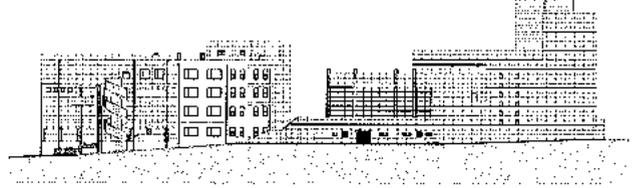
0 2.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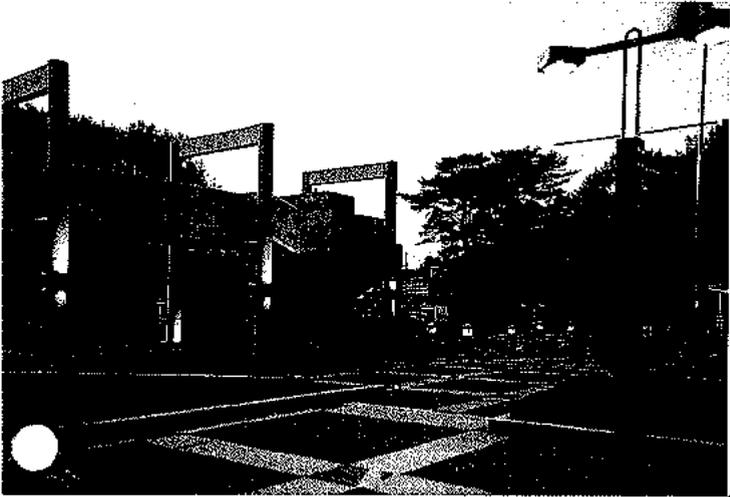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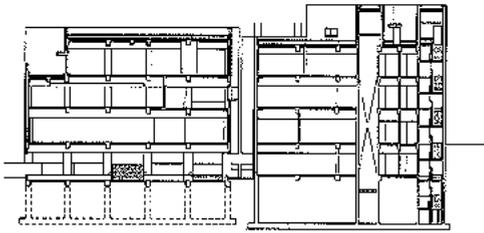
북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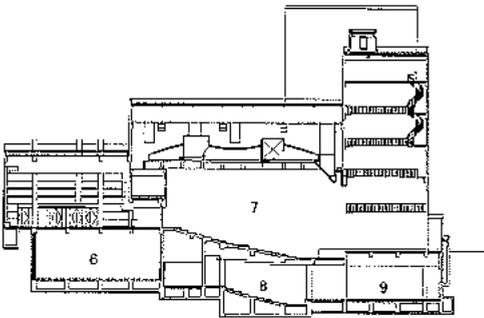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1. 야외카페
2. 홈페이지실
3. 영사실
4. 디מות적층
5. 취미실
6. 기계실
7. 대강당
8. 소강당
9.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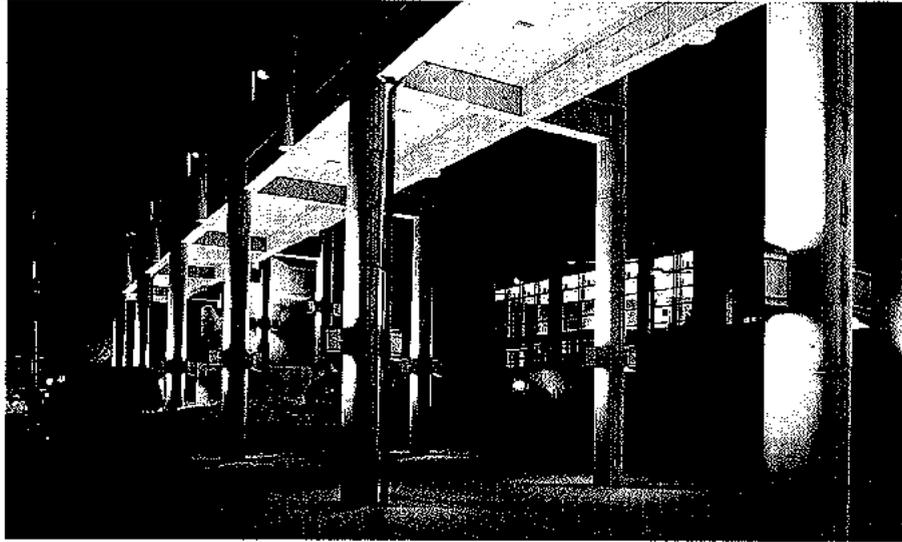


생활문화동 단면도



0 2 5 10

강당동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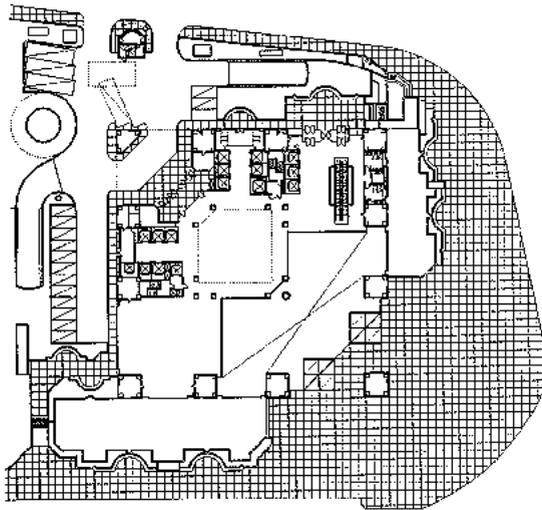
한빛은행본점

Hanbit Bank Head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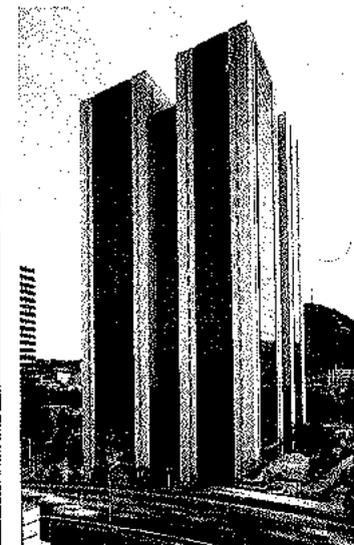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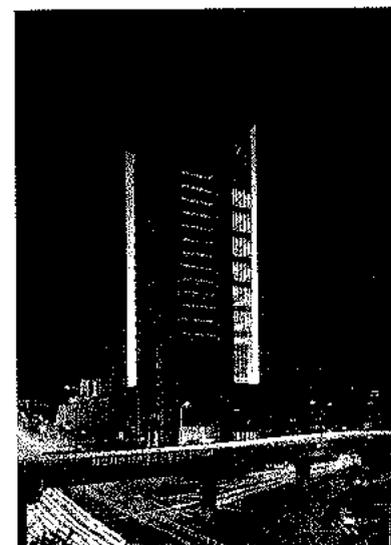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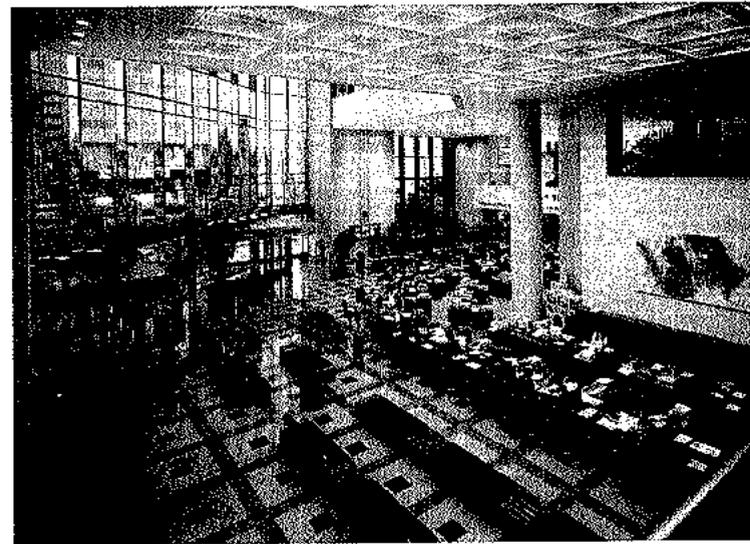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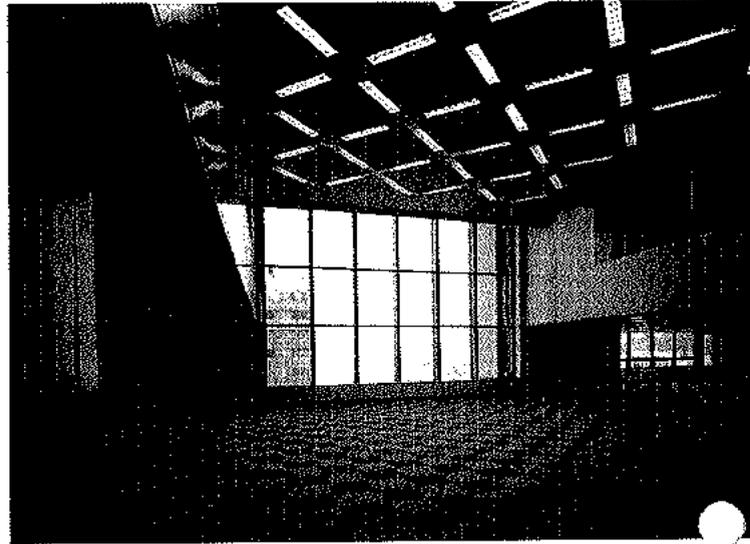
김병년 /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Byung-N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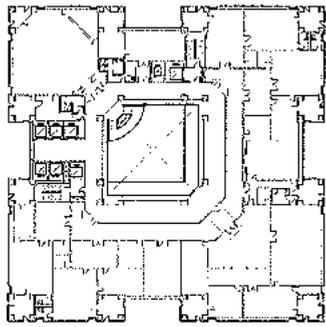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회현동 2가 72-5일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재개발구역
대지면적	8,744.00m ²
건축면적	3,323.88m ²
연면적	97,199.99m ²
건폐율	38.01%
용적률	653.51%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규모	지하6층, 지상24층, 옥탑1층
외부마감	화강석, THK24mm 복층유리
조경면적	1,441.00m ²
최고높이	111.9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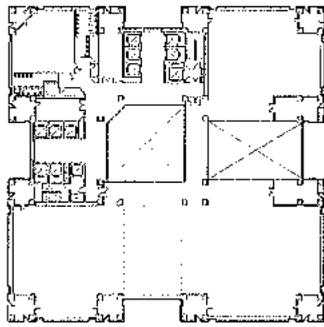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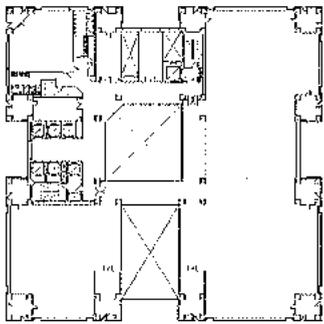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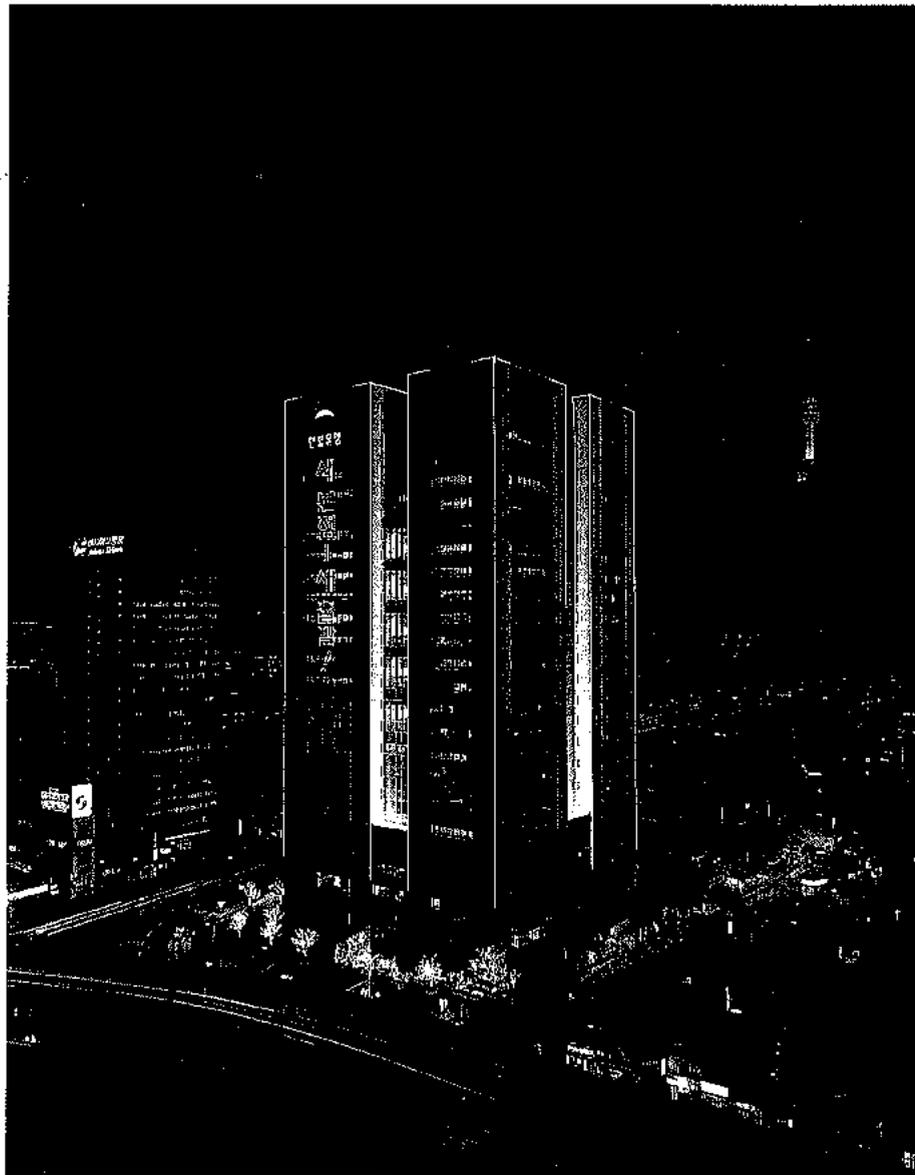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대지

퇴계로와 반포로가 남산 3호 터널 사거리의 서측 모서리에 위치하여 북측으로는 소공동 금융가와 접하고 남측으로는 남산을 배경으로 한다. 주변은 대부분 재개발 지역으로 점진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주거 및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하고 지하도, 상가, 지하철역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지는 4면이 도로에 면하여 외부로 폭 넓은 전망을 갖고 있었고 반대 급부적으로 접하는 모든 도로에서 정면성 또한 요구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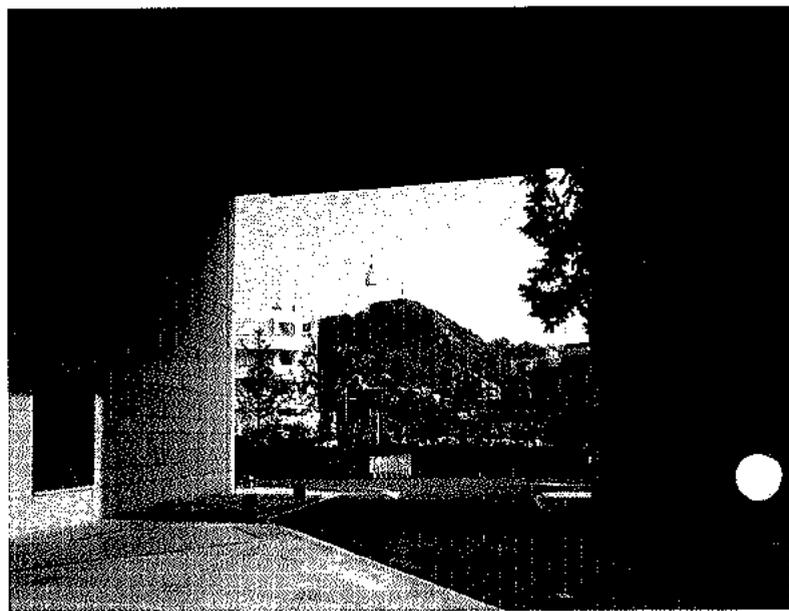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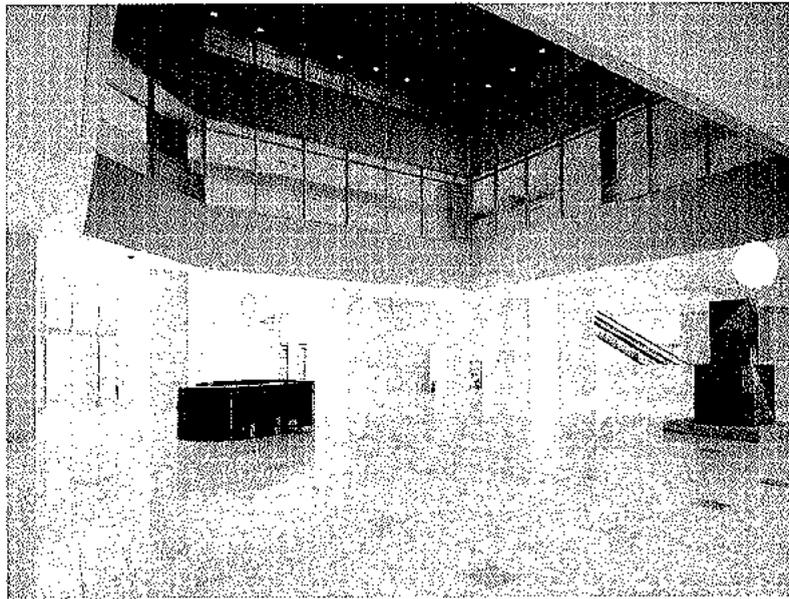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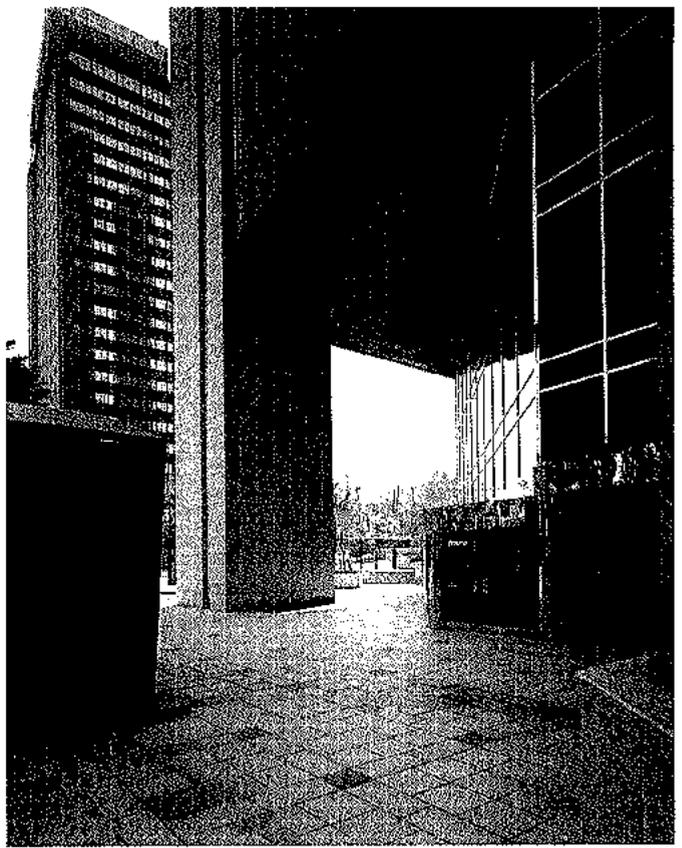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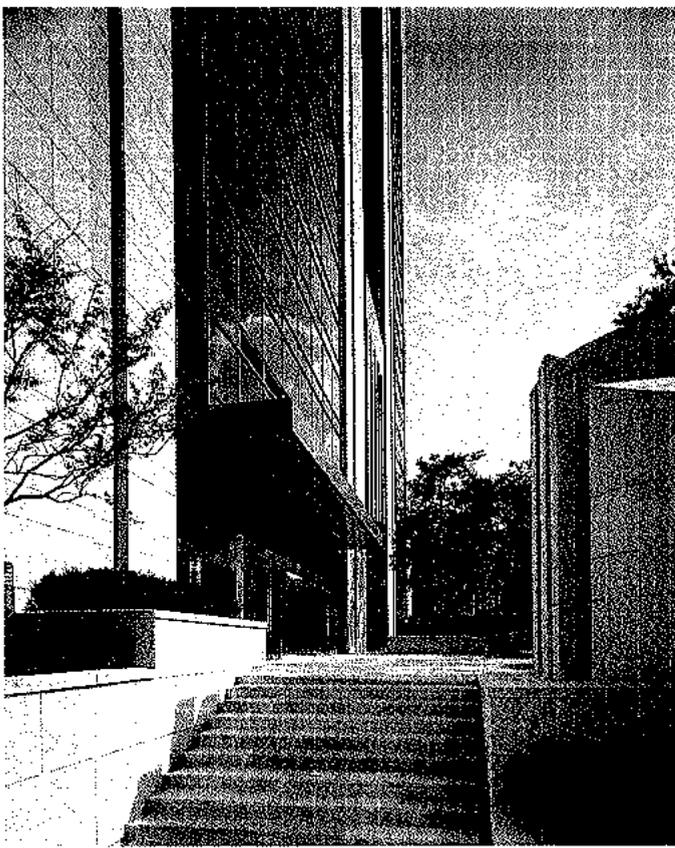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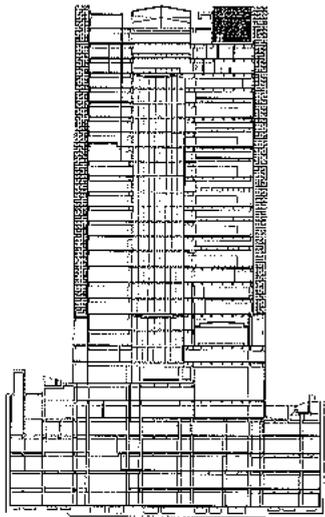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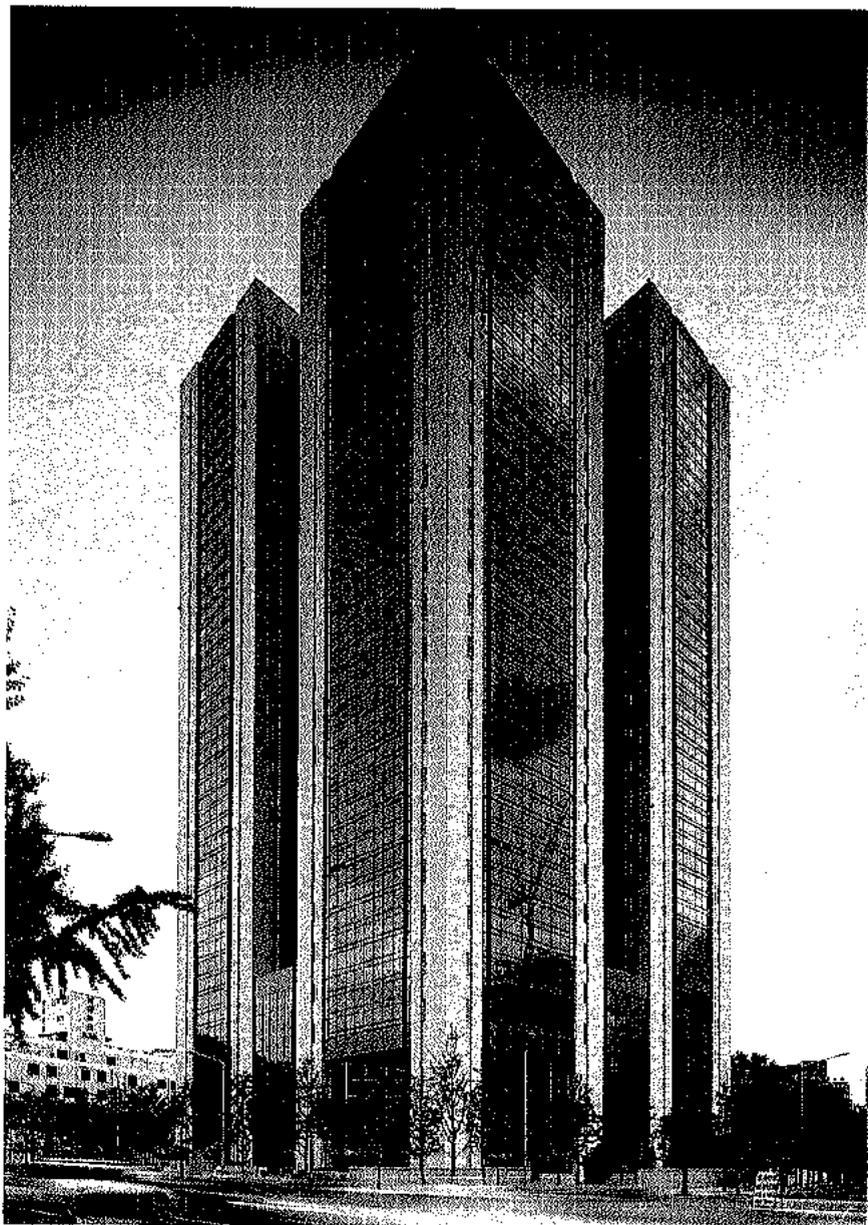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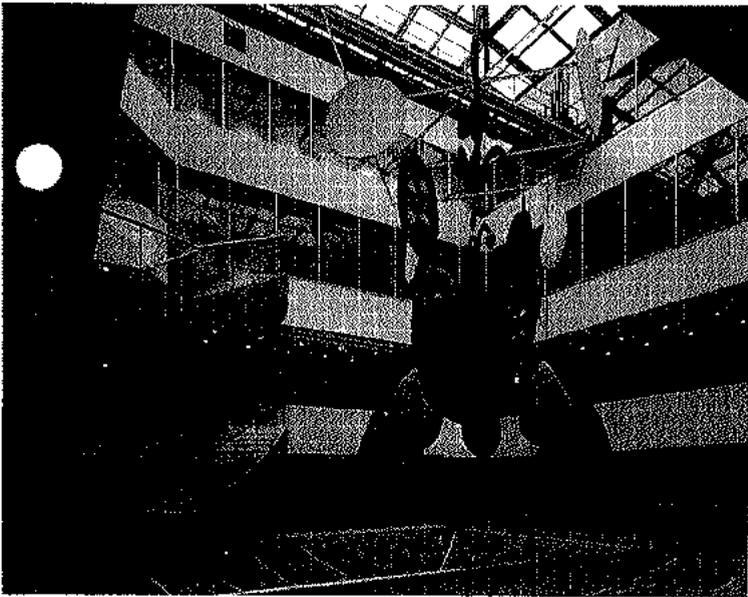
금융기관의 본점 건물로 기존의 폐쇄적인 표정을 벗어나 종합금융 정보센터로서 개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점으로서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건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외관이 요구되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시설과 대규모의 인원이 근무하게 되므로 조직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효율성이 요구 되었으며, 각각의 공간이 독립적이면서도 동일 집단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것 등이 기본 프로그램이었다.

해결

본점 건물의 인상값은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층부에 포디움을 얹고 용적률을 가득 채운 고층건물을 계획하고 각각의 도로에서 동일한 표정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4개의 크고 작은 탑을 세워 입면을 구성하였다. 이 탑들이 모여 하나의 건물을 이루게 되며 각탑의 모서리에는 설비피트와 구조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슈퍼칼럼(4개의 기둥을 조합)을 설치하여 무주공간의 유연성 있는 사무실을 구성하게 하였고 이 슈퍼칼럼은 각각의 사무공간에 필요설비를 효과적으로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건물의 중앙에는 전층이 연결되는 아트리움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에 의한 개방적인 사무공간을 형성하고 수직으로 분리된 다른 층과 연속적인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사옥으로서의 이미지와 동일집단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2개 층씩 연결된 보조 아트리움을 중앙 아트리움에 북측, 동측으로 번갈아 배치하여 중앙 아트리움의 거대 스케일을 완화시키고 2개 층의 층고를 가진 사무공간을 구성하여, 시각적 연속성을 갖는 역동적인 사무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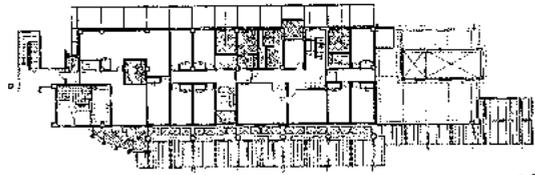
옥천휴게소

Okchon Sevice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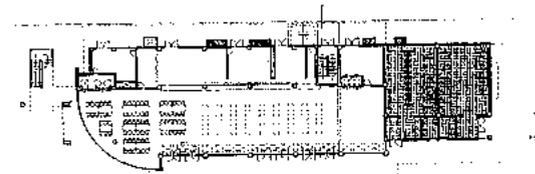
김상길 · 김희옥 / (주)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ang-Gil & Kim Hee-Ok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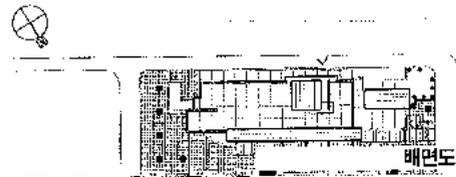
대지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대화리 236-16외 31필지
지역 · 지구	준 농림지역
용도	관광휴게시설(휴게소)
대지면적	48,306m ²
건축면적	1,590.13m ²
연면적	2,519.01m ²
건폐율	3.29%
용적률	4.60%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철골조
주요외장	외벽 - THK3 알루미늄쉬트패널 / 지정색블소수지코팅
	창호 - THK16 컬러복층유리
	캐노피 - THK4.5 폴리카보네이트
부속건축물	정화조 관리실(지상1층) 쓰레기 소각장(지상1층) 향토농산물판매장(지상1층)
설계담당	박보원, 이광기, 지용운, 류창우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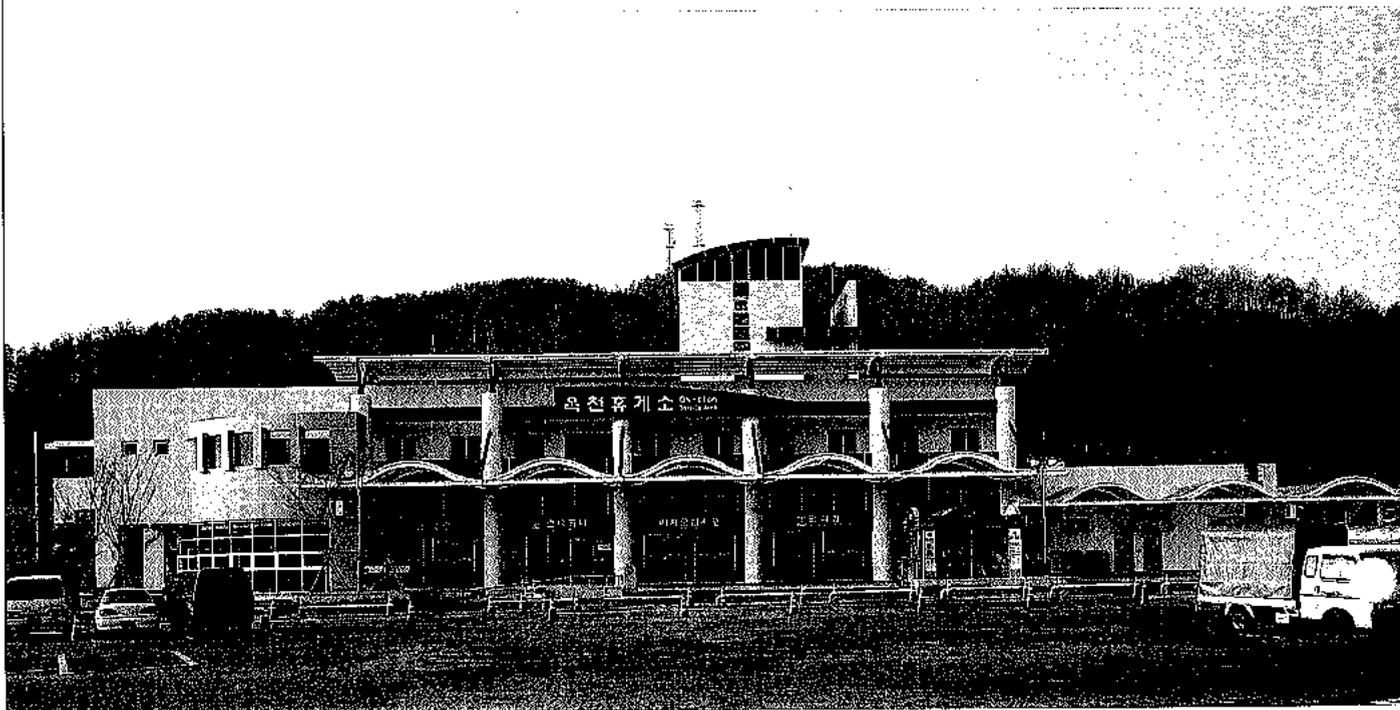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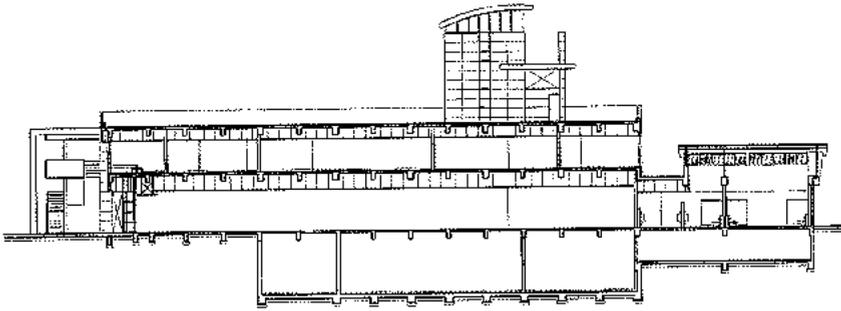
배치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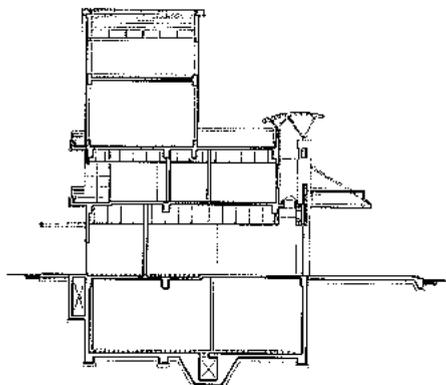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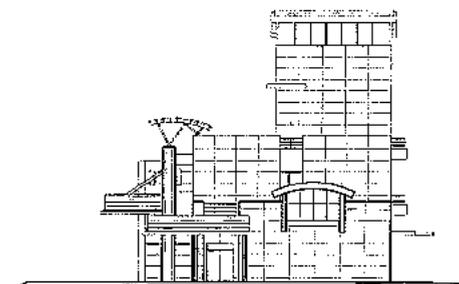


층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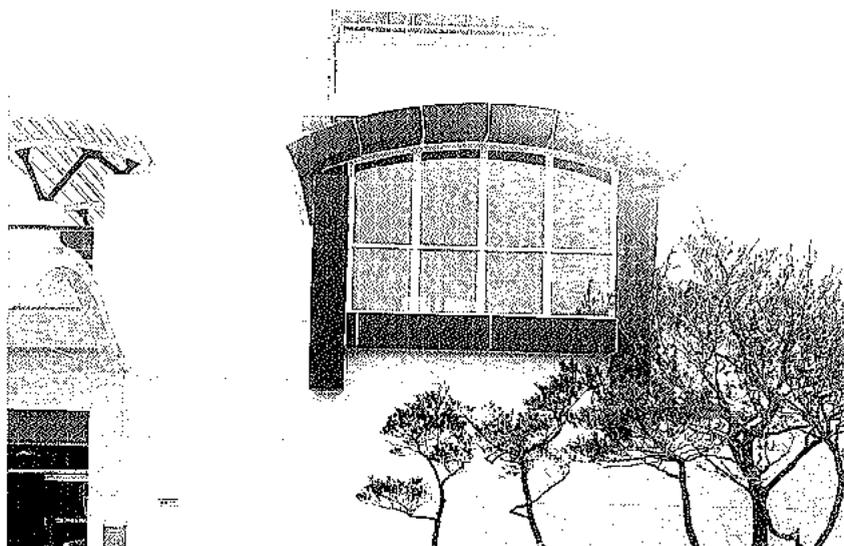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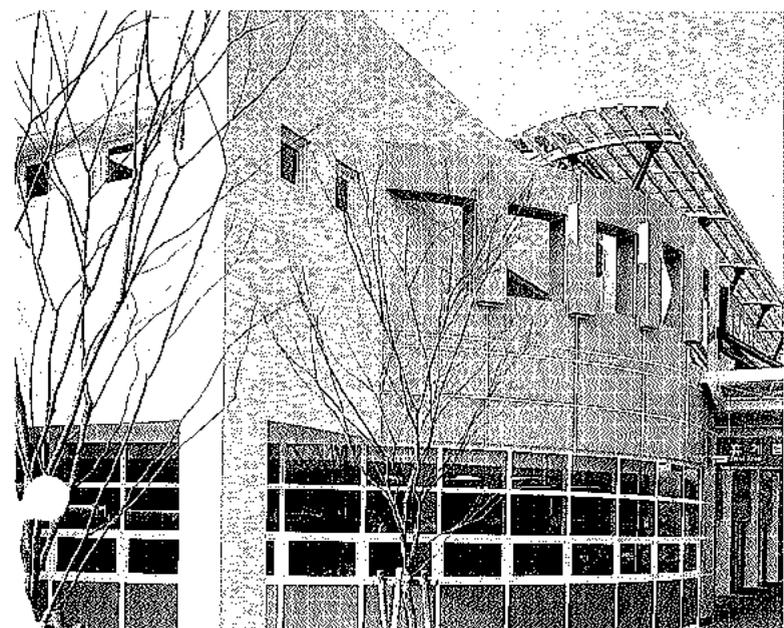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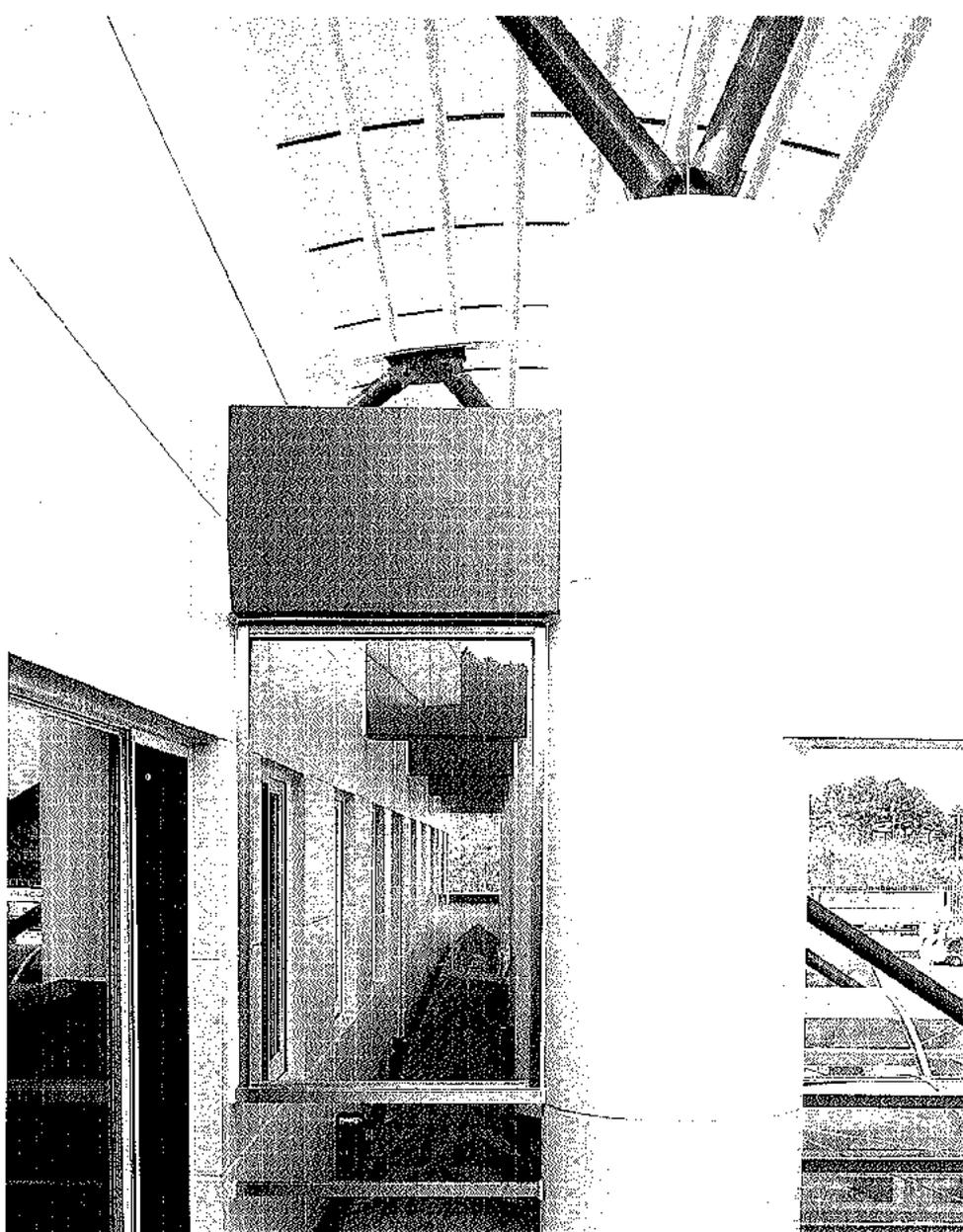




중단면도



우측면도



북한 지역건축탐방을 읽고서

Reading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of North Korea'

김학철 / 한동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AIA, NCARB

by Kim Hak-Chul

2회에 걸쳐 연재된 건축사지 「태미기획/지역건축탐방-북한」편은 북한지역 건축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북한의 건축을 하나의 '지역문화' (Regional Culture)라는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다. 건축에 관련된 북한 간행물이 극히 적은데다 일반인의 접근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 많은 자료가 탐방자들에게 의존해야했던 현실이 좀 안타까웠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4대합의 사항의 6.15선언이 발표된 이 시점에서 볼 때 건축분야에서도 통일을 대비해야하는 긴급한 현실적 요구가 있으며 따라서 이 연재가 준 의미는 크다. 더구나 북한건축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논의가 남쪽에서 한번도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 연재가 주는 비중은 더욱 크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대비 할 것인가? 이 연재를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나름대로 정리해본다. <필자주>

인격의 만남

통일대비의 전제조건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Perspective)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에 주어진 현실 상황과 여건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먼저 세계인의 관점으로 한반도를 바라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을 북한의 안경을 통해 보는 것이다. 마치 남쪽의 것들을 남쪽의 안경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다음에 통일의 문제를 세계관점(Global Perspective)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한다.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들을 볼 때에 체제적인 변화가 하루 속히 와야한다는 긴박감을 준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동족들을 볼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커녕 오히려 장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이 더욱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 북한의 주어진 체제를 인정함은 물론 더 나가서 체제유지에 남쪽이 힘을 담아주어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해야된다. 이런 논리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남쪽의 경제원조 내지 협조는 경제안정보다 정치안정에 더 큰 의의가 있을지도 모른다. 역설적인 논리 같지만 평화통일의 기반이 양측의 정치안정에 달려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대 원칙 때문이다. 주체라는 깃발아래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북한경제를 파멸에 빠뜨렸으며 역사상 보기 드문 독재정치를 감행했고 하고있다. 김일성이 6.25동란을 통해서 저지른 죄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해도 용서의 여지를 찾지 못한다.

이 동란을 겪은 세대면 누구나 부인 못할 것이다. 가슴에 맺힌 한을 씻을 길이 없다. 그렇다고 이 한 많은 가슴만을 안고 국토가 분단된 채 살아갈 것인가? 그럴 수 없다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옛날의 안경을 벗어야한다. 현실을 현실의 안경을 통해서 봐야한다. 그리고 나면 많은 긍정적인 것이 보인다. 이렇게 될 때에 대립되어온 이데올로기 문제도 해결되고 통일의 실마리도 화해라는 안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논리는 남쪽의 건축계가

통일을 대비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생태철학

북한의 건축을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에 비효율적이며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생태마을'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보면 북한의 토지공유제도는 '생태마을' 만들어 나가는데 오히려 앞선 나라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꼴짜가 첫째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 동안 대립관계에서 서로 부정적인 면만 들어내오다가 안경을 바꾸니 긍정적인 면이 보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그 동안 펼쳐온 '도농균형' 개발정책과 '직주근집' 체계 등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한다는 생태학적인 원리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남쪽에도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특히 건축계를 보면 더욱 그렇다. 생태계가 완전히 무시된 전국도 도시개발 현상을 보면 첫째가 꼴짜된 꼴이다. 남쪽에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설계에서 생태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요즘 환경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북쪽에는 환경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공해가 없는 나라"라고 선전해온 것과는 달리 무절제한 공장운영에서 오는 수질 및 대기오염, 다량발생과 새땅찾기 운동에서 오는 자연훼손, 이런 결과에서 오는 갖가지 공해병 문제가 크리라고 본다. 양쪽이 나름대로의 환경문제를 안고 있으나 도시 및 건축에 관한 한 북쪽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논의할 때에 잘못된 점만 꼬집는 행위는 통일이라는 과업을 놓고 볼 때에 아무런 도움이 아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이 과업을 수행하자면 평면적인 위치에서 보는 2차원적인 관점이 아닌, 양쪽과 세계를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3차원의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북한을 그리고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눈 높이를 높이지는 것이다. '도토리 키 재기'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 높이를 높인다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와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이 나름대로의 체제형성과 이의 변화과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국제적 환경 속에서 서로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남북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통일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주어진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북한

의 건축도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은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통일 후에 올 변화의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 후에도 어느 기간까지는 남북한이 각기 현 체제를 유지하는, 즉 남쪽의 토지사유제와 북쪽의 토지공유제를 동시에 인정하는 체제통합을 의미한다. 통일 후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남쪽이 갖고있는 토지사유화제도로는 효과적으로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왕에 북쪽이 갖고있는 토지공유화제도를 개발과 생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의 주인인 국가가 이의 공권력을 이 방향으로 동원할 때 그 가능성은 크다.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있는 토지사유제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남쪽에서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의 활용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자본주의사회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귀결이다. 한가지 체제로 전환하기보다는 두 가지 체제가 통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가까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동구의 사회주의권이 경험한 체제전환, 통일독일이 경험한 체제통합, 그리고 중국이 겪은 체제개혁 등이 그것이다. 토지공유제도에서 즉각적인 사유화로의 전환은 많은 부작용을 반한다. 따라서 국가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인에게 토지를 장기로 공공 임대해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국가는 토지소유권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한편 그 개발이 생태 보존(保存) 및 보전(保展)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사회주의의 평등을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원리는 생태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사회의 체제를 자기 쪽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보전(保展)적 상생(相生)원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당히 절충한 소위 복지국가 혹은 시장사회주의와 같은 제3의 수정자본주의와도 다른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관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공간적 개념으로는 인간과 자연과의 고리(綱)를 찾아서 자연(SITE)을 보호(保護)하고 발전(發展, CELEBRATE)시키는 것이며,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대치하지 않는 탈 근대적 문명전환을 지향하는 생태주의적 보전(保展)개념을 확립함을 말한다.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2)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Wonrim Architecture of China

한동수 / 안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 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 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불문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이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필자주)

〈연재목차〉

1. 시대적 풍격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여화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즐정원
10. 새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¹⁾

중국 봉건사회형태의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통일된 종법(宗法) 대제국(大帝國)과 군주(君主) 집권 제도(集權制度)가 진한 이래로 2천여년간 지속되어왔다는 점이다. 사회형태의 모든 요소는 경제, 정치, 윤리, 문화적인 것을 막론하고 모두 황권(皇權)의 영향하에 놓여져 독립적인 발전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특징은 개인적인 발로에서 혹은 우연한 이유에서 생겨나온 것이 결코 아니며 경제기초라고 하는 사회활동의 가장 두터운 토양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장기간에 걸친 중국 봉건시기의 경제구조는 시종일관 통일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봉건사회에서의 도시와 농촌은 서로 분산된 경제단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제구역과 경제부문이 국민경제의 전

체 틀 속에 얽혀서 통일된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중국 봉건시기 경제구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으며 정치 관계 내지 모든 상류건축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한편 사회조직을 형성하는 구성원 가운데 사대부에 대한 봉건집권제도(封建集權制度)의 제약은 다른 어떤 계층에 비하여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봉건사회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황권의 영향하에 있는 천하의 모든 백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만일 그들이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대통일의 종법제도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사대부 계층에 대한 집권제도의 절대적인 제약에 일단 장애가 생기면 사회 전체는 즉각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제약은 종법(宗法), 과거(科擧), 관제(官制), 정교문화(政敎文化) 등과 같은 관습적인 방법을 통하거나 당파(黨派), 금기(禁忌), 문자(文字)의 옥(獄)²⁾과 같은 보충방식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그것은 중국 봉건사회의 메카니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사회형태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각 계층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기본조건을 보장해 주었으며 황권의 전제(專制)와 통치계급, 사회전체의 이익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극복하고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봉건사회형태가 지속하게 되는 기본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대부 계층의 상대적인 독립은 사회구조상 필연적인 요구였으며 집권제도의 성질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을 빌어 그 정도가 대단히 유한(有限)함을 결정지었다.

이것은 사대부로 하여금 일종의 고도로 발달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을 찾거나 창조하여 자신의 상대적인 독립이 사회구조에서 어느 정도 필요함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바로 은일문화(隱逸文化)이고 원림, 산수화, 전원산수시의 형식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여기에는 사대부 자신만의 독특하고 풍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하나의 완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2.1 은일문화(隱逸文化)의 발전

은일문화의 목적은 사대부가 상대적으로 독립된 사회이상, 인격가치, 생활내용, 심미적 정취등등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은일문화의 발전 초기에는 출(出)과 처(處), 사(仕)와 은(隱)의 상대적인 개념속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사대부 계급이 종법제도에서 이탈하여 집권 국가에 속하는 첫날부터 그것은 시종 그들의 인생길에서 으뜸가는 과제였다. 일찍이 공자와 맹자 시대에도 이러한 모순은 피할 도리가 없었다.

사은출처(仕隱出處)³⁾는 사대부의 정치이상의 실현여부를 결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봉록(俸祿) 및 생사(生死)와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은일문화와 사대부의 상대적인 독립지위는 그 기원이 빨랐기 때문에 쉽게 형성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원인은 진한이라고 하는 대통일 집권국가의 건립에 따른 것으로서 은일문화는 집권체계에서 진정으로 필수불가결한 조성부분이 되었다.

사대부는 자신의 상대적인 독립지위가 집권

1) 이 글의 주요부분은 왕의(王氏)의 저서인 『園林與中國文化』(상해인민출판사, 1990년)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 둔다.
2) 글자로 인한 죄를 가리킴. 관학이라고도 함.

3) 사의 출은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하고 은과 처는 돌아와 은거하는 것을 말한다.

체계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사대부 문화에 대한 황권의 깊은 관심은 둘 사이의 친화(親和)를 촉진하였으며 쌍방의 조절관계는 갈수록 자유자재로 운영되었다.

수당 이후, 문벌사족이 점차 쇠락하면서 봉건중앙집권제도는 상대적으로 성숙하였다. 정치 영역에서의 이같은 중대변혁은 집권제도와 사대부 계층의 관계에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과거제도가 만들어졌다. 과거제도와 중앙집권국가의 강화는 사대부와 황권이 예전 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따라서 사회의 시스템도 더 많은 사대부들이 은일문화에 정통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요구는 사대부와 황권제도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한편, 둘 사이의 모순은 비로서 적절한 평형관계를 얻게 되었다. 성당시기에 이르러 사(仕)와 은(隱)은 완전히 함께 성숙하게 됨으로써 후자를 떠난 전자의 성숙은 단독적인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한대의 특징이 일체를 강대함을 멸시하는 것이라면 당대의 특징은 일체의 성숙함을 포용하는 것이었다. 한당 문화의 이같은 차이는 집권제도가 사대부 계층의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똑같이 드러났다. 따라서 한대의 황권이 은일문화에 대하여 보인 강력한 억압과는 반대로 당대의 황권은 관대함과 보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당대 이후, 황권의 은일에 대한 장려 및 은일을 입사(入仕)의 준비와 보충으로 여기는 사대부의 보편적인 생각은 은일문화와 원림예술의 보급 및 발전을 직접적으로 촉발시켰다. 초당과 성당시기 수 많은 은자들 가운데 노홍(盧鴻)⁴⁾은 주목할 만한 사람이다.

4) 노홍(생몰년 미상): 당나라 시기의 짜기르서 오늘날의 허북성 랑주에서 태어나 낙양으로 이주하여 송산에서 은거하며 살았다. 조정에서 여러차례 불렀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개원시기(開元時期: 713-743년) 황제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은자(隱者)였다. 그가 쓴 『송산십지십수(嵩山十志十首)』에는 산, 물, 건축이 고루 갖추어진 원림의 경관과 자연을 숭상하고 그 지형을 충분히 활용하여 경관을 만드는 사대부 원림의 원칙이 잘 묘사되어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한 사대부의 상대적으로 독립된 인격, 가치관, 미학관념을 원림예술의 영혼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대부 계층은 자신들과 집권제도의 관계, 은일이론 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에서부터 원림의 첩산리수기법(疊山理水技法), 회화의 산수공간 관계, 시가의 소리인식 같은 형이하학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파악하여 하나로 융합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난 원림, 회화, 시가는 단지 재능에 불과한 것으로 심오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는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것이 원림의 경우라면 문학, 회화, 현학, 음식, 음악 등과 어우러져 하나의 완전히 통일된 문화체계를 이루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했을 것이다.

송대에는 이학(理學)의 영향으로 이론에서부터 생활예술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영역에서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은출처의 평형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이 당대보다 더욱 많았다. 은일문화에 대한 이학(理學)의 인식은 전체 사대부의 발전사의 결과로서 송대 이학가들은 비로소 역사로부터 사은출처의 관계를 토론하였다.

또한 사대부의 인격에 관한 이론은 이학에서 관건이 되는 문제로서 사은출처 대한 인식은 필연적인 결과이고 보충적인 것이었다. 원명칭의 사대부들 역시 사은출처의 문제를 늘상 마음 속에 품고 언급하면서 전 시대의 은자들을 생각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봉건집권제도가 존재하는 한 은일문화는 그 존재의 이유를 절대로 상실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전의 은자들이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은자들은 더 이상 어떤 신의(新意)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으며 그저 과거의 영광을 탐독해 보는 정도에 그쳤다.

2.2 은일문화의 집합체로서 원림건축

중국봉건사회의 구조 속에서 은일문화의 역할과 지위는 대단히 분명하며 중국 고전 원림건축이 고도로 발전한 이유도 그 속에 담겨있다. 자연의 분위기로 충만한 주거 환경인 원림건축은 사대부가 은일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었으며 은일문화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게 된 기초였다. 원림예술의 성숙과 사대부의 은일에 대한 풍조의 발전은 서로 표리적인 관계이다.

유안(劉安)이 『초은사(招隱士)』에서 묘사한 어둡고 음습한 환경 속에서의 은일문화는 사회의 메카니즘이 필요로 하는 발전정도에까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대부 계층은 자신에게 상응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추구하지 않으므로써 당송 이후 원림예술의 발전도 가장 주요한 원동력을 상실하였다. 맹교(孟郊)⁵⁾는 일찌기 사대부 원림의 역할을 '공동은 비범한 향촌이고 봉래와 영주는 선계에 있다.

말없이 멀리서 존중되는데 이 어찌 사람에게 필적하겠는가(惝恍非凡鄉, 蓬瀛在仙籍. 無言從遠尚, 茲焉與趾敵)'라고 갈파하였다. 공동⁶⁾과 봉영⁷⁾과 같은 유형의 비현실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은 현실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대부의 원림예술은 비로소 운영되어 흥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대의 장형(張衡)⁸⁾과 중장(仲長)⁹⁾에서부터 명청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사대부들은 이러한 뜻을 수도 없이 말하였다. 따라서 중국 봉건사회형태와 사대부 계층의

특징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중국 고전원림건축의 실질적인 모습에 근본적으로 접촉할 방도는 없다.

원림과 사대부 문화예술체계의 관계를 보면 전자의 지위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대 중국에서 주거환경이 사대부 문화예술활동의 가장 주요한 장소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대부의 문화예술이었던 시(詩), 화(畫), 금(琴), 기(棋), 차(茶), 주(酒), 병(病), 라(懶) 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의 핵심은 모두 상대적으로 독립된 사대부의 인격, 정신, 정서등에 대한 추구였기 때문에 이러한 추구의 모든 구체적인 형식은 산수를 즐기는 사대부의 고상한 기호와의 공명(共鳴) 속에서 비로써 발견되고 자기 존재의 의의를 부단히 강화할 수 있었다.

사대부의 독립된 지위에 대한 상대적인 추구가 산수를 즐기는 고상한 기호(嗜好) 속에서 가장 충분히,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원림이 은일문화 속에서 시종일관 다른 모든 분파의 기초가 되는 것을 결정하였기 때문이었다.

5) 맹교(751-814): 당대의 시인으로 자는 동아(東野)이며 지금의 절강성 덕청현 사람이다. 젊어서 송신에 응거생활을 했으며 한유와 교제를 하였다. 한유는 그를 일러 위진 시대를 능가할 정도로 무자런하여 삼고시대에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6) 산동성에 있는 설의 이름이다.

7) 장설에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삼신산의 하나로서 불래, 영주를 말한다.

8) 장형(78-139): 동한 시기의 과학자이자 문학자로서 지금의 해남성 남량사람이다. 천문, 음악, 역법에 조예가 깊었으며 그의 우주관측관은 주로 천문학이다. 하늘과 땅의 관계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계절노름가를 써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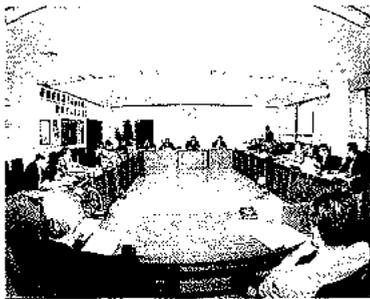
9) 중장(160-220): 동한 시기의 사람으로 자는 공리(公理)이며 지금의 산서성 고평현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으며 성격이 호발하고 기개가 있어 때로 사람들은 그를 망탕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다.

협회소식 / 68
건축계소식 / 69
계획작품 / 77
현상설계 / 80
해외잡지동향 / 83
법령 / 89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96
회원현황 / 98
건축사 자격시험 공고 / 99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명단 / 100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6회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000년도 제6회 이사회가 지난 5월 16일에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5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특별대책위원회운영규칙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주요골자: 제3조(운영기간) 필요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단서 삽입, 제8조(업무처리절차) 이사회에 회부하고 총회에 보고토록 문구 수정)
- 제2호의안: 건설기술자 전문교육기관 반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를 교육할 목적으로 97년 12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으나, 건축교육원의 사실상 폐지로 전담기구 및 인

력이 없고, 교육에 따른 강의실 및 부대시설 미확보 등의 이유로 교육기관지정을 자진 반납)

- 제3호의안: 장례보조금 지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본협회 제4대회장을 역임한 강명구회장의 별세에 따른 장례보조금으로 4,753,000원을 지급)
- 제4호의안: 협회 홍보브로슈어 제작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제작부수는 예산범위내에서 늘리기로 함.

〈협의안건〉

- 제1호: 강원도건축사회 자금대여 요청에 대한 협의
- 강원도건축사회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협회에서도 지원방안을 연구해 보기로 함.

건축사예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예비시험합격자 962명

건축사예비시험이 지난 5월 14일(일) 실시한 2000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6월 22일 발표됐다. 올해 예비시험 결과 총 3,373명의 응시자 중 962명이 합격예정자로 선정되어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됐다. 이는 전체 응시자중 28.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해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합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은 오는 9월 3일 실시된다. (본지 99쪽참조)

2000 한국건축문화대상 개최

이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대폭 개선해 우리 협회가 주최·주관

올해부터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 및 주관기관으로 행사 전반을 운영키로 하였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개최하여 왔으나 비전문가의 심사참여 등 건축계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여러차례 개선과 그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협회 또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는 더 이상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작년(1999년)행사의 시행주체에서 탈퇴 하였다.

그러나 불합리하게 운영돼온 행사전반에 대한 건축계의 지적과 우리 협회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서울경제신문사는 99년도 행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대해 건축사는 작품출품거부와 심사위원참여 기피 등을 통해 행사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99한국건축문화대상은 일부건축사와 건설업체만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작품출품물이 저조해 행사전체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서울경제신문사에서는 건축계의 행사인만큼 전문가단체의 참여없이 행사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우리 협회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협회는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것을 전제로 올 행사에 참여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심사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전문가중심으로 우리 협회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협회가 부담하던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아울러 행사의 제반업무를 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총괄하게 돼 앞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이 한국건축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행사내용에 있어서도 상업성이 배제된 투명하고 공정성있는 명실상부한 건축계의 대제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작년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계획건축물부문(신인·학생)도 올해 새롭게 계획되었고, 주제 또한 현실성 있는 참신한 주제를 통해 작품을 공모키로 해 건축계의 후진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올해 준공건축물부문 및 계획건축물부문의 작품공모가 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10월중 수상작에 대한 전시가 있을 예정이다.

(앞쪽 작품공고 광고 및 76쪽 참조)

건축계소식 archi-net

100평미만 건물도 건축사 설계 의무화

30평미만은 설계, 감리없어도 신고만으로 가능

100평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되지만, 신고 대상이라도 30평이상 100평미만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고 건축사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건축법시행령을 관계부처 협의에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국무총리실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신고대상 건축물 범위를 연면적 100평으로 확대하면서 건축사의 설계만 의무화하고 감리는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관련해「신고대상을 100평으로 확대할 경우 대부분의 단독주택과 상당수의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며, 「이 경우 불법 부실 건축물 양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감리도 받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단, 연면적 30평미만 건축물의 경우는 종전대로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없이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됐다.

건축사법시행규칙 개정

건설회사 소속 건축사의 설계범위 확대 등

'자가용건축물'만 설계할 수 있었던 건설회사 소속 건축사의 설계범위가 넓어져 앞으로는 '소속 건설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건축물을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시설로서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는 업무시설'까지 설계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을 지난 5월 22일 공포했다.(본지 89쪽 참조)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 규칙 개정

5월 22일 공포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경과조치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부터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구조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전에는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최근의 연구결과와 기상통계자료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경상남북도 등을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에 추가하고, 강원도 북부지역을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제외됨

▷ 종전에는 15층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5층이상 14층이하인 아파트와 동일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15층 이상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5층이상 14층 이하인 아파트보다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는 숙박시설 오피스텔 및 기숙사의 범위를 6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확대함.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각종 하중 및 외력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본지 92쪽 참조)

제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6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난 6월 17일 개막한 제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 서울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이 출품됐다. '도시(The cities: Less aesthetics, More ethic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한국관 전시기획을 총괄한 김석철(아키반건축)커미셔너는 "서울의 원형을 최초로 세계에 공개하고 보행자 중심의 사대문안 도시계획을 제안하는 한편 서울을 한강을 중심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유기적 질서의 도시로 재창조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관 전시기획의 주제는 '서울-윤리의 도시, 자연의 도시'이며, 최민(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조건영(기산건축), 이상해(성균관대 건축과교수), 안건혁(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이상현(이화여대 건축과 교수), 김동건(건축가)씨 등이 참여했다. 국가관 전시는 이태리 베니스

비엔날레 공원(카스텔로공원)에서 열리며, 이외는 별도로 베네치아 아르세날레에서 개최되는 본전시에는 승효상(이로재), 민선주(위기건축)씨가 초청받아 참가한다. 이번행사는 오는 10월 29일까지 4개월여간 계속된다.

'이 시대 건축의 공공성'을 주제로 열

건축가협회, 제19회 대한민국건축대전

1차 작품접수 9월 6일

리는 올 해 대한민국건축대전의 개최요강이 발표되어 1차작품접수를 오는 9월 6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전시될 이번 행사는 건축가초대전과 일반공모전으로 나뉘어 개최된다. 일반공모전의 출품자격은 대한민국 국민(1인 1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응모작품은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구조, 실내디자인, 조경 기구 등 건축도시설계에 관계되는 작품)으로 하되, 주제(이 시대 건축의 공공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심사는 김석윤, 민선주, 방철린, 이상림, 이성관, 이종호, 조성룡씨 등이 맡는다.

▷ 작품마감

- 초대전: 11월 21일

- 일반공모전: 9월 6일

▷ 작품규격 및 제출요령

- 1차: 원서 및 작품계획안(가협회 소정양식), 등기우편접수가능, 우편접수는 지방에 한하며, 우체국 소액환(4만2천원-원서비,반송우편료)을 동봉하여야 함.

- 2차: 패널90cm×180cm 이내, 모형 90cm×90cm×90cm 이내로 유리, 플

라스틱류 등 반사재료 사용불가

▷ 심사일정

- 1차예비심사: 9월 18일~9월 20일

- 2차본심사: 11월 21일~11월 22일

- 3차공개심사: 11월 23일

▷ 원서대금

- 1차: 4만원

- 2차: 3만원

▷ 문의: 전화02-744-8050

http://www.kia.or.kr 및

http://www.arick.or.kr

제12회 대전건축상 작품공모

9월 14일 작품접수

2000년도 제11회 대전광역시건축대전 및 제12회 대전광역시건축상 작품공모 및 수상작 전시계획이 발표됐다. 한국건축가협회 대전지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14일 접수를 받아 9월 16일 심사를 거쳐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전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 출품자격

- 건축대전부문: 제한없음

- 건축상부문: 응모대상건축물의 건축사 및 시공자(건축사 및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사 및 시공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 주간사를 원칙으로 함)

▷ 대상작품

- 건축대전부문: 건축(탑포함)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으로 주제는 자유로이 하되 작품당 작가의 명의로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축상부문: 1999. 9. 10.~2000. 9. 14.까지 시공완료된 대전광역시 관내 건축물(주용도)로 건축상에 응모한 적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대상 또는 같은법 제25조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

▷ 작품규격

- 건축대전부문: 패널 100cm×200cm 이내, 모형 90cm×90cm×90cm이내

- 건축상부문: 패널 90cm×180cm(2매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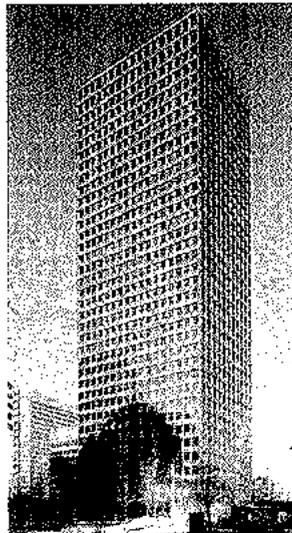
▷ 제출서류: 응모신청서1부(건축상은 타시도 등록 건축사, 건설회사의 경우 등록확인 서류첨부)

▷ 신청서교부: 2000. 7. 1.~9. 14.

▷ 문의: 042-256-0004, 522-3314

제7회 포스코강구조 작품상

금상에 SK빌딩(서울건축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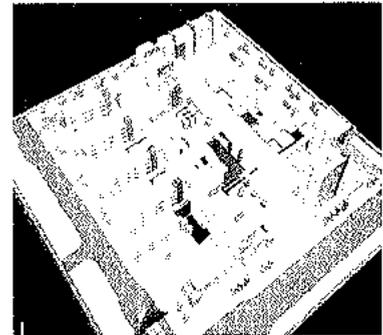
SK빌딩

(사)한국강구조학회에서 주관하고 포항제철이 후원하는 포스코강구조작품상의 올해(제7회) 수상작이 발표됐다. 금상에는 SK빌딩(서울건축)이 선정됐으며, 은상에는 한탄대교(기산엔지니어링), 종로타워(비논리+삼우설계)가, 동상에는두산타워(우일건축), 정산교(유신코퍼레이션), 서강대창업보육센터(진아건축)가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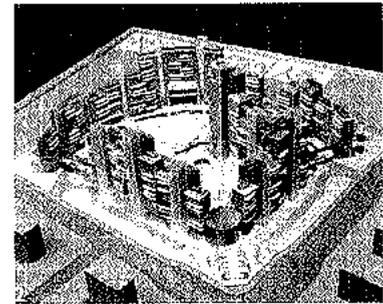
특별상으로는 석관동우체국(간삼건축)이 선정됐다. 강구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수한 강구조물 건설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둔 이 상은 강구조물, 교량, 철탑, 해양구조물, 고층건축물, 특수건축물,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강구조의 효율성과 구조미가 우수하거나 신강종 사용 및 강재 이용기술이 뛰어난 건축물에 대해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모두에게 상이 주어진다.

제7회 공동주택학생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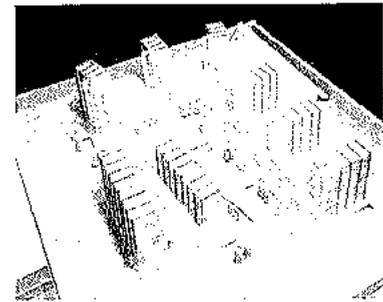
대상에 건국대학교원 이정완, 백충현, 윤일도의 「Green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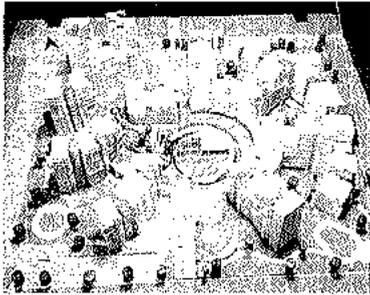
대상 - Green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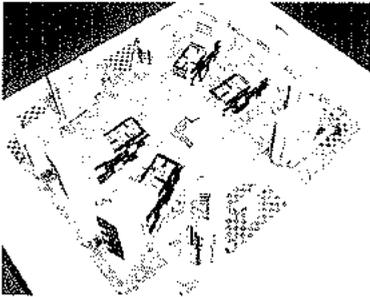
우수상 - 함께 나누어 갖기



우수상 - 연, 개



가작 - Circulation



가작 - 카오스

(주)현대산업개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학생공모전의 올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충정로 문화일보사옥 갤러리에서 입선작 전시회를 가졌다. 7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총 184개 팀이 응모한 결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이정완, 백충현, 윤일도의 「Green Community」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경원전문대학 장희임, 최정환, 장준영의 「함께 나누어 갖기」, 울산대학교 조성민, 장병균의 「연, 개」, 가작에는 대전대학교 엄원웅, 최윤정, 김홍욱의 「카오스」, 울산대학교 이도학, 김영기, 조재천의 「Circulation」, 홍익대학교 김지용, 이종훈, 선종백의 「Make the Better Place」가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도 장려상 4점, 입선작 40여점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는 이특구 서울시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진균(서울대), 김영하(단국대), 김형우(홍익대), 김병선(연세대), 이강업(한양대), 임창복(성균관대) 교수와 김우성(아키펠랜), 최영택(현대산업개발)씨가 맡았다.

원정수 인하대 명예교수, Hon. FAIA에 선임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원정수(한국건축가협회 부설 건축학교 교장, 인하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씨가 미국건축가협회 원로회(FAIA) 명예회원에 선임되어 지난 5월 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건축가협회 총회에서 명예회원증을 수여받았다. 미국건축가협회 원로회 명예회원은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건축가들 가운데 뛰어난 건축설계작품과 함께 건축계에 특별한 공헌 및 업적을 이룩한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故) 김수근, 이광노(서울대 명예교수), 장석웅(아도무건축)씨가 명예회원에 선임된 바 있다.

제4회 MBC 건축박람회 개최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문화방송이 주최하고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4회 MBC건축박람회가 오는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 열린다. 유익한 건축 및 인테리어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에 마케팅 장소제공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전시는 건축자재전, 건축공구전, 인테리어전, 전원주택전, 조경 및 DIY제품전, 배관기자재전, 보안 및 방범기기전, 부동산분양 및 건축정보전으로 꾸며진다.

서울건축학교 2000 summer workshop

변화의 시작과 새로운 풍경 /
오늘의 자리에서 - 江景發見

프로젝트 대상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일대

기간 : 2000 08 05(토) - 2000 08 12(토) 7박 8일

참가대상 : 학생 100여명 내외(국내외 대학 건축학과 및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접수 : 2000 05 08(월) - 2000 06 30(금)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등록비 : 28만원

접수처 :

서울건축학교 학무국(02-763-0471)

인터넷(www.saschool.or.kr)

강경을 아는가? 또다른 역사가, 또다른 풍경이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강경을 아는가?

한때 금강 수운의 거점인 강경포, 근세 초기 새로이 정비된 제방과 내항 수로들로 이곳의 지층은 형성되어 있었다. 이어지는 시간 속에 철도와 신작로 그리고 대규모의 도정 공장들과 새로운 양식의 건물들이 근대 도시의 풍경을 옛지층 위에 더해져 나갔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반세기 이상을 고요히 흘러온 이 지층들 위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풍경들과 우리가 확보해야 할 도시적 전망을 함께 점검하고 꿈꾸려 한다.

코디네이터 : 이종호 (스튜디오 메타)

스튜디오 튜터 : 권문성, 김광수, 김병운, 김석운, 김영섭, 김영준, 김원, 김인철, 김종규, 김현, 김홍일, 민선주, 민현식, 서혜림, 승효상, 양남철, 오섬훈, 윤평현, 이상립, 임재용, 정기용,

조성룡, 최문규, 최욱, 한만원, 히로시
인나미

공개크리틱 : 2000 08 11(금) 0900
- 1700

크리틱 : 김광현(서울대), 김병현(장건
축), 김봉렬(예술종합학교), 김성홍
(시립대), 박길룡(국민대), 윤승중(원
도시건축), 이범재(단국대), 최관영
(일건건축)

이벤트 : 영화세미나, 답사 등

전시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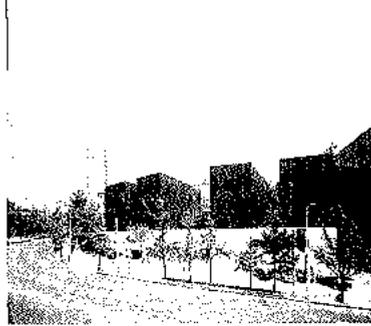
2000 08 26(토) - 2000 09 02(금)
/ 서울건축학교 전시실

2000 09 09(토) - 2000 09 16(금)
/ 강경음사우소

후원 : 한국건축역사학회,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제11회 김수근 문화상

웰컴시티(승효상 作) 선정



웰컴시티

올해로 11회를 맞는 김수근문화상에
「웰컴시티/승효상」를 선정하고 지난 6
월 14일 공간극장에서 시상식을 하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올 해 본 심사에
추천된 작품은 <국민대 국제관/최관영
>, <신도리코 본사 및 서울공장/민현식
>, <에스케이 신사옥빌딩/김중성>, <연
세대 포스코브리지/포스에이시>, <로
댕 갤러리/삼우건축+케이 피 에프>, <
해군사관학교 교회/김중석>, <데이콤
빌딩/이성관>, <웰컴시티/승효상>, <운

수리 우리 마을/조병수+헬렌박>, <서
울시청 직장 어린이집/서혜림> 등 10
점이었다. 심사는 김병현, 민현식, 박
길룡, 조성룡씨가 맡았다. 올 해 수상
작으로 선정된 웰컴시티는 도시의 건
축이 하나의 오브제로 고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상황과 건축이 놓여지는
장소에 대한 고민과 의지가 실험적이
며 도전적 자세로 태어난 좋은 예로써
자본의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도시적 맥락을 존중하면서 일관된 공
간 어휘를 구사한 매우 값진 가치를 우
리에게 드러내 보인 작품으로 평가됐
다. 웰컴시티를 설계한 승효상(이로
재)소장은 이미 1993년 수주당으로
이 상을 수상한 바 있으나, 심사기준이
작가가 최근 완성한 작품에 대한 평가
라는 관점을 확인하고 작가에 대한 재
수상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수상작가
에 대한 작품전도 있을 예정이다.(문
의: 김수근문화재단02-763-0471)

제11회 김수근 건축상 심사후기 (심사위원 : 김병현, 민현식, 박길룡, 조성룡)

김광현, 김봉렬, 김준성, 이종호 씨 등으로 구성된 김
수근문화재단 건축전문위원회에서 본 심사에 추천된
작품은 <국민대 국제관/최관영>, <신도리코 본사 및 서
울공장/민현식>, <에스케이 신사옥빌딩/김중성>, <연
세대 포스코브리지/포스에이시>, <로댕 갤러리/삼우건
축+케이 피 에프>, <해군사관학교 교회/김중석>, <데
이콤 빌딩/이성관>, <웰컴시티/승효상>, <운수리 우리
마을/조병수+헬렌박>, <서울시청 직장 어린이집/서혜
림> 등 10점이었다.

지난 10년간 시행해온 김수근 문화상 의 성격과 의
의, 그리고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상이 제정된 이래 사회적 변화도
두드러지게 달라지고 건축계의 의식적인 흐름에도 변
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심사기준으로서 창의성, 시대성, 한국성에 대한 추구
와 작업의 완성도 그리고 기술적 성취와 아울러 도시,
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명확하여야한다는 점
에 심사위원들은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이 상은 작가가
최근 완성한 작품에 대한 평가라는 관점을 확인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이미 이 상을 수상한 작가에 대한
재수상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앞서 열거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의 작품에 대한 심
사가 진행되었고 논의 끝에
<신도리코 본사 및 서울공장>, <웰컴시티>, <서울시청
직장 어린이집>, <에스케이 신사옥 빌딩> 등을 우선 선

정하고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신도리코 본사 및 서울공장>의 경우 작가 자신이 심
사위원이므로 본인의 의견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서울시청 직장 어린이집>은 설계장기를 통하여 실현
된 수준작이었고, 부족한 공사비와 현장 조건 등 어려
운 여건임에도 어린이를 위한 교육시설로서 독특한 프
로그램과 새로운 조형언어로 도전하여 다양한 공간을
구성한 점이 돋보였다.

<에스케이 신사옥빌딩>은 무교동 재개발지역에 세워
진 오피스 빌딩으로서 작가의 일관된 기술 미학적 접
근이 돋보였다. 사무공간축의 정통적인 공간구성 방법
과 세련된 커튼 월 설계, 비례와 균형의 아름다움에 대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웰컴시티>는 주택가에 붙은 경사지로서 남쪽으로 대
학캠퍼스를 바라보는 대지에 세워진 광고 전문회사 사
옥이다. 계획에서 실현까지 사회변화와 건축주의 사정
에 따라 대지와 계획이 바뀌었지만 작가 자신 오랜 시
간동안 고뇌와 성찰의 흔적이 배어 있는 작품이다.

도시의 건축이 하나의 오브제로 고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상황과 건축이 놓여지는 장소에 대한 고민과 의지
가 실험적이며 도전적 자세로 태어난 좋은 예이다. 그
것은 자본의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도시적 맥
락을 존중하면서 일관된 공간 어휘를 구사한 매우 값
진 가치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인다.

그가 새로운 키워드로 제안한 '어반 보이드urban
void' 는 그가 지난 10여년간 구축하며 표현한 빈지
의 미학 으로부터 일탈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현대 도
시에 있어서 건축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장소에 이해
하고 공공적 성격을 추구하기 위하여 절제하고 비워내
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연속선상에 있으며 나아
가 도시에 대한 작가의 자세가 명확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하고 대범한 조형감각이 거칠어 보이지만 그 구성
은 매우 섬세하고 시점에 가득차있다. 경사지 지형에
순응하면서 만들어 낸 수평의 포디엄과 그 위에 얹은
네 개의 금속상자는 요란한 조형언어로 존재감을 나타
내려는 주변에 오히려 침묵하면서 새로운 도시 풍경을
만들어낸다.

크리틱이 가로를 따라 펴져 만나고 있다면 녹 선 내
후상 김판의 피마른 푸른 하늘과 만나 도시에 연속감
을 제공한다.

단순한 외부와는 달리 웰컴시티의 내부는 미로처럼 구
성된 하나의 도시이다. 기단 위에서 연결된 네 개의 상
자는 수직의 도시이다. 상자사이로 열린 공간은 내부의
연장이기도하고 도시의 경관을 이어주는 새로운 틀이
기도 하며 중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변하는
빛에 의하여 끊임없이 이어지는 유동적 공간이 된다.
오랜 시간 끝에 이루어낸 승효상씨의 작업을 심사위원
모두가 행복해하며 올해의 수상작으로 결정하였다.

서울건축학교 2000년 2학기 신입생 모집

8월 19일까지 접수

sa는 4년제 대학을 이수한 국내의 학생들과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젊은 건축가에게 열려있으며, 다음과 같이 2000년 2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 학기 : 2000년 9월 - 12월 (12주)
- 응시서류 :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졸업(예정)증명서, 지원서(소정양식)
- 접수 : 2000년 8월 19일까지 (1차 서류심사후 개별통보)
- 문의 및 신청 : 서울건축학교 학무국 (02-763-0471)
- 홈페이지 : www.saschool.or.kr
- e-mail : saschool@saschool.or.kr

신간안내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중국고전건축의 원리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이 책은 한국고건축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300여 가지 고건축 용어를 한 데 엮었다. 고건축물의 구조요소별로 주요 용어를 나누었으며, 200여 컷의 도면과 300여 컷의 사진을 첨가하여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각 부재를 하나하나 프리핸드스케치로도면화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각 부분 명칭 및 간단한 설명을 첨가하고 있어 한국건축 입문자 및 일반인까지도 한국건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 또한 고건축답사시 꼭 지나야 할 책으로서 답사현장에서 활용가치가 더욱 높다.

김왕직지음/ 271페이지/신국판/1만2천원/도서출판 발언 펴냄(02-929-3546)

▷중국고전건축의 원리



“화하의장” 이름처럼 생소한 중국건축을 소개하는 책이 “중국고전건축의 원리”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소개된다. 문자의 이해에서부터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게하는 기존의 “중국건축” 책과 달리 “고정된 틀과 엄격한 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동서건축교류의 서막을 신속하고 대담하게 전개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역자가 후기에서도 밝혔듯이 책의 번역을 시작하여 완역성되어 빛을 보기까지 10년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간의 조탁과정과 역자의 보강을 거쳐 더욱 완벽해지는 과정과 고층이 책에 고스란히 배어있음을 느낄 수 있다. “욕심껏 준비했다”는 감회와 같이 내용에 대한 검증과 번역오류에 대한 세심한 검토의 시간이 책의 완성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번역된 화하의장은 중국건축을 연구하고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현대판 영조법식이

라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며 (영조법식)에 버금가는 전문서라 생각된다”

김동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의 “(화하의장(華夏意匠)번역에 부처”란 글을 통해 이책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소개의 글을 요약해 본다. “화하의장”은 총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기본문제의 토론이란 과제를 가지고 중국의 문화와 건축, 중국건축과 서양건축, 건축사상과 정책, 목조건축의 발전에 있어 역사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비롯하여 중국건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뤘다. 제2장에서는 총석이란 제목으로 중국건축의 건축물 용어풀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해석하여 중국건축의 철학적 의미부여에 중점을 두었다. 제3장은 건축의 분류개설로 첫째, 건축성격, 주택, 궁전 등을 설명하였고, 두번째는 예제건축 불교건축, 상업건축과 과학기술에 관련된 건축물을 다루었다. 제3장부터 제 8장까지는 목조건축의 구성요소를 세분하여 각론적 성격의 건축해석을 시도하여 중국목조건축의 세부요소들을 파악하고 있다. 제4장은 건축의 평면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논하고 단독건물과 집합건물의 평면구성, 그리고 중국건축의 전형적인 평면형식과 배치내용, 순서의 안배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5장은 건축입면의 설명으로 건축입면구성, 조직, 전개 등을 기술하고 다시 입면을 세분하여 기단, 몸체, 지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제6장에서는 목조건축의 구조와 짜임에 대한 설명으로 구조와 짜임새의 설계, 구조의 변화, 재료선택과 표준에 관한 제정, 부재의 모양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제7장은 기둥, 초석, 공포 그리고(이하생략)”, 목차에서부터 설계자가 건축물을 대하는 일반적 사고의 흐름과 시각을 그대로 이어주고 있어 내용파악이 일목

요연하여, 과거 중국건축을 소개했던 어려운 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건축인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고전건축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원하지음/이상해 한동수 이주행 조인숙 윤희김/ 530페이지/2만2천원/(주)시공사 펴냄(02-588-0831)

제9회 김태수해외여행 장학제 수상자 선정

지정우(중앙디자인)

‘제9회 김태수 해외여행장학제’에서 지정우씨가 올해의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지난 5월 미국하트포드에서 1차 심사를 거쳐 4명이 선정되었고, 5월 24일 서울에서 본선진출자 4명과 최종인터뷰를 가진결과(1명은 유학중), 심사위원들은 지정우씨를 수상자로 결정했다. 지정우씨는 지난 6년 동안에 각종건축 및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였고, 도시문제 및 실내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폭넓은 관심과 일관된 태도가 주위를 끌었다. 김병현(장건축 소장) 심사위원은 지정우씨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결정적인 해결이나 완성된 창작보다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독자적인 사고와 그것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개척해 보려는 노력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건축인들과는 대조적인 태도라 평하였다. 지정우씨는 1997년 고려대학교 건축공학부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중앙디자인에 디자이너로 있으며, 1998년 ‘Outside Housing’ 현상설계에 당선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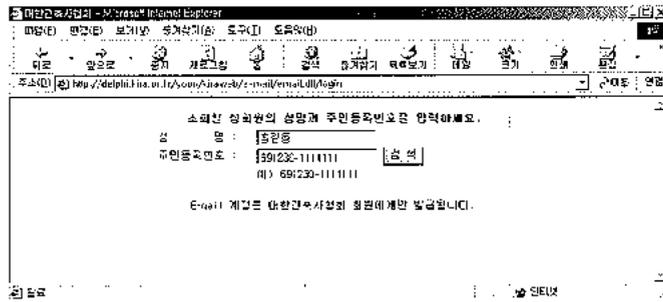
회원 E-Mail계정 서비스 개시 및 신청접수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협회에 등록된 정회원에 한하여 협회 인터넷을 통한 회원의 무료 E-Mail계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 접수가능하며, 가입후 다음 날부터 정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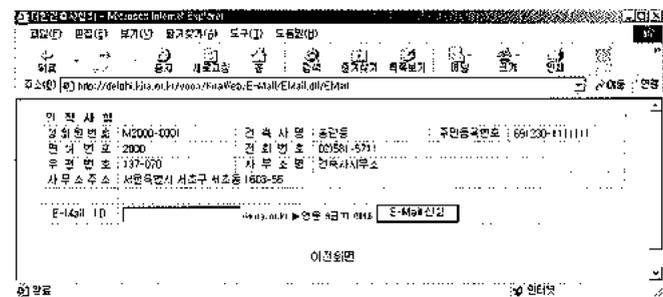
신청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KIRA.OR.KR로 접속한 후 첫번째 접속 화면상의 "E-Mail 계정신청" 란을 Click 한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면 됩니다. 사용가능공간은 각 계정당 3MB 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정보전산팀(02-581-5711)에 문의바랍니다.

신청방법 안내

1. 먼저 HTTP://WWW.KIRA.OR.KR 로 접속합니다.
2. 첫번째 화면에서 "E-Mail" 계정신청" 란을 선택합니다.
3. 잠시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난 후 검색버튼을 선택합니다



4. 만약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귀하의 기본사항이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E-Mail ID 난에 원하시는 ID를 입력하시고 "E-Mail 신청" 버튼을 선택하시면 바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만약 지정하신 ID가 이미 사용중일 경우엔 다른 이름으로 다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인적사항등 기타 위에 나열된 사항들이 실제의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각 시도건축사회로 연락하여 수정토록 협조바랍니다.
5. 신청을 완료하신후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정보전산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02-581-5711 ~ 4 정보전산팀)

「2000 한국건축문화大賞」 계획건축물부문 작품공모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분야의 실력있는 인재와 이 시대 건축의 표상을 발굴해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창달에 기여코자 마련된 건축제전입니다. 한국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나갈 한국건축문화대상에 학생 및 신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주제 : 한국의 텍토닉

주제설명: 이 시대의 에스페란토는 영어가 아니라 '과학기술'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자동차나 TV조작법은 전달될 수 있다.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의한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과 소외, 국가간 계층간 빈부격차의 심화 등 부작용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루소식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은 비현실적이다.

9세기 근대적 건축재료와 기술이 발전하고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기면서 건축과 기술은 한편으로는 의존적이면서 다른편으로는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 근대건축은 기계문명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면서 기계미학을 자신들의 주요 건축언어로 삼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결국 체제의 견고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술의 양연성을 간과한 나머지 형태적으로밖에는 근대성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유토피아 지향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건축은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기계를 직유법적으로 건축 형태언어에 도입하는 하이테크 건축은 물론이고, 매우 형태자율적인 해체주의 건축구조차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최신의 컴퓨터 공학과 기계공학을 도입한다. 건축은 기술을 통하여 현실화되지만 그렇다고 기술이 건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건축과 기술의 관계를 애매하게 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건축과 기술 문제에 대한 근대 이후의 질문은 아직도 확실한 답이 내려지지 않은 채 기술을 건축의 중요한 매타포로 삼는 측과 기술을 건축의 종속적인 것으로 삼는 측의 대립만이 존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하이테크나 해체주의의 첨단기술은 여러 측면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이미 보편언어가 된 기술을 한쪽켠에 밀어두고 건축만을 말하는 것 또한 우리 건축이 세계로 나가기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에서 건축과 기술의 적절한 관계는 무엇인가?

설계내용: 임의의 건축물 혹은 구축물을 설계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길 것.

- 1) 구조, 재료, 환경, 건설공법, 설계기법 등의 기술적 분야에 있어 한가지 이상의 현실적인 내용을 담을 것.
- 2) 이러한 기술을 채용함으로써 인해 건축적인 질, 즉 형태미, 공간감, 거주성 등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를 표현할 것.
- 3) 기술적 내용이 형태적 요소로만 쓰이거나 건축에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피하고 건축적 내용과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4) 도시내의 건축(구조)물임을 감안하여 도시의 장소성과 맥락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것.
- 5) 시대적 및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적정기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할 것.

대지: 현존하고 있는 도시내의 대지를 작가가 임의 선정(신축)허거

나 혹은 기존 건축물이나 구축물(증개축)을 대상으로 할 것

표현방법: 기금적 평, 입, 단면도 및 투시도 등의 전통적인 평면식 표현방식을 지양하고 3차원적 표현방식으로 공간, 구축 방식, 건축적 및 기술적 효과를 표현하도록 할 것.

■ 응모대상 및 자격

- 응모대상: 임의 선정된 실제의 대지에 주제를 적용한 창작작품으로 이전 국내외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작품에 한함
- 응모자격: 전문대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관련실무 종사자(단, 건축사는 제외)

■ 작품규격 및 응모방법

- 페널: 가로90cm× 세로120cm 1매, 작품설명서(300자내외의 A4용지 1매분량) 1부 제출
- 모형: 가로×세로규격이 75cm×90cm 또는 90cm×75cm, 높이 75cm이내 1점 제출

■ 작품접수

- 접수기간: 2000년 8월 31일 (09:00~18:00)
- 접수장소: 대한건축사협회
- ※응모원서는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출품료 없음).

■ 수상작발표 및 시상·전시

- 발표: 10월중 월간「건축사」, 서울경제신문,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 발표하며, 입상자에 한해 개별통보함.
- 수상작전시: 추후공고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 시상식: 추후공고 (")

■ 시상내용

- 금상(1점):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은상(2점): 상금 각 200만원 및 상장
- 동상(3점):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선(다수): 상금 각 30만원 및 상장

■ 기타 출품규정

- 공동작품의 경우 출품인원을 3인이하로 제한함.
- 패널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성재료의 사용을 금함
- 작품제출 당일 접수장내에서의 패널제작을 금함
- 패널 및 모형의 제작규격 엄수

■ 문의/안내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 전화 / 581-5711~4, 팩스 / 586-8823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 www.kira.or.kr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청사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서울시는 현재 남산공원의 북사면에 도시철도공사연수원, 실내체육관 등과 함께 위치한 시정개발연구원을 서초구의 서울상공무원교육원 부지내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라 지난 3월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건정건축(노형래), 까지건축(김정식), 더부건축(김상오) + 신승현·이진욱, 맥건축(곽재환) + 무회건축(김재관), 법한건축(강근웅), 비드건축(윤희진), 천일엔지니어링, 현건축(장호식), 희림건축(이영희) 등 총 8개 업체가 응모하였다.

지난 5월 10일 실시된 심사결과 희림건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고, 우수작에 건정건축안, 가작에 더부건축 + 신승현·이진욱안과 맥건축 + 무회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는 김성우(연세대)교수를 위원장으로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 김도년(시정개발연구원), 남상우(공무원교육원), 배경동(주택국), 송인호(서울시립대), 김종인(홍익대), 여영호(고려대), 강미선(이화여대), 문숙경(예문건축), 정평란(경원전문대), 신관섭(쌍용건설), 이명재(중앙대), 김정태(경희대), 변태호(성균관대)씨 등이 맡았다. 올 11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오는 2002년 3월 완공예정이다.

▶ 당선작 / 희림건축(이영희)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 (현서울시 공무원교육원 대지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08,386㎡
연면적	35,526.06㎡
건축면적	14,563.52㎡
건폐율	13.44%
용적율	27.67%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층수	지상4층, 지하1층
외부마감	화강석, 컬러복층유리
디자인책임자	정영균
디자인팀장	임동건
설계담당	심재훈, 최지인, 김광범, 김재철, 최재영, 김용권
C.G	홍관선

공무원 교육원은 현재 서초구 서초동 우면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주변 경관이 양호한 곳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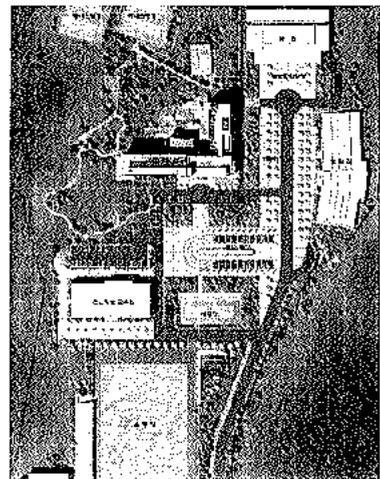
공무원 교육원
공무원 교육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단지

내 각 시설물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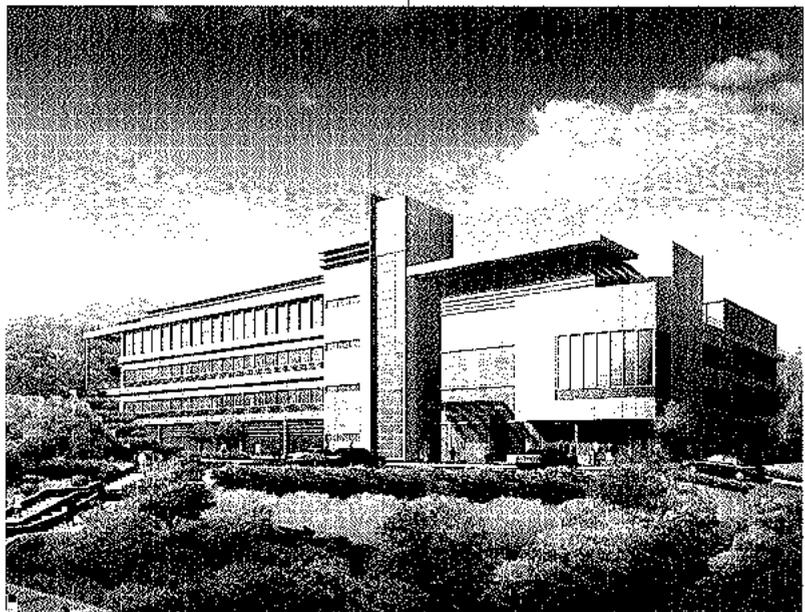
정문에서 본관으로 접근하는 주도로를 따라서 체육공원, 중앙광장, 가로수 광장등을 만들어서 넓은 옥외공간을 많이 확보했고, 본관의 전면에는 본관전면광장과 원형 로터리를 만들어서 차량 및 보행자의 영역과 동선을 정리했다. 중앙광장에서는 각종 옥외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지하에는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계획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시정개발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신청사를 계획하는데



배지도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공무원 교육원 대지내에서의 조화와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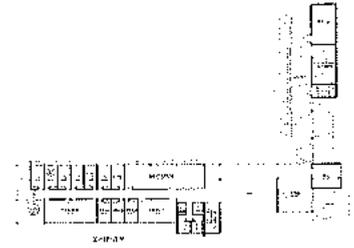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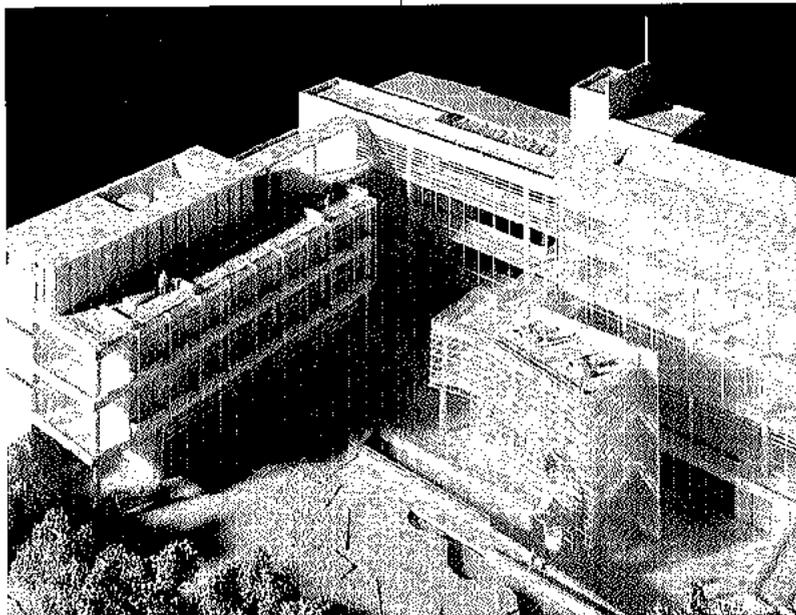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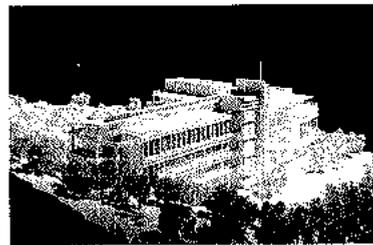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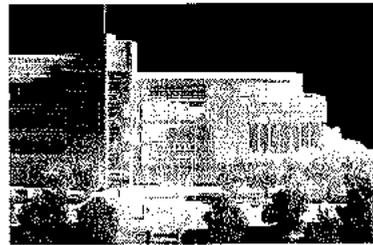
우선 주축을 주변건물과 일치되게 배치하였고, 건물의 주입면을 정문과 중앙광장 방향으로 배치하여 정면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개방된 조망을 확보하였다.

특히 남쪽에 위치해 있는 기존 녹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T자 형태로 배치하여 건물과 녹지공간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중정공간을 만들었고, 선큰기둥과 친수공간 등을 다양하게 설치했다. 또한 건물매스로부터 휴게실 공간을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중정 및 선큰과 맞물리도록 계획함으로써 휴게공간의 기능을 강조하고 연구원 신청사의 주요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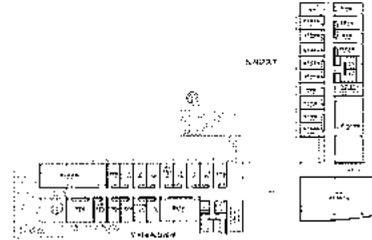
주축의 매스는 녹지공간속으로 관입시켜 3층 단부의 발코니를 통해 산책로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해서 녹지공간과 좀 더 가깝게 연결되도록 했다.

주출입구가 있는 로비공간은 전층을 아트리움으로 계획하여 실내의 개방감을 높이는 동시에, 측면을 전면유리의 커튼월로 계획하여, 중정과 건물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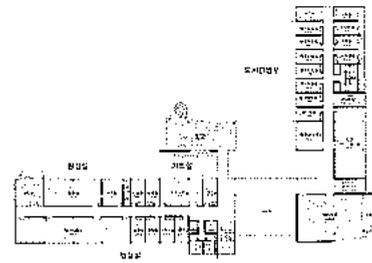
의 넓은 중앙광장이 투명한 아트리움 공간을 통해서 상호 연결되도록 했다. 건물의 입면은 신속에 위치한 공무원 교육원의 자연환경에 맞추어 수평적인 느낌을 살려서 디자인함으로써 편안한 느낌으로 주변과 어울리도록 하였다.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중단면도



횡단면도

▶ 우수작 / 건정건축(노형래)

대지면적	108,386㎡
건축면적	1,999.82㎡
연면적	6,769.42㎡
건폐율	1.58%
용적률	6.25%
규모	지하1층,지상4층
구조	RC조+철골조
외부 마감	히트미러복층유리,알미늄복합패널
설계참여	고종준, 주영준, 신익주, 김종호, 이창훈, 원종석

마스터플랜

현재의 서울시공무원 부지에 입주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 전산정보 관리소, 소방학교와 신축예정인 시정개발연구원 등의 여러 기관이 상주함에 따른 부지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시정개발연구원과 부지내 시설간의 조화와 질서를 유도하여 쾌적한 연구,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현재의 옥외주차장을 중앙광장으로 조

성하여 상부에 조경공간을 구성하고 하부를 단지내의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

공무원교육원의 대강당, 생활관의 식당과 시정개발연구원의 대회의실을 연계시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배치계획

마스터플랜축을 수용함으로써 진입시 건물의 정면성을 부여하고 전면의 중앙광장과 연계시켜 공간적, 시각적 개방감을 부여한다.

연구원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상주공간이 남향을 면할 수 있도록 'L'자배치하고 대지 서측 구릉지와 연계되는 외부휴게공간을 조성한다.

평면계획

기능에 따른 명확한 공간구분으로 각 영역의 독자성을 확보하도록 각 기능을 배치하였다. 메인홀을 건물의 중심 공간으로 구성하여 각 영역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외부인과 연구원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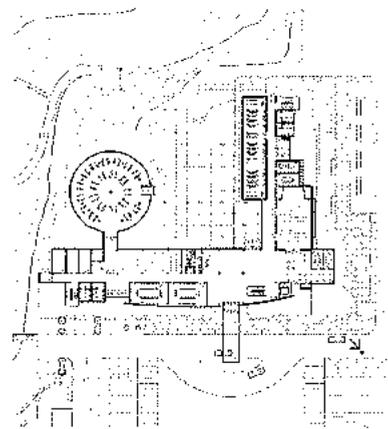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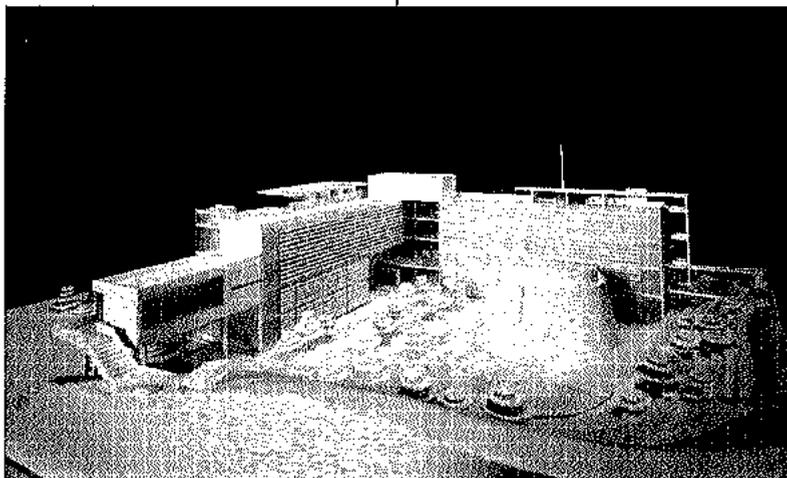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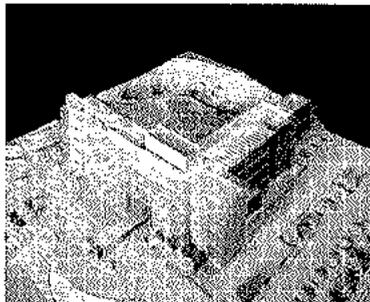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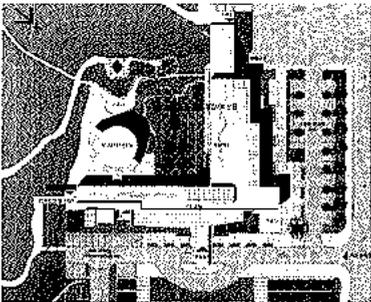
동선의 혼재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저층부에 회의실, 도서실을 배치하여 공무원교육원단지에 개방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입면계획

전면 커튼월을 사용하여 주위의 자연적 요소를 내부공간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채광조절을 위한 루버를 남측면에 설치하여 입면요소로 적극 활용하였다.

단면계획

각 기능별 특징을 고려한 원활한 수직조닝이 되도록 계획한다. 연구시설로서 장기적인 이용상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층고를 확보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옥상조경, 태양열집열판을 설치하고 아트리움공간을 구성하였다.



배치도

건축문화

a+u

신건축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e

Domus

건축문화

2000년 5월호

이번 호는 건축가 이시다 토시아키(石田 敏明)의 특 집 으 로 1984년부터 2000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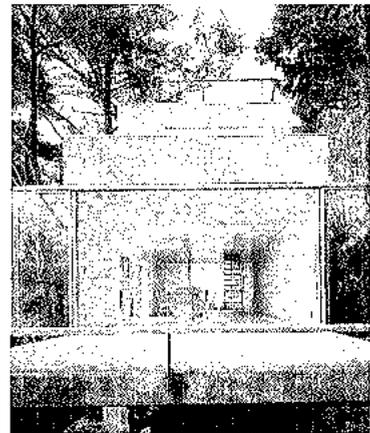
설계작업이 이루어진 22개의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다. 22개의 작품들은 주택이 주종을 이루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설계작업이 이루어진 순서대로 시대순으로 나열되고 있어 그의 작품경향의 변화와 함께 일관된 작품제작의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다.

■ 특집 - 이시다 토시아키 1984-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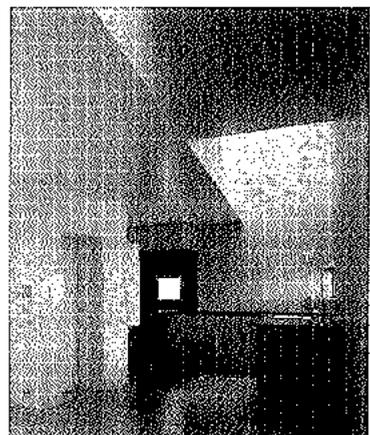
▶ 이시다 토시아키의 건축

이번 특집은 이시다 토시아키가 1982년에 독립한 이후 1984년부터 이루어진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소개하며, 그의 작품 경향의 변화와 또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일관되게 남아있는 그의 설계작업에 있어서의 방법론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작품에 대한 해설은 작가의 글이 아닌 작가와 이를 거들여줄 다른 한 건축가와의 대담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대담의 상대자는 그의 작업을 지켜봐온 건축가 니시자와 류(西澤立衛)가 선택되었고, 그와의 총 15시간에 이르는 긴 인터뷰를 통해 그의 설계 작업과정과 건축적 사고의 궤적을 그려내 보이고 있다. 니시자와와의 인터뷰는 각 작품의 설명으로서 도판들과 함께 편집되어, 사진과 도면에 이들이 언급했던 사고의 과정과 작업에 있어서의 관심사들이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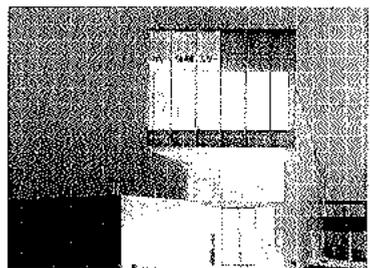
▶ 소개된 작품들



후지산 기슭의 주말별장



SUZ 하우스



아리아케 페리 터미널

소개된 22작품 중에서 주택이 가장 많으나, 소규모 상업건물, 소규모 사무소 건물, 페리어객선 터미널, 소방서, 기숙사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선보이고 있다. 22개의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우라사키의 주택, 치가사키의 주택, H-Office, 츠나시마의 주택, A-Project(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실험적인 생태학적 휴식처의 계획안), 후지산 기슭의 주말별장, 야쿠르트 독신자 기숙사공개설계경기 응모안, 타이헤이 철공소 별관, NOS 하우스, SUZ 하우스, F4(옥상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4

개의 Floor를 가진 주택), 아리아케 페리 터미널, 히로시마 서부 소방서 설계 경기 응모안, 히라타마치 타운센터 설계 경기 응모안, T2빌딩, 5 Floors(주택과 함께 계획된 치과 클리닉), 로데오 드라이브(상점), 카호쿠町 아트프로젝트 설계경기 응모안, KOB빌딩, 카페 Vlijmen, KUS하우스, 인자이동부 소방서 등이다.

▶에세이와 좌담회

그의 작품에 대한 에세이는 그의 스승이었던 이토오 도요(伊東 豊雄)가 맡았다. 그는 이시다 토시아키를 '섬세하면서 중요하지 않는 건축가'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시다의 작품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진으로는 그 컨셉이 잘 드러나지 않는 작품이며, 이러한 작품들이야말로 도시의 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시대는 작은 주택공간에 건축가의 컨셉을 담아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시다의 작업이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좌담회는 그와 동년배 혹은 후배 건축가들인 아오키 준(青木 淳), 코지마 카즈히로(小嶋 一浩), 세지마 카즈요(妹島 和世), 니시자와 류우에(西澤 立衛)와 함께 이루어졌다.

a+u

2000년 5월호

이번 호에서는 '미국 서해안의 건축가'라는 특집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미국 서해안 특히 LA를 중심으로



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 9명의 주택작품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으며, 사실상 미국 서해안의 건축가가 아닌 미국 서해안 주택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모더니즘의 전통과 미국 서부해안의 기후적 특색, 그리고 자유분방한 미국 서부 건축의 문화가 엮여있는 10개의 주택들과 미술센터가 소개되었다.

■특집 - 미국 서해안의 건축가들

▶ 에세이「LA의 주택: 모더니스트의 전통을 토대로」-마이클 웹(Michael We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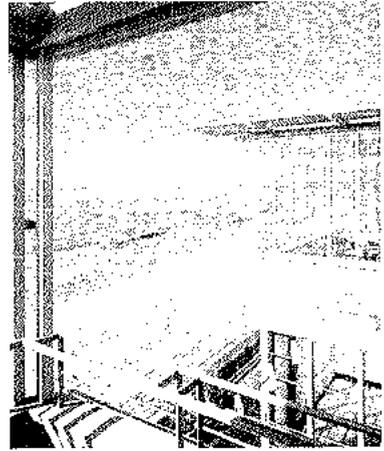
마이클 웹이 쓴 이 에세이에서는 LA 주택들의 생성과 이들 주택이 갖는 모더니즘적 전통의 역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모더니즘 건축들이 확산되던 시기에 LA 서해안에 라이트와 그와 동시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이 모더니즘적 주택들을 보급해가는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허곳/세퍼드 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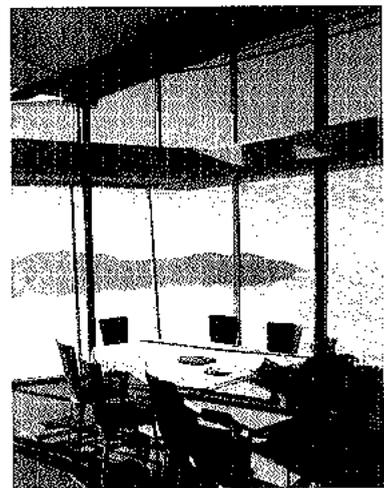
▶마이클 T 말잔 (Michael T. Maltzan)의 허곳/세퍼드(Hergott/Shepard) 저택은 절제되고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면은 초기 모더니스트들의 주택들을 연상시키는 구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의 아기자기한 스케일을 넘어서는 널찍한 벽면들은 사뭇 아트리에나 사무실 건물을 연상시킬 만큼 무심하기까지 하다. 정원을 향해 가로로 길게 놓여진 식당 공간은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정원과 연결시킴으로서 서부해안의 기후를 만끽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서부해안의 자연을 끌어들이는 점은 무어 루블 유델 아키텍츠 앤 플래너즈



페그 요킨 저택

(Moore Ruble Yudell Architects & Planners)의 페그 요킨(Peg Yorkin) 저택과 스티븐 엘리히(Steven Ehrlich)의 리차드노이트라의 비치하우스 증축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페그 요킨 저택은 서부 해안의 도로에 면한 모래시장에 대를 쌓고 그 위에 지어올린 듯한 형상으로, 해안을 향해 넓게 펼쳐진 발코니는 거실과 가족실, 식당으로 유입되어 해변의 모습을 실내공간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스티븐 엘리히는 캘리포니아에 모더니즘 주택의 전통을 만들어 낸 리차드 노이트라의 '비치 하우스(Beach House)'의 증축을 맡았다. 기존 건물의 정원부분에 지붕을 씌우고 바와 옥외 거실을 만들어 기존의 수영장과 연결시킴으로서 외부로 개방된 거실로부터 수영장, 해안에 이르는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B.R.M주택

▶ 하기 벨츠버그(Hagy Belzberg)의 B.R.M. 주택은 좀더 독특한 경관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주택은 산타 모니카 산맥 서단에 위치하여 구름위로 솟은 봉우리들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파편적인 형태의 평면을 지닌 이 주택은 주위의 암석들이 정원을 통해 파고들며, 대지와 유기적인 구성을 하고 있어 라이트의 낙수장을 연상케도 한다. 한편으로는 산맥의 경관으로 한편으로는 펼쳐진 바다의 수평선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주택이다.

▶이제까지의 주택들이 규모가 큰 고급 주택들이었다면, 거스리+브레쉬(Guthrie+Buresh)의 워크하우스(WorkHouse)와 존스 파트너스(Jones, Partners)의 브릴 저택은 작은 규모의 캘리포니아 주택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 주택 모두 좁고 긴 형태의 평면을 가지고 있는데, 워크하우스는 외부공간을 어두운 공간, 밝은 공간, 습한 공간, 마른 공간 등으로 나누고 있는 점이 눈에 띄며, 브릴저택에서는 하나의 기계와 같이 유니트화된 화장실 설비를 보여주고 있다.

신건축

2000년 5월호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들은 국제회의장, 고층 집합주택, 대학의 복합 강의동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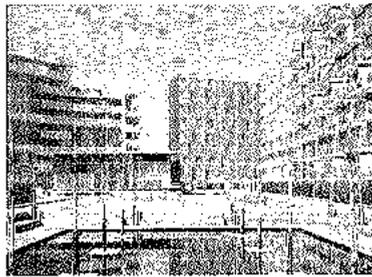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키시 와로(岸和郎)의 카즈라세이(골동품 갤러리), 미야자키 히로시(宮崎浩)의 세타가야(世田谷)자동차학교 미와 마

사히로(三輪 正弘)의 카루이자와 올림픽 기념관 등 오히려 중소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눈에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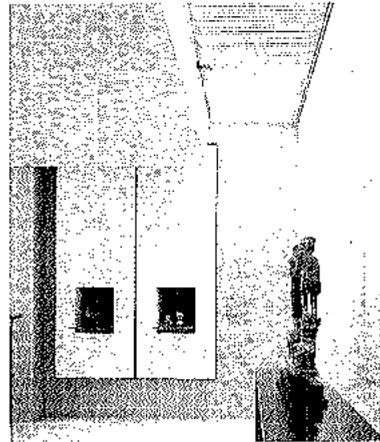
■작품

▶기후(岐阜)縣營주택 하이타운 북부 남측블럭 제 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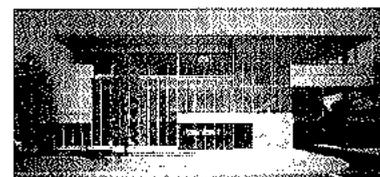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기후현이 진행중인 대단위 집합주택 단지 중의 하나이다. 프로젝트의 전체 코디네이터는 잘 알려진 건축가 이소자키 아리타(磯崎 新)이 맡았으며, 랜스케이프는 마사 스와츠(Martha Schwartz)가 담당한 가운데 각 주동의 설계를 여러 건축가들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기분에 완공된 건물들은 건축가들의 이름을 따서 타카하시(高橋)棟, 홀리에(Hawley)棟, 딜러(Diller)棟, 세지마(妹島)棟 등으로 이름붙여졌다. 주호평면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타카시동은 기둥을 이용한 구조방식을 채택하였고, 딜러동은 각 주호가 조금씩 엇갈리며 배치되었고, 홀리에동에서는 각 조호가 요철이 심한 가운데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결합되어있다. 가장 인상적인 세지마동에서는 미리 방한개 크기의 일정한 모듈을 정해놓고 이들 모듈이 일렬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주호평면이 구성된다. 방의 갯수와 전체 주호의 면적은 결합된 모듈의 갯수에 따라 정해지고 큰 주호와 작은 주호에서 방의 크기는 모두 같도록 되어있다.

▶키시 와로(岸和郎)의 카즈라세이 아무런 작가의 설명의 글 없이 소개된 이 건물은 골동품 전시장이다. 건물의



양측에 이웃 건물들이 가깝게 붙어있고 유일하게 도로에 면한 입면은 매우 좁은 전형적인 모습의 일본 상업지 필지에 위치하고 있다. 깊숙한 입구부분의 소원도우와 진입현관은 도로면보다 레벨을 낮추고 있다. 이 낮춰진 레벨은 건물 내의 소름이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계단에 의해 올려지고, 이와 조금 떠러진 곳에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따로 놓이게 되는데, 진입시의 느낌을 고려한 레벨의 조정이었는지 건물 층고가 제한된 상황에서 실내 층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는지 알 수는 없다. 마감 재료는 노출 콘크리트와 목재, 석면, 라임스톤, 철 등 다양한 재료를 쓰면서 장식과 과도한 공간의 조형을 배제하고 재료간 접합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서 재료의 물성을 드러내는 디테일을 사용하고 있다. 전시공간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 치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고, 창이 없는 건축실제로 많은 창을 낼 수 없는 대지의 상황이다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천창과 계단실 공간을 어우러지게 만들어 실내 분위기의 연출에도 기여하게 만들고 있다.

▶미야자키 히로시(宮崎浩)의 세타가야(世田谷)자동차학교



자동차 운전교습소인 이 건물은 기존 건물의 재건축이다. 건물의 후면에 교습 코스를 두어 그 입구는 학원 건물을 관통하여 지나가도록 하였으며, 학원 건물은 교실과 사무실, 휴게실로 구성 되어 있다. 건물의 재건축 과정에서 새로이 허가를 내기 위한 조건으로 건물 전면의 5m×65의 대지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지로 만들었는데, 이 공간에는 건물의 내부로부터 연결되어 나오는 마루를 칸 데크가 설치 되어 건물의 테라스로서의 영역성도 함께 획득하려하고 있다. 건물의 조형은 모더니즘의 초기작들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실내의 레몬색 벽은 외부의 노출콘크리트의 회색벽과 대조를 이루며 건물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미와 마사히로(三輪 正弘)의 카루이자와 올림픽 기념관

실내체육관을 연상시키는 실내 공간, 벽면을 따라 올라가는 램프와 이와 함께 전시된 각종 전시물들, 작은 기념관이지만 동계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소형 기념관으로서 좁은 전시공간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전시물의 성격에 걸맞는 전시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듯 하다.

Architectural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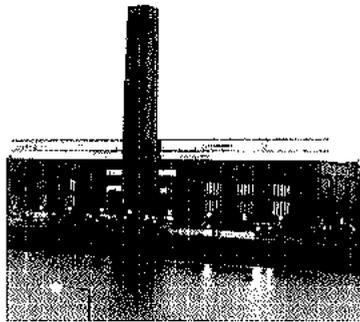
2000년 4월호

영국의 뉴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를 전권에 걸쳐서 소개되었다. 2000년을 맞으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최대 프로젝트는 영국의 밀레니엄 돔이었다. 영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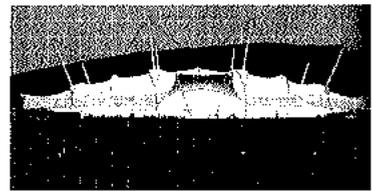
디자인과 기술력이 결합되어 혁신적인 디자인 산물과 위라기구들로 가득찬 이 구조물은 영국 건축의 위상을 드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복권발행등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했던 Millenium Commission은 그 밖의 190여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본지는 Millenium Commission이 지원하였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대부분 유선형태의 과학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과 낙후된 도시중심부나 탄광등을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Herzog & de Meuron의 런던 테이트 현대 미술관



국제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Herzog & de Meuron의 안은 두개층의 수평 발광체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강한 수직요소인 중앙 굴뚝과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내부로 빛을 유입시키고 밤에는 환한 발광체의 역할을 한다. 1948년에서 1963년 사이에 두단계에 걸쳐 지어진 이 건물, Bankside는 초기 Dutch Modernism을 반영하고 있다. Herzog & de Meuron은 긴 슬릿창을 가진 벽돌 스킨을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서측면에 거대한 램프를 두어 건물의 중세적 분위기를 희미하게 하고 있다.

▶Michael Hopkins & Partners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Dynamic Earth Center 이 건물의 디자인 컨셉은 18세기 근대 지리학의 선구자였던 James Hutton



에 대한 추모로부터 출발한다. 건물은 세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페브릭소재의 텐트구조 지붕이다. 아래에 전시실과 사무실, 공방을 수용하는 이층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앞에 야외 극장이 중심축에 맞춰 나란히 놓여졌다. 18세기에 지어진 이 도시, Royal Mile의 동서축을 따라 놓인 거대한 텐트구조의 지붕은 어두운 녹색의 인접한 둔덕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Alsop & Stormer, Fielden Clegg, Letts Wheeler의 Doncaster Earth Center

옛 탄광촌이었던 지역을 자연과학 학습공원으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로서, Earth Gallery, 수력 발전관과 생태 목초지, 정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마스터 플랜은 Derek Lovejoy Partnership에서 수행하였는데 이 공원은 이곳 대지의 다양성을 축복하는 개념에서 발전하였다. 이곳 토양의 종류는 라임스톤이 풍부한 알카리성의 남부지역과 쓰레기 등으로 인해 산성 토로 변한 북부지방으로 나뉜다. 남북 방향의 공원 시퀀스는 위와 같은 토질의 변화에 따라 계획되었다. 낮음에서 높음의 시퀀스로, 식물의 종류도 늪지대 초목류에서 건초로 그 수종이 변화되어 간다.

그 밖에 총 20여개의 프로젝트들이 소개되었는데 ▶Terry Farrel & Partners의 Newcastle 국제 생명과학 센터 ▶Terry Farrel & Partners의 Kingston 해양박물관 ▶스포츠 초사실, 과학센터 그리고 영화관등이 결합되어 낙후된 도시중심부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인 Consarc Design Group의 북 아일랜드, Belfast,

Odyssey Project ▶ Richard Rogers Partnership의 런던 Millenium Dome ▶ Foster and Partners의 런던, British Museum Great Court ▶ Foster and Partners의 웨일즈 Botanic Garden ▶ WilkinsonEyre Architects의 영국 Rotherham, ▶ WilkinsonEyre Architects의 영국 Bristol, IMAX 영화관 ▶ Michael Hopkins & Partners의 Norwich Millenium Center ▶ Nicholas Grimshaw & Partners의 Cornwall Eden Project ▶ Nicholas Grimshaw & Partners의 Leicester 국립 우주과학 센터 ▶ Michael Wilford & Partners의 Salford Arts Center ▶ Pringle Richards Sharrat Architects의 Sheffield Winter Garden과 미술관 ▶ BDP의 글래스고우 과학센터 ▶ Ian Simpson Architects의 맨체스터 도시중심부 재개발계획 ▶ Statton Williams의 Sussex, 종자 창고 ▶ Percy Thomas Partnership의 Wales Millenium Center 등이다.

Architecture

2000년 5월호

이번 호는 힘이라는 주제로 건축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면모, 건축전반에 관해서는 발전소 건물의 미술관 개조 프로젝트, 컴퓨터의 힘으로 가능한 가상 박물관등 다양하게 다뤄졌다. 예정작으로는 Perkins &

Will의 Condominium Tower와 Valerio Dewalt Train의 Office Building 등이 소개되었다.

■ 예정작

▶ Perkins & Will의 시카고 Halsted Condominium Tower



39층의 콘도미니엄 타워는 일층의 인근 주민을 위한 슈퍼마켓과 그 위로 4개층의 주차장이 저층부를 구성하고 있다. 콘도미니엄 부분의 매스는 수직적으로 분절되어 가로로 불규칙하게 적층되어 있다. 이 건물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9m높이의 남북방향으로 건물을 관통하는 슬릿에 있다. 이것은 단일한 매스가 아니라 가늘고 긴 매스들이 적재된 형태를 더욱 강조한다. 그 밖에 녹색의 유리 패널과 프레임만으로 이루어진 외피시스템에 집중하여 Valerio Dewalt Train의 위스콘신, 33 East Main Office Building을 소개하였다.

■ Power

힘, 권력은 다양한 장소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감지된다. 유명한 건축가의 주택 프로젝트에서, 웹사이트 상의 미술관 분관과 미술관으로 새 단장된 발전소 건물(말 그대로 힘의 근원지)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다양하게 인식된다. 힘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흐름이다. 어느 정도가 실제적인 것이며, 어느 정

도가 무언극과 같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지를 다음의 건물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 Philip Johnson의 주택

지난 몇해에 걸쳐 포토그래퍼 Michael Moran은 New Canaan과 Connecticut에 지어진 Philip Johnson의 주택을 찍어왔다. 그의 사진과 Hilary Lewis의 Philip Johnson에 대한 전기를 통해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랜드스케이프와 Philip Johnson 주택과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그 밖에 힘이라는 주제로 다음의 작품들 Catthay Lang Ho의 구겐하임 Virtual Library Santiago Calatrava의 스페인 발렌시아, IMAX 영화관 Robert Ventury & Denise Scott Brown의 프랑스 Toulouse 주청사 Herzog & de Meuron의 런던 Tate Gallery이 다양하게 다뤄졌다.

■ 미래주택의 제안



Mike Jantzen의 미래형 주택

가속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세계에 반해 주택산업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MIT의 미래주택을 연구하는 한 교수는 언급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혁신적 주택 디자이너(그는 건축교육을 받은 제품디자이너로 불린다)는 이제 건축 영역의 한계에 이르렀다. 그는 변형가능하며, 에너지 절약형에, 시공이 용이한 대량생산주택을 고안하였다. 네바다의 제조업체인 ASC는 유럽의 제품디자이너를 고용해 값싼 fibreglass로 만들어진 주택의 외피를 생산하고 있으며, Mike

Jantzen은 이동성과 모듈의 개념을 도입한 미래형 주택을 선보였다.

■ 기타

교토의 목조건물 보존 유명 건축가의 건축기행의 행로와 그들의 사고를 추적, 칠레의 Glass House에서의 한 여성의 생활을 훑쳐보는 퍼포먼스에 대한 리포트 The Triumph of Baroque : Architecture in Europe 1600-1750 이라는 주제의 전시회에 대한 소식 등이 자세히 다루졌다.

Domus

2000년 5월호

이번 호의 건축 분야에서는

Steven Holl, Hans Hollein 등 건축가의 신작들이 다루어져 있으며, 디자인 분야에서는 John Thackara와

의 인터뷰, 접히는 사물들에 대한 재고 등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 건축

사회적, 정치적으로 특정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던 근대건축과 달리, 오늘날의 건축은 그 테마가 중심이 없이 제각각 흩어져있다. 사회적으로 그다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건축물들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건축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자 했던 열망을 갖고 있던 시대를 되돌아보는 Giancarlo De Carlo의 에세이가 실려있다. 이어서 다음의 최근작들이 소개되어 있다.

▶Giancarlo De Carlo의 Urbino 신 경제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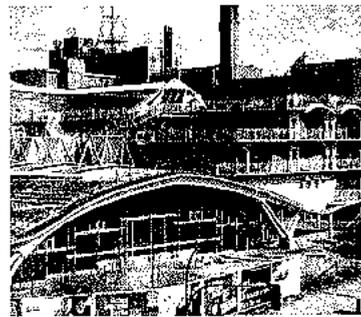
15세기에 지어진 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수도원 건물을 대학 시설로 개조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De Carlo는 외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부에 새로운 시설들을 삽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Steven Holl의 미국 미시건 Bloomfields Hills Cranbrook 과학관



1924년 Eliel Saarinen에 의해 그 마스터플랜이 계획된 Cranbrook 대학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증개축이 이루어져 왔지만, Holl에 의해 설계된 과학관 증축만큼 기존 컨텍스트와 조화를 이룬 경우는 없었다. Saarinen의 타운 플래닝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Holl의 기존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적 실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Holl이 북유럽의 디자인 감수성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컨텍스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Hinrich Baller, Doris Piroth의 베를린 Winterfeldtplatz 스포츠센터 및 유아원



베를린의 경직된 건축물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건축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Baller의 근작으로, 그동안 미개발지로 남아있던 Winterfeldtplatz에 지어짐으로써 기존 도시 맥락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작품은 Baller의 스승이었던 Scharoun에서 유래된 또하나의 모더니즘 경향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외에 ▶Hans Hollein의 비엔나 뉴도나우 시 학교, ▶Eric Owen Moss의 캘리포니아 Culver City 두 개 프로젝트, 그리고 ▶인테리어 분야로 Fabio Novembre의 밀라노 SHU 레스토랑-바가 소개되어 있다.

■ 디자인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들이 급속도로 생활 양상을 바꿔가고 또한 우리의 미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대상에 대한 디자이너 John Thackara와의 인터뷰, ▶최근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경향, ▶접힘 의자, 자전거 등 공간적으로 접혀 부피가 축소되는 사물들에 대한 재고 등이 다루어져 있다.

■ 이벤트

헝가리의 사회, 건축 문제들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가고 있는 Karoly Kos 협회는 1989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 예술계

세계화와 국수주의, 유럽 나라들과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전략들과 멀티미디어 활용 등 다양한 토픽들이 혼재하고 있는 런던 예술계에 대한 Pierre Restany와의 인터뷰가 소개되어 있다.

건축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령

건축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236호
(2000년 5월 22일)

◇개정이유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소속 건설업자 및 그 계열회사의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자격시험의 과목중 건축법규가 배치계획으로 변경되는 등 건축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배치계획의 출제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사보신고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축사자격증·건축사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의 재교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자격취득자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게 되어 건축사보신고를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써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게 함(제2조제1항).

나. 건축사자격증·건축사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함(제6조).

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특수구조물에 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관련 구조물을 추가함(제15조제4항제3호의2).

라.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소속 건설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건축물을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시설로서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는 업무시설로 정함(제15조제5항).

마. 건축사자격시험과목으로 추가된 배치계획의 출제범위를 대지계획·대지단면·지형계획 등으로 정하고, 건축사예비시험과목으로 추가된 건축법규의 출제범위를 건축법·건축사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계획법 등으로 정함(별표 1).

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모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중 "면허증등"을 "자격증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건축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건축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으로, "건축사면허수첩(이하 "면허수첩"이라 한다)"을 "건축사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면허증등의 재교부신청등)"을 "(자격증 등의 재교부신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면허증·면허수첩"을 "자격증·자격수첩"으로,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자격증·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

- ① 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자격증 및 자격수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축사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중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를 각각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로 하며, 동항제7호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증재교부"를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의 재교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경우 : 2만원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를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를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를 각각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로 한다.

1. 자격(면허)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건축사사무소등록신

청서등)"을 "(건축사업무신고서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등록신청서"를 "건축사업무신고서"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소속건설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 신고"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로 한다.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는 법 제23조 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사일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사본
2. 재직증명서

제15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제1호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3의2. 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관련 구조물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3조제8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중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제15조의2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조합중앙회

제16조의 제목중 "사무소등록부등"을 "건축사업무신고부 등"으로 하고, 동

조 본문중 "사무소등록부"를 "건축사업무신고부"로, "사무소등록증"을 "건축사업무신고필증"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사무소등록증"을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소등록증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소속 건축사신고필증"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처분결과통보) 도지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이나 업무정지명령을 하거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중 "법 제11조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설계수급대장 또는 공사감리수급대장에 기재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업무와"를 "건축주 및 그 업무와"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1등급 경력구분란의 제2호중 "건설업법 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건설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해외건설업자"로, "주택건설사업체"를 "주택건설사업자"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체"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고인란중 "신고일자"를 "신고일"로, 근무처란중 "등록번호"를 "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처란중 "등록번호"를 "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고인란중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쪽의 자격사항란중 "등록일자"를 "등록일"로, 근무처란중 "등록번호"를 "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건축사면허증"을 "건축사자격증"으로, "면허연월일"을 "자격취득일"로, "건설"을 "건교"로, "건축사법 제7조제1항"을 "건축사법 제7조"로, "건축사면허를 합니다."를 "건축사자격을 부여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지중 "건축사면허수첩"을 "건축사자격수첩"으로 하고, 동서식 표지뒷면을 별지와 같이 하며, 동서식 제3면 내지 제5면을 각각 제2면 내지 제4면으로 하고, 동서식 제2면(중전의 제3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중 "사유(구체적으로 기입)"를 "재교부사유(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로, "정부수입인지"를 "수입인지"로 하고, 동서식 뒷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쪽중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신고필증"을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신고필증"으로, "면허번호"를 "자격(면허)번호"로,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을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및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4서식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건설부령 제267호 건축사법시행규칙 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전형시험의 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 목	출제범위	출제방법
건축구조	일반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구조역학	필기 (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계획	단지계획 건축환경원론 건축계획각론 건축설비 건축사(史)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과 건설부령 제267호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제8조관련)

1. 건축사자격시험

과목	출제범위	출제방법
배치계획	대지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실기
건축설계	평면설계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2. 건축사예비시험

과목	출제범위	출제방법
건축구조	일반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구조역학	필기 (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시공	시공일반 공사관리 건축재료 건축적산	
건축계획	단지계획 건축환경원론 건축계획각론 건축설비 건축사(史)	
건축법규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

건설교통부령제235호
(2000년 5월 22일)

◇ 개정이유

최근의 연구결과 및 기상통계자료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및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확대·조정하고, 건축기술의 발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관한 구체적·기술적인 사항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광주광역시·강원도·전라남도·제주도 등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최근의 연구결과와 기상통계자료에 따라 수도권·광역시·경상남북도 등을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에 추가하고, 강원도 북부지역을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제외함(제6조제1항 및 별표 2).

나. 종전에는 15층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 14층 이하인 아파트와 동일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15층 이상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5층 이상 14층 이하인 아파트보다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는 숙박시설·오피스텔 및 가숙사의 범위를 6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확대함(제6조제1항 및 별표 3).

다.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각종 하중 및 외력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7조).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계산의 방법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력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斜材)·가새·버팀대·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 건축물에 적용하는 자중(自重)·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응력(應力)"이라 함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기타 이와 유사한 단면력을 말한다.
3. "허용응력도"라 함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각 재료의 하중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재단면의 각 부위에 생기는 응력도가 최대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한계응력도를 말한다.
4. "구조내력"이라 함은 내력부분인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등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 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7. "허용응력도설계법"이라 함은 탄성 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도가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8. "극한강도설계법"이라 함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단면의 극한내력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설계용 극한내력의 값이 극한설계하중에 의한 부재의 응력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9. "고정하중"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이에 부착·고정되어 있는 비내력부분 및 각종 시설·설비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10. "적재하중"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 실별·바닥별 용도에 따라 그 속에 수용되는 사람과 적재되는 물품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11. "등가정적해석법(等價靜的解釋法)"이라 함은 지진력을 정적인 횡력으로 계산하여 건축물의 지진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동적해석법(動的解釋法)"이라 함은 지진력을 구조동력학이론으로 평가하여 건축물의 지진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구조설계의 원칙)

- ①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

압·지진하중 기타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내력부분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4조(구조부재의 강성 및 내구성)

- ① 건축물의 내력부분에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피피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靱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내력부분으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기타 이와 유사한 함수성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계산)

- ① 건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허용응력도설계법 또는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계산법에 의한다.
- ② 허용응력도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

의 구조계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내력부분에 대한 구조해석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을 사용하여 산정할 것
2. 구조부재의 설계응력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산정된 응력의 조합 중에서 가장 불리한 값으로 할 것
3. 설계응력을 산정할 때에는 적재하중의 부분적인 불균등하중의 분포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것
4. 지진하중은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응력으로 인한 구조부재단면의 장기 및 단기의 응력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도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내력부분에 대한 극한설계하중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에 하중계수를 곱한 극한설계하중을 사용하여 산정한 응력의 조합중에서 가장 불리한 값으로 할 것
2. 내력부분의 극한설계응력은 그 부재단면의 극한내력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설계용 극한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극한강도설계법에서 사용되는 하중계수·강도저감계수 기타 구조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4. 지진하중은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제6조(구조안전의 확인)

①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진구역 1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③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높이가 70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2.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정형건축물

제7조(설계하중 및 외력)①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설계하중 및 외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토압 및 수압
 7. 온도하중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지반의 허용응력도) 지반의 허용응력도는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기초)

① 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 직접 전달시키는 확대기초로 하되,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의 압력이 허용지내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말뚝의 내력이 그 허용지내력 이하이어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구조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하중 및 외력의 조합(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응력의 종류	하중 및 외력의 작용상태	일반지역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적설량이 1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비고
장기응력	평상시	D+L	D+L+S	-
단기응력	적설시	D+L+S	D+L+S	-
	폭풍시	D+L+W	D+L+W	기둥이 넘어져 뺏히는 등의 경우에는 L은 당해 건축물의 실제상황에 따라 적재하중을 뺀 값으로 한다.
			D+L+S+W	
	지진시	D+L+E	D+L+S+E	
D+E		D+E		

※ 비고 : 위 표에서 D는 자중에 의한 응력, L은 적재하중에 의한 응력, S는 적설하중에 의한 응력, W는 풍하중에 의한 응력, E는 진하중에 의한 응력을 말한다.

[별표 2] 지진구역(제6조제1항관련)

지진구역	해당지역
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남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상남도
Ⅱ	강원도 북부(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전라남도 남서부(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원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제주도

[별표 3] 중요도(제6조제1항관련)

중요도	특	1	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병원, 방송국, 전신전화국, 소방서, 발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5층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 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5층 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및 아파트	중요도 특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별표 4] 지반의 허용응력도(제8조관련)(단위 : kg/cm²)

지 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경암반	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400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각각의 값의 1.5배로 한다.
연암반	판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	
	혈암·토반암 등의 암반	100	
자갈		30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	
모래섞인 점토 또는 톱토		15	
모래 또는 점토		10	

설계도서신고현황

2000년도 4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4월분(99.4) 6백4십3만6십7㎡ 보다 8.7%(5십6만1천2백3십4) 증가한 6백9십9만1천3백1㎡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4월 누계 1천5백2십6만1천6백5십8㎡ 보다 50.9% (7백7십7만5천3백1십3㎡) 증가한 2천3백3만6천9백7십1㎡의 실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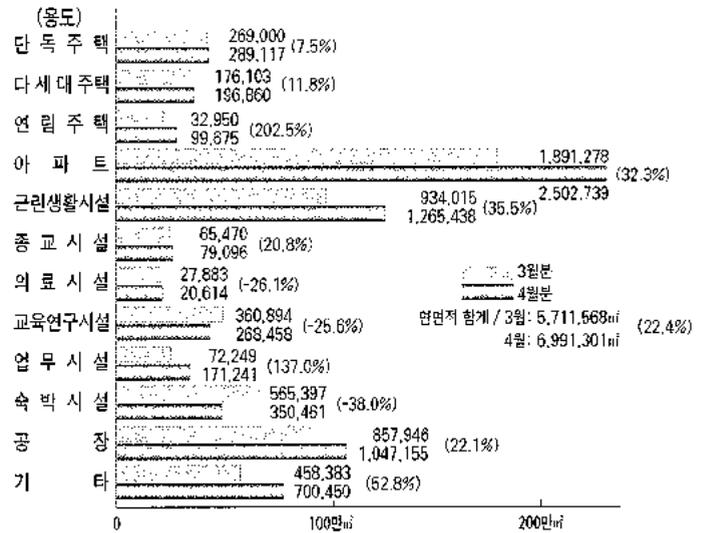
다. 전월비

전월 3월분(00.3) 5천백7백1십1만5백6십8㎡ 보다 22.4% (1백2십7만9천7백3십3㎡) 증가한 6백9십9만1천3백1㎡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부 산	236,705	581,541	344,836	146.3
	인 천	146,468	281,948	135,480	92.5
	광 주	30,186	88,681	58,495	193.8
	대 전	56,096	64,915	8,819	15.7
	울 산	56,817	80,586	23,769	41.8
	경 기	907,196	1,785,698	878,502	96.8
	강 원	68,610	166,426	97,816	142.6
	충 북	70,010	266,664	196,654	280.9
	충 남	90,961	170,279	79,318	87.2
	전 북	29,467	168,562	139,095	472.0
	전 남	69,060	167,639	98,579	142.7
	경 북	98,970	157,051	58,081	58.7
	경 남	152,454	255,163	102,709	67.4
	제 주	42,855	99,642	56,787	132.5
감소지역	서 울	4,273,055	2,591,653	(1,681,402)	-39.3
	대 구	101,787	64,854	(36,934)	-36.3
합 계		6,430,067	6,991,301	561,234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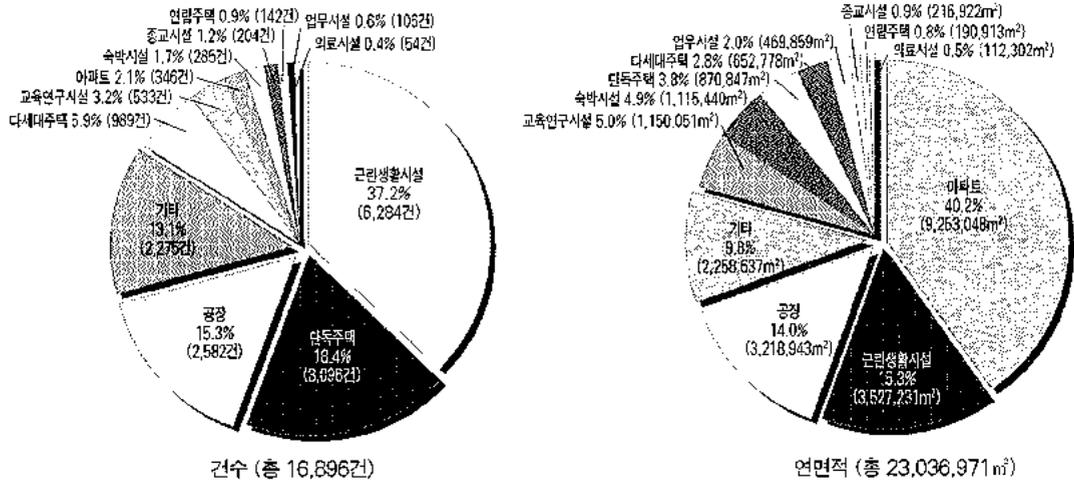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 기준)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도 4월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684	726	157,882	1,042	1,076	289,117	358	350	131,235	83.1	
다세대주택	80	84	40,244	337	348	196,860	257	264	156,616	389.2	
연립주택	16	23	34,255	65	72	99,675	49	49	65,420	191.0	
아파트	61	188	4,149,750	112	254	2,502,736	51	66	(1,647,014)	-39.7	
근린생활시설	1,520	1,586	548,832	2,155	2,237	1,265,438	635	651	716,606	130.6	
종교시설	59	62	35,116	69	79	79,096	10	17	43,980	125.2	
의료시설	15	15	26,568	16	30	20,614	1	15	(5,954)	-22.4	
교육연구시설	88	100	194,232	178	187	268,458	90	87	74,226	38.2	
업무시설	38	39	184,793	31	34	171,241	(7)	(5)	(13,552)	-7.3	
숙박시설	41	43	30,179	94	98	350,461	53	55	320,264	1,060.6	
공장	377	454	297,980	853	1,108	1,047,155	476	654	749,175	251.4	
기타	523	639	730,218	676	799	700,450	153	160	(29,768)	-4.1	
합 계	3,502	3,959	6,430,067	5,628	6,322	6,991,301	2,126	2,363	561,234	8.7	()=미이חס

용도별 구성비 (2000년 4월 누계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 4월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437	438	4,273,055	576	605	2,591,653	139	167	(1,681,402)	-39.3	
부산	215	283	236,075	256	370	581,541	41	87	345,466	146.3	
대구	171	171	101,787	106	106	64,853	(65)	(65)	(36,934)	-36.3	
인천	144	144	146,468	304	304	281,948	160	160	135,480	92.5	
광주	75	86	30,186	114	140	88,681	39	54	58,495	193.8	
대전	133	133	56,096	103	103	64,915	(30)	(30)	8,819	15.7	
울산	145	145	56,817	94	91	80,586	(51)	(54)	23,769	41.8	
경기	741	960	907,196	1,657	1,953	1,785,698	916	993	878,502	96.8	
강원	185	193	68,610	286	332	166,426	101	139	97,816	142.6	
충북	215	241	70,010	450	497	266,664	235	256	196,654	280.9	
충남	188	188	90,961	291	291	170,279	103	103	79,318	87.2	
전북	73	76	29,467	230	233	168,562	157	157	139,095	472.0	
전남	170	179	69,060	274	290	167,639	104	111	98,579	142.7	
경북	216	248	98,970	294	348	157,051	78	100	58,081	58.7	
경남	288	341	152,545	425	482	255,163	137	141	102,709	67.4	
제주	106	133	42,855	168	177	99,642	62	44	56,787	132.5	
합계	3,502	3,959	6,340,067	5,628	6,322	6,991,301	2,126	2,383	561,234	8.7	()=미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 (2000년 4월 누계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193	1,197	8,524,714	1,868	1,903	9,049,815	675	706	525,101	6.2	
부산	419	594	418,943	767	1,118	1,184,407	348	524	765,464	182.7	
대구	452	452	329,597	581	581	626,588	129	129	296,991	90.1	
인천	352	371	889,434	934	934	887,847	582	563	(1,587)	-0.2	
광주	431	506	275,352	400	512	283,179	(31)	6	7,827	2.8	
대전	299	299	141,211	441	441	434,803	142	142	293,592	207.9	
울산	351	355	172,643	298	298	222,627	(53)	(57)	49,954	29.0	
경기	2,295	2,836	2,095,788	4,931	6,103	5,868,192	2,636	3,267	3,772,404	180.0	
강원	564	601	216,391	649	717	313,343	85	116	96,952	44.8	
충북	693	781	259,554	1,103	1,266	925,603	410	485	66,049	256.6	
충남	587	587	288,990	797	797	454,500	210	210	165,510	57.3	
전북	354	361	186,288	574	577	420,104	220	216	233,816	125.5	
전남	605	625	256,588	798	821	521,207	193	196	264,619	103.1	
경북	695	821	561,788	878	1,054	543,750	183	233	(18,038)	-3.2	
경남	879	1,020	547,413	1,477	1,813	1,108,585	598	793	561,172	102.5	
제주	304	345	96,964	400	437	192,412	96	92	95,457	98.4	
합계	10,473	11,751	15,261,658	16,896	19,372	23,036,971	6,423	7,621	7,775,313	50.9	()=미이너스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4월)

(2000. 4. 30 현재)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정회원 회원수	7,569	2,932	701	546	231	252	275	153	905	184	205	182	215	116	264	326	82																
회원수	3,553	1,298	470	548	231	252	274	153	902	184	204	178	214	115	264	326	82																
회원 변동 사항	입회	59	18	5	4	2	2	4	2	8		1	2								1	2			3	4	2						
	재입회	12	4	3	1					1	1																	2					
	전입	11	6						1	2		1		1																			
	전출	-15	-4						-1	-2	-5																						
	폐업	-16	-7		-1				-1	-2																							
	사망	-1	-1																														
	등록취소	0	0																														
금일말 회원수	7,603	2,948	709	550	233	252	275	153	908	184	206	176	215	116	266	331	83																
계	7,619	2,948	709	550	233	252	276	156	911	184	207	180	216	117	266	331	8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건축사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축사	7,603	2,944	708	550	233	525	275	156	908	184	206	176	215	116	266	331	83
2급	16	4	1	0	0	0	1	0	3	0	1	4	1	1	0	0	0
계	7,619	2,948	709	550	233	252	276	156	911	184	207	180	216	117	266	331	83
비율(%)	100	38.7	9.3	7.2	3.1	3.3	3.6	2.0	12.0	2.4	2.7	2.4	2.8	1.5	3.5	4.3	1.1
준회원	25	15	7	0	0	0	0	0	0	0	1	0	0	0	2	0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형태별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5,194	2,409	16	7,619	
비율(%)	68.2	31.6	0.2	100	
사무소수	4,683	1,552	15	6,250	
비율(%)	74.9	24.8	0.2	100	

2000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6월 22일

건설교통부장관 ·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구 분	건 축 사 자 격 시 험	건 축 사 자 격 특 별 전 형 시 험
1. 응시자격	가.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건축사법 부칙 제3조 (건축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 법 제49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사법 부칙 제2조 (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 법제324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건축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 (대통령령 제987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시간	가. 시험일자 : '00. 9. 3 나. 시험장소 : '00. 8. 22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다. 시험시간 : '00. 8. 22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가. 건축사자격시험과 동시 시행
3. 시험과목, 시험방법	가.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나. 건축설계 실기 (건축설계 과제명, 당일 제시)	가. 건축구조, 건축계획 객관식 선택형
4.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응시표 교부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00. 7.10 ~ 7.15 (단, 토요일은 13:00까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 본 회 : (02) 581-5711~4 ○ 대구건축사회 : (053) 753-8980~3 ○ 광주건축사회 : (062) 521-0025~6 ○ 울산건축사회 : (052) 266-5651 ○ 강원건축사회 : (0361) 254-2442 ○ 충남건축사회 : (042) 256-4088 ○ 전남건축사회 : (062) 365-9944 ○ 경남건축사회 : (0551) 246-4530~3	○ 부산건축사회 : (051) 633-6677 ○ 인천건축사회 : (032) 437-3381~4 ○ 대전건축사회 : (042) 485-2813~7 ○ 경기건축사회 : (0331) 247-6129~30 ○ 충북건축사회 : (0431) 223-3084~6 ○ 전북건축사회 : (0652) 251-6040 ○ 경북건축사회 : (053) 744-7800~2 ○ 제주건축사회 : (064) 722-3248
5. 제출서류	가. 출원시 제출서류 ○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 : 1 부 ○ 칼라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도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 2 매 (응시원서에 부착 제출) ○ 응시수수료 : 48,000원 (응시원서대 2,000원 별도)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① 응시표사본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③ 호적초본 1부 ④ 해당증명서 사본 1부 (건축분야 기술사 및 기사1급 내지 2급 자격증·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외국건축사면허증·2급건축사면허증) ⑤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칼라사진 2매 ⑧ 우편봉투 1매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6. 응시자 지참물	가. 공 통 : 응시표,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컴퓨터응수성씨인펜 나. 실기시험 : 600mm×900mm 규격 제도판 (경사각도 조절장치 부착된 제도판 사용 가능), T형자 또는 제도판 부착 평행자,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지우개, 기타 제도용품 (단, 기계식 제도기는 사용 불가)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2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실기시험을 실시함.	
7. 합격예정자 발표	가. 합격예정자 발표 : '00. 10. 17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기간 : '00. 10. 24 ~ 10. 27	
8.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00. 9. 2)까지로 하며, 경력과 학력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2매,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건축설계용지(깔판용지 포함)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깔판용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및 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하며, 일반계산용이 아닌 다기능화된 전자수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제출서류 미비 또는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을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행위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며, 건축사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향후 3년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내에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 (581 5711 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RA.OR.KR) 및 건설교통부 건축과 (500 4131)로 문의 바랍니다. 	

2000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00009 김주애	00011 최형두	00016 신근창	00017 권영두	00021 이성수	00024 이승기	00038 김건일	00048 이인성
00049 김예중	00051 서승미	00060 최원주	00063 임인기	00075 김학희	00076 김성현	00079 이기형	00082 정은하
00083 노재재	00091 박희연	00095 한 철	00096 신동호	00104 유종철	00112 신재영	00118 김세은	00120 김종래
00121 최병희	00126 서동준	00136 안도영	00161 김승희	00163 위재성	00165 이정현	00186 윤상운	00189 강현재
00190 이선식	00199 박선경	00201 허경은	00205 김광식	00212 김기홍	00217 구기홍	00221 양원우	00225 김주성
00236 강형식	00255 장종순	00256 박기범	00267 권순철	00274 조영진	00278 정덕근	00282 김희성	00284 정민휘
00291 김진국	00295 김상수	00298 장유철	00303 김광수	00306 유상민	00307 박현규	00310 우영배	00320 박동현
00322 윤채현	00327 최홍중	00328 허승범	00329 원용희	00332 조창덕	00342 최광일	00345 박명원	00348 정만호
00350 이은아	00355 현종호	00364 최승환	00373 이승춘	00386 이영환	00387최진달미	00397 주영준	00411 이증무
00412 이경환	00426 김윤아	00428 양현규	00430 이상용	00448 최은석	00451 김정숙	00456 박은희	00459 김정석
00463 정지환	00470 백재훈	00484 김학봉	00496 서동준	00528 이양섭	00533 조한욱	00535 채희구	00536 윤희성
00539 백경기	00541 권태혁	00543 남귀남	00550 신진순	00551 조은석	00552 홍명희	00556 김수근	00561 이수영
00566 강신두	00570 김정길	00584 아진양	00585 김영광	00591 장영술	00593 최경록	00601 배도석	00603 이종찬
00605 남경석	00617 서창윤	00621 연필성	00625 황병연	00634 조창현	00635 김기남	00637 최규호	00639 홍창성
00643 손수진	00645 강동우	00654 조현양	00655 신명열	00672 정종택	00677 이용석	00694 윤원식	00696 이정복
00720 백종철	00729 황규원	00731 조희라	00739 임진호	00746 나은경	00763 한수연	00765 정평오	00767 김주석
00773 김진환	00775 반태진	00778 장성욱	00780 김희성	00785 전재광	00787 임병기	00800 염태현	00807 고 명
00808 김은미	00816 최영희	00823 김형완	00828 이경택	00834 김삼자	00835 김갑창	00840 박혜옥	00841 윤석진
00846 장현주	00847 박병홍	00850 송현중	00872 이정석	00875 이석우	00882 홍필홍	00894 주철민	00900 김태현
00912 안정임	00926 이근호	00929 김창열	00943 남수현	00954 박경만	00956 조규혁	00960 김종수	00967 공영기
00972 전기원	00976 박근형	00978 권영관	00993 김동균	00994 윤종화	01010 윤상식	01013 이상영	01015 이창열
01021 민준규	01025 홍석기	01030 김지수	01031 박기국	01032 김상주	01037 박홍철	01040 김윤수	01040 박기수
01087 장건석	01102 호대희	01109 김창석	01112 김지현	01113 최상민	01117 김미섭	01125 최환범	01128 강양식
01139 정외생	01153 허 용	01155 박영경	01176 김덕환	01181 우대광	01182 김경태	01187 김홍식	01189 서정원
01190 권해영	01191 김성훈	01200 강남수	01201 조승호	01211 이정섭	01213 이상규	01214 김태형	01230 강형숙
01235 연성문	01251 이한남	01254 장희침	01256 이창신	01267 박종섭	01269 김진섭	01279 김진수	01280 김진길
01283 조재경	01298 이형근	01303 김수정	01311 김영우	01312 이광훈	01319 박태영	01324 김대성	01336 김혜수
01347 최윤선	01365 정미선	01360 이시성	01363 김영찬	01373 김완수	01381 최찬순	01383 정구성	01387 이필순
01402 백정명	01407 김철석	01412 이재호	01418 백현수	01421 박동식	01424 인호영	01432 임재철	01436 최용수
01448 박양진	01457 최재룡	01462 이병수	01465 강남식	01472 조신애	01477 한주엽	01478 김승현	01492 조동오
01501 박종원	01513 이상규	01517 이성욱	01530 박정식	01535 유재호	01543 박상철	01546 김주성	01549 이안규
01552 이정진	01566 김진경	01562 서종호	01574 위준태	01577 김용주	01585 이재민	01590 우수창	01593 강정원
01594 주상선	01601 권경록	01621 권용상	01624 장근순	01627 이등우	01631 정재현	01633 홍영주	01639 이민석
01649 이응록	01652 문보규	01663 박영호	01676 김 상	01686 장영환	01687 정미숙	01688 정영철	01698 최은정
01700 노재성	01701 김진혜	01706 이명우	01707 이관영	01714 임재학	01716 김성민	01726 한상길	01732 윤한정
01739 진은미	01749 이상준	01757 남덕호	01758 김태열	01763 최승우	01776 윤정탁	01780 김훈기	01781 신수영
01785 최상우	01786 윤대호	01796 최종현	01801 장성규	01802 정재현	01811 이영주	01817 홍길수	01822 유영주
01824 노영호	01827 김태수	01830 안성은	01847 이희석	01853 김보성	01862 배원수	01867 김은배	01868 이수영
01872 유재홍	01875 김은진	01880 송석기	01889 이종호	01890 김해겸	01902 이수욱	01906 이승문	01907 조윤주
01911 원윤정	01912 양기웅	01914 이병명	01922 이수민	01925 안동희	01937 강 윤	01942 김경희	01957 이홍식
01965 홍윤선	01977 문연호	01986 김용현	01991 이성훈	01996 정인선	02002 채성훈	02009 김정근	02017 김원기
02019 최인호	02022 문정주	02026 오형진	02038 김기백	02039 최경남	02054 송광욱	02056 정진호	02057 이홍성
02069 김동집	02073 안동일	02074 김민수	02075 신성희	02082 남궁경	02084 김성춘	02087 박상신	02088 남승영
02094 김한수	02098 신규진	02100 김재만	02107 박학천	02109 강종현	02115 박병욱	02126 하은주	02136 장재춘
02140 김구홍	02141 박연준	02142 김명현	02144 이희정	02151 김승록	02155 박종세	02166 김영수	02177 이광구
02185 이재홍	02188 이영배	02191 아등관	02194 박민주	02202 김광복	02205 이승철	02208 권찬혁	02211 김지환
02215 나 은	02216 박재남	02217 조갑남	02219 서성주	02226 최광복	02232 조영선	02234 이희선	02235 노윤형
02237 최정우	02238 김달수	02245 이용관	02250 한선근	02253 문재이	02256 류철하	02275 정홍식	02287 윤범욱
02301 강남훈	02310 정진삼	02311 김문경	02314 안준기	02323 김영숙	02328 노약재	02346 장형욱	02350 최보선
02351 박재범	02352 유정우	02372 이은주	02378 정기현	02386 손도식	02387 오해욱	02390 아용규	02401 권명환
02409 권성근	02417 천준홍	02418 정귀원	02421 김태훈	02422 김기태	02434 문성미	02438 안성진	02460 이상국
02468 박홍호	02479 안형준	02483 박병수	02484 이재환	02494 이주승	02497 이심화	02502 황윤태	02517 조양선
02521 김성환	02526 이상진	02530 이미순	02531 안승엽	02537 이진권	02539 이갑주	02540 한정훈	02542 박창노
02545 이기철	02561 이동근	02569 구영진	02570 황재원	02575 박종영	02585 이호득	02591 임은주	02595 한성환
02603 원유정	02605 최갑수	02613 정민구	02616 박성익	02625 원세용	02628 김국중	02649 이금도	02654 전여진
02675 한강원	02681 윤근남	02694 김경순	02696 이종열	02701 공세창	02706 배 철	02707 백 함	02714 김정호
02715 김정훈	02718 나경천	02726 김신태	02727 김창남	02731 유봉권	02742 이 숙	02757 김홍달	02762 백인호
02764 이주경	02769 송성호	02773 원준섭	02785 정소희	02789 이상길	02800 변봉연	02801 송철환	02803 이태근
02806 최화춘	02810 김철수	02821 정철규	02826 최준혁	02827 정원호	02846 원하정	02857 박민규	02858 최중석
02861 우소영	02872 송재현	02874 유호기	02875 서정우	02883 김종기	02888 임체엽	02891 박인규	02897 여기철

02904 정승우	02910 남태연	02912 조성현	02933 김성현	02942 전응철	02943 이승경	02948 전창선	02955 배성복
02959 정남선	02970 채종형	02981 김봉수	02983 김창길	02992 박미정	03004 손영준	03012 김영자	03022 김양환
03023 이진수	03025 김신주	03036 김 희	03043 정석남	03048 박정부	03049 홍영호	03050 이상복	03052 박찬규
03087 김기봉	03097 조선애	03103 최민호	03110 허은영	03115 이윤지	03117 이의석	03120 김원준	03125 김동석
03142 박태영	03148 정서원	03166 조영학	03170 박유준	03175 이규상	03178 정채문	03194 도태중	03205 김주원
03209 정선영	03215 박진태	03227 신재혁	03234 장재성	03236 박 봉	03245 정현성	03247 정상현	03263 경희연
03265 민홍기	03270 김상수	03273 최성조	03278 한배룡	03284 김영복	03297 서동철	03299 서영주	03301 이삭기
03303 박대연	03312 이은경	03323 양성필	03324 김남훈	03328 박용삼	03329 박창명	03330 배동석	03342 이상철
03343 김영수	03349 엄병희	03352 최성희	03366 정기훈	03377 최병기	03380 오자홍	03386 강운정	03392 민방욱
03396 김규창	03397 박병득	03400 배수원	03402 주기탁	03406 유주호	03411 정점호	03420 객상환	03426 권용철
03439 최병철	03452 박건용	03454 이강인	03464 진호성	03469 정용욱	03479 조성화	03493 신현민	03502 최준모
03504 김창룡	03507 여연섭	03514 김현구	03517 오상진	03521 임정섭	03524 송용훈	03535 김대홍	03541 최영조
03545 박성규	03550 윤해순	03551 이종호	03554 박성문	03558 이보형	03559 금창준	03561 이기찬	03572 황양우
03576 정원순	03579 양호정	03587 강석관	03604 김덕기	03609 정석한	03614 이주용	03618 아현덕	03629 이현주
03631 김방환	03640 서정호	03645 이홍필	03654 정용교	03663 윤근중	03668 채상열	03671 신준근	03680 한병우
03693 박익서	03697 신용소	03699 류민호	03702 설정운	03704 임옥주	03718 김희형	03718 김배현	03720 박창욱
03727 최범규	03729 조성일	03746 이정석	03748 정재운	03749 안순희	03750 정상수	03775 김상남	03777 전성진
03788 조은주	03802 유용기	03803 박영호	03818 김용현	03824 홍 영	03829 유종근	03834 최용규	03836 김민찬
03837 김경민	03857 이은규	03860 박 익	03868 유안석	03870 강현호	03878 김용민	03883 이상희	03885 최지연
03889 민자승	03892 이종철	03896 조건철	03903 감남수	03916 김용길	03919 우현명	03926 민성광	03930 김주현
03943 권선혜	03949 김한아	03961 신동대	03967 엄태희	03992 이은용	03995 손나나	04006 양수용	04013 임민숙
04018 이강년	04022 김은주	04031 정미숙	04034 김원영	04046 이해경	04062 조광현	04065 박한규	04067 이해영
04071 김지용	04073 채갑수	04079 정종훈	04080 정대식	04091 류재권	04094 전우희	04097 이태성	04099 유선석
04106 정관택	04108 손용현	04109 김창원	04115 차병록	04120 김용기	04130 신충혁	04136 문상만	04137 유준용
04159 김현섭	04163 박치홍	04170 김영진	04176 허효갈	04191 현상훈	04195 최운산	04198 손경애	04202 김형준
04207 신현배	04209 허민호	04213 유재현	04215 최연수	04221 박지용	04229 변상규	04240 이현욱	04251 이승욱
04257 이동익	04258 김한수	04260 노경민	04266 김경숙	04267 김대영	04271 유성환	04276 박천석	04283 박홍문
04286 최중철	04288 박철오	04291 남경호	04293 유은희	04299 한만호	04301 배규환	04302 김태성	04305 정재영
04306 최정현	04312 상송열	04315 강대식	04332 김동만	04341 최정화	04343 김창윤	04350 함두현	04356 윤영덕
04361 최낙진	04363 문영삼	04375 김호민	04376 윤춘희	04377 김경목	04397 배형근	04409 박순희	04412 최경순
04413 조진현	04415 염성철	04423 서동수	04426 한길홍	04434 심재학	04435 전태식	04438 손기현	04441 문 영
04460 차홍영	04466 김희수	04469 이상규	04478 윤용천	04480 오신욱	04486 정용길	04524 이정우	04526 전영목
04531 서명철	04538 정우철	04550 손진욱	04559 조남진	04573 김승현	04574 김재록	04575 박성식	04579 임종필
04584 김진이	04593 한상주	04596 윤병철	04601 박정훈	04609 이길호	04611 윤성훈	04616 김영호	04621 김종현
04629 최원호	04631 정진현	04638 황상태	04641 인진호	04655 배동식	04663 유재수	04672 정승진	04678 오동훈
04700 오영복	04706 송미령	04711 남승한	04716 이정용	04721 방봉혁	04724 이재영	04727 김대영	04733 김지영
04734 남병길	04737 라성철	04742 전창남	04753 이승호	04755 권두기	04763 최호경	04766 신미숙	04771 정일현
04779 박미정	04780 김동주	04781 김숙환	04793 김덕성	04808 인준범	04809 조병석	04831 김상선	04832 신원선
04837 여승구	04844 안교갑	04848 고귀욱	04862 이주형	04868 이태현	04869 한준호	04874 김경연	04875 정종섭
04877 홍 택	04882 배우진	04886 경민호	04888 임권민	04897 권세진	04899 이항재	04902 홍형표	04904 장호수
04914 김학주	04919 민웅성	04921 김기현	04935 조윤석	04936 김성기	04944 박철현	04959 오인환	04963 정봉규
04982 이민호	04983 윤귀호	04986 채명수	04992 김희수	04996 배수섭	05004 이수아	05006 백승용	05018 정용태
05032 이재영	05041 이 환	05050 이민호	05055 엄태준	05058 진교삼	05060 김일호	05062 허주용	05066 정지철
05075 김동섭	05085 김기중	05089 심문찬	05091 김병찬	05099 이 훈	05100 이상섭	05102 남호진	05109 송용재
05113 고해심	05118 김명운	05130 홍윤경	05132 김현하	05143 이영수	05162 이재상	05171 서태석	05173 권영주
05179 백 선	05213 정동업	05223 엄우현	05234 박중욱	05235 홍승오	05236 오경교	05242 김진우	05243 김경혜
05249 윤여정	05250 윤오병	05254 허태훈	05255 이민환	05257 이완현	05261 김제효	05265 박유선	05266 김부현
05280 배찬운	05282 차석진	05284 정제욱	05290 이상운	05306 김진숙	05310 조인철	05321 정 협	05323 강성민
05324 김영진	05328 장은희	05336 최승찬	05342 김병필	05343 조성근	05344 최용철	05357 홍주현	05377 조종경
05379 김선유	05382 박종원	05387 김병목	05388 홍성호	05389 김현숙	05400 장재호	05412 이준영	05414 장길용
05418 정요찬	05427 손광현	05439 정일중	05442 최재준	05444 이석희	05449 남태우	05452 이무진	05470 김병일
05471 홍균표	05487 김좌수	05494 신동호	05500 예신지	05505 이항재	05518 김홍선	05519 권민정	05539 전영채
05542 김정홍	05547 이주현	05565 이세우	05573 조광수	05575 이동준	05581 이민형	05585 한승희	05601 권영수
05613 오진석	05624 이태민	05627 이경훈	05630 장성식	05637 편도일	05639 공봉국	05641 김영진	05642 이수정
05660 김원재	05678 이재호	05681 박경원	05692 김대홍	05699 지영규	05700 박용석	05712 정기철	05723 정희진
05725 안병철	05726 장낙구	05733 유재홍	05735 이명희	05736 신강운	05744 차용병	05759 정형석	05766 이창모
05769 김형만	05782 오광석	05796 임재찬	05797 박정원	05804 김희철	05807 박수호	05808 송관호	05813 최상길
05814 민유식	05818 전영형	05833 김남기	05834 노성석	05843 김병선	05862 이영주	05871 김양철	05876 제일영
05884 신기수	05888 김지철	05892 정현권	05898 박 훈	05899 심효림	05913 김학운	05914 이만규	05917 김상운
05937 서양준	05939 고은배	05942 박성준	05949 객상진	05970 김종석	05971 오세준	05977 김희중	05990 윤경용
05999 홍종만	06000 차경준						

통일유감(統一有感), 건축유감(建築有感)...

민족상잔의 달인 6월이 금년에는 희망과 흥분 그리고 축제의 달로 변했다. 국토가 남북으로 갈리지 55년. 적대적 관계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첫만남은 민족을 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6월 13일부터 사흘간 우리는 밤잠을 설치며 반복되는 TV의 화면을 보고 또 보았다. 마스크들은 평양의 회담 소식과 함께 향후 전개될 남북관계에 대한 국내외 학자,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연일 지면을 메우고 화면을 달구었다. 그런가하면 직장이건 식당이건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삼삼오오 모여서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하며 이야기 꽃을 피우다가 때로는 의견이 엇갈려 고성어 오가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 광경이 목도되곤 했다. 회담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북쪽을 얼마나 믿어야 하느냐, 미느냐가 쟁론의 초점이 되었다.

누구의 생각이 옳고 그르건 간에 남북정상회담의 만남은 공히 두 지도자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향후 결과야 역사가 말해주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전쟁의 기운이 소멸하고 통일의 기운이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이전이라도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김대통령이 순안 비행장에 내려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평양시내를 지나 백화원 초대소에 이르는 동안 온 국민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평양이 고향인 사람은 혹시 내가 살던 곳을 볼 수 있느냐 했을 것이고, 대북사업이 소원인 사업가는 북으로 진출할 날이 가까워 신이 났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김위원장의 공항영접에 예의가 바르다고 찬사를 보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복장이 비례(非禮)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열렬히 환영하는 평양시민을 보고 동쪽으로써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흔드는 붉은 꽃술에서 아름다움 보다 섬뜩하거나 생경함을 느끼기도 하였을 것이다. 또한 나이든 국민들은 이러한 희비(喜悲), 애증(愛憎)의 극한 감정이 순간 순간 교차하기도 하였으리라.

어찌되었든 이 날은 진정 역사에 기록될 날이며, 한 민족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한 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날 이 역사적 광경을 보면서 우리 건축사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떤 이는 대북투자의 활성화로 인한 대북 설계용역에 생각하며 미소를 짓기도 했을 것이고, 협회 임원들 중에는 이러한 대북 설계용역에 걸림돌이 될 건축사 자격문제, 북쪽의 건축법 문제, 감리문제 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에 고민을 한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깨끗한 평양시내에 찬사를 보낸 이도 있을 것이며 전통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은 시내 곳곳에 있는 전통을 살린 건축물에 주목했을 것이다. 이렇듯 각자의 전공과 직무에 따라 관점과 느낌이 달랐을 것이다.

필자는 일행이 보통문을 지날 때 그 보통문 주변의 건물들이 낮아 보통문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데 눈길이 갔다. 순간 빌딩 숲에 가려져 위용을 잃은 남대문이 떠 올랐다. 공산주의를 싫어하지만 보통문처럼 보존해야 할 건물을 돋보이게 정비하고 통제하는 일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문은 고구려 시대의 성문으로 6세기 중엽에 이미 건립되었으며, 1473년에 다시 지은 2층 문루이다. 역사적으로도 남대문보다 훨씬 앞선 참으로 귀한 문화유산이다.

통일이 되고 평양이 재개발된다 하여도 보통문 주변만은 보통문이 당당하게 주인노릇하는 그런 환경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남쪽의 재벌들과 북부인들이 어찌 어찌하여 고층건물을 세움으로써 남대문의 재판이 될까 걱정하는 이 마음이 한 사람 건축가의 단순한 기우이길 바란다.

(장양순/본지 편찬위원장)